



8

1982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2. 8호

(루게 418)



◆◆◆◆◆◆◆◆◆◆

## 차 례

◆◆◆◆◆◆◆◆◆◆

|  |    |
|--|----|
| 인류의 해불 .....                                       | 4  |
| 위대한 향도의 별 .....                                    | 5  |
| 왕재산 참나무 .....                                      | 5  |
| 천지의 무지개 .....                                      | 6  |
| 백두의 맑은 하늘 .....                                    | 7  |
| 주체위업의 시원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br>예술적화폭 ..... | 8  |
| 가지못한 길 .....                                       | 15 |
| 쇠물이 끓는 땅에서(외 2 편) .....                            | 25 |
| 황철의 아침 .....                                       | 25 |
| 이 거리를 사랑한다 .....                                   | 26 |
| 교대 .....   | 27 |
| 접중화 .....  | 28 |
| 스승의 얼굴 .....                                       | 33 |
| 주체의 기치높이 3 대혁명 다그쳐가자 .....                         | 38 |

|  |    |
|--|----|
| 황금산기슭에서 .....                            | 39 |
| 창성의 메아리 .....                            | 40 |
| 수령님의 푸른 수첩 .....                         | 41 |
| 전위의 길 .....                              | 44 |
| 들길 .....                                 | 45 |
| 작은 마을 .....                              | 46 |
| 원소의 전설 .....                             | 57 |
| 빼꼭새가 풍년든다 노래부름은...                       | 59 |
| 고향(외 1 편) .....                          | 60 |
| 길 .....                                  | 61 |
| 한마음 .....                                | 61 |
| 참된 삶과 존엄을 찾은 인민들의 영웅주의를 감명깊게 형상한 혁명적대작.  | 62 |
| 인간 내면세계의 깊이와 세부묘사 .....                  | 65 |
| 대양만리에 .....                              | 69 |
| 현실속의 작가들을 찾아서 .....                      | 74 |
| 혁명전사들에 대한 한없이 숭고한 사랑 .....               | 78 |
| 위대한 수령 <b>김일성</b> 동지의 탄생 70 뒤편에 즈음하여 진행한 |    |
| 전국방송극작품현상모집 심사결과 발표 .....                | 79 |

# 인류의 해불

문동식

솟은 탑  
하늘을 받들고  
불는 불  
누리를 밝힌다

만민의 념원이 달려오는곳  
우주의 중심에 솟아있구나  
아, 주체사상탑  
불멸의 해불이어

저 빛발 찬란하여  
하늘은 저리도 깨끗하고  
강토의 끝에서 끝까지  
자주의 삶은 만발하나니

정신의 기둥  
사상의 빛발  
새세계의 등대  
너 영생의 광원이여

살아보자고  
살아서 행복을 찾자고  
천년을 바라  
만년을 기원한

그 숙원  
그 갈망  
인류에게 삶의 불을 준  
위대한 사상이여

인간구원의,  
인간존엄의,  
인간만능의 원광을 뿌리시는  
아, 주체의 태양 **김일성** 동지

주체  
그 빛발 비쳐가면  
동토대우에도

꽃들이 만발하고  
불멸 내리는 사막에도  
생명수 굽이쳐라

그 빛발 안으면  
세월에 끌려가던 인간  
해와 달도 길들여  
력사의 궤도우에 세워주어라

아, 주체  
불타는 억만의 심장이  
구원의 화신으로  
영광의 분화구로  
높이 떠받든 불

저 불길  
잃으면  
인간은 다시 노예  
안으면  
인간은 영원한 새 세상

오, 그래서  
만민이 받들고  
만민이 지니여  
자주의 대행진으로  
누리를 펼쳐가나니

해와 별 빛나는  
이 세상우에  
천년을 타오르고  
만년을 비쳐갈  
주체사상의 해불이어

미래의 노을을 펼치며  
무궁토록 타오를  
인류의 불  
지구가 추켜든  
주인의 심장이여

# 위대한 향도의 별

쏘스레네스 케이. 라투라

위대한 별, 밝은 별이  
지구우에 솟아올랐어라  
주체의 태양 빛나는 우리 시대의 하늘에  
찬란한 향도의 별 솟아  
시대의 앞길 더욱 휘황히 밝혀주어라

아! 만민의 끝없는 기쁨과 감격  
누리를 진감하는 들끓는 환호  
이렇듯 온 세상에 차고넘친적은  
정녕 역사에 없었어라

세기적사변으로 주체의 태양 맞이하고  
세기적사변으로 또다시 맞이한 별  
시대의 위대한 향도의 별이여  
영명하신 지도자 **김정일** 동지이시여!

위대한 향도의 별 솟아  
이 세상 끝까지 광명이 있고  
이 세상에 영원한 행복이 있거니  
우리러 만민은 끝없는 영광을 드리여라

별이여, 향도의 별이여  
인류의 새 역사를 펼쳐가시며  
공산주의미래를 앞당겨오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이시여!

위대하신 수령님의 주체위업 받들어  
세계혁명 진두에서 이끌어주시는  
또 한분의 탁월한 지도자를  
혁명하는 시대는 맞이했어라

시대가 받아안은 기쁨우에 또 이 기쁨  
시대가 누리는 행복우에 또 이 행복  
해와 별 빛나는 시대의 이 영광  
누리에 가득히 차고넘치거니

별이여, 향도의 별이여  
우리는 따르리라, 받들어가리라  
위대한 향도의 별이신 당신을 우리러  
주체의 한길로 억세계 나아가리라  
(필자는 탄자니아 부림바민족교육대학 학생)

가사

# 왕재산 참나무

리건구

푸르러 설레는 왕재산 참나무  
못잊을 그날을 노래하느냐  
두만강기슭에 거룩한 그 자옥  
오늘도 전하며 높이 솟았네

찬서리 눈속에 묻혔던 참나무  
광복의 봄빛을 먼저 맞았네

언제나 그 모습 변함이 없이  
수령님 우리러 설레인다네  
왕재산마루에 영원할 참나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네  
수령님 높은 뜻 전하여주며  
락원의 강산에 끝없이 설레네

# 천지의 무지개

윤영탁

퇴성치는 번개  
구름장을 산산 쪼개더니  
오 찬란하다  
비개인 천지 푸른 물결우에  
무지개 비졌어라

장군봉에 어린  
붉은 노을을 받아  
펼 펼 뿜어번지는 호심깊이  
신기루인듯  
칠색 금기둥을 묶어내린  
아, 천지의 무지개

밀림의 긴긴세월  
사령부 창가에 흐르던 불빛  
조국광복을 구상하시며  
수해만리 운해만리 펼쳐가시던  
장군님 사색이 어리어  
저 빛발 그리도 찬연하여라

조국진군의 봄언덕에서  
다시 찾을 금수강산을 그려보시며  
비운에 잠긴 강토에  
억만채광을 뿌려가시던  
장군님의 그 해발을 실어  
저 빛발 그리도 끝간데 없고

혈전의 불바다속에서도  
설한풍 눈사태속에서도  
장군님 해발아래 피어난 그 꿈  
《사향가》의 은은한 음률에 실려  
조국의 품에 봄향기마냥 서려들던  
아, 백두의 그 넋이  
무지개로 실려가는구나

정녕 천년세월과 더불어 영원할  
불멸의 그 위업  
그 거룩한 자욱자욱을 수놓아 실고  
아름다움과 숭고함의 절정우에  
찬란히 비껴간 저 무지개  
오늘은 락원의 추녀높은 지붕우에  
그대로 칠색다리를 놓았나니

흘러간다 그 빛발  
이 땅에 쏟아지는 행복의 그 모든 빛발로  
저기 해빛 눈부신 창가마다  
떨기떨기 피어나는 미소로  
더 푸른 대지우에  
구슬같이 부서지는 분수비의 무지개  
네거리에 차넘치는 꽃물결로

아, 볼수록 장쾌하여라  
천지를 향해 저 하늘이  
진주의 별보라를 쏟아붓는듯  
창공을 향해 백두산이  
칠색 채운을 뿜어올리는듯...

가장 준엄하던 그 세월에  
가장 밝은 새세기의 러명기가 열린  
이십세기 혁명의 봉화대  
천지의 무지개, 천지의 무지개여

너는 백두산의 깊은 가슴에 간직된  
그 뜨거운 숨결을 안고  
천년이고 만년이고 저 하늘에 어려있을  
백두의 넋을 실고 꿈을 실고  
누리에 피여 만발할 백두의 봄을 실고  
탁 트인 우주 대공으로  
끝없이 끝없이 흘러가는구나!

# 백두의 맑은 하늘

박희구

백두산천지가 큰 숨을 몰아쉬며  
세찬 바람 뿜어올린듯  
자욱히 서렸던 안개구름  
순간에 걷히더니

아, 날이 개인다!  
파랗게 열리는 하늘  
백두산정에 오르자 날이 개인다!

펼쳐진 푸른 하늘  
한가슴에 다 안을듯  
답사대원들 환성을 터쳐올리는데  
저 맑은 하늘 어찌 무심히 보랴

천지에 안개 끼지 않는가  
비내리지 않는가  
날 개일 때 답사대원들 오르라고  
백두산에 기상관측소를 세워주신  
아,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

그 사랑에 목메어  
숫구쳐 달려오는 천만산발들과  
한없이 설레이는 천지를 안고  
백두령봉우에 비낀  
맑은 하늘

우리 수령님  
백두의 험한 산발 넘나드리며  
차디찬 눈비를 다 맞으시고도  
우리의 머리우에

한방울 비가 떨어질세라  
답사의 길에 안개가 덮힐세라  
백두의 푸른 하늘 열어주시었나니

맑고 푸른 하늘  
사랑의 하늘이 비껴  
저렇듯 천지의 물결 수정같고  
사랑의 해빛에 젖어  
저렇듯 밀림의 바다 푸르려 설레이는가

백두의 맑은 하늘 이고 서니  
다 보이네!  
항일전의 승리의 기상 떨친 산들과  
위훈의 무수한 봉우리들이

한눈에 안겨오네!  
천지에서 시작되어  
동서천리 굽이치는 장강들의 흐름  
거연한 장군봉너머  
아득한 저 멀리  
점점이 푸른 섬같이 솟은  
청봉, 배개봉...

이처럼 온 천하를 다 비쳐주며  
맑은 해빛으로  
우리의 눈에, 가슴속에  
백두산을 영원히 새겨주시는  
아, 수령님의 넓으신 사랑의 품이런가  
백두의 맑은 하늘이 우리를 안고있어라

# 주체위업의 시원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예술적화폭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맞은 올랐다》에 대하여-

장영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핌에 의하여 우리 문학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전면적으로 체계성있게 형상화하는 총서 《불멸의 력사》를 창작하는 역사적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고있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혁명문학의 근본문제가 가장 높은 수준에서 해결되게 된 것으로서 주체문학의 년대기우에 영원히 아로새겨질 자랑스러운 사변으로 된다.

장편소설 《맞은 올랐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총서형식의 대작으로 형상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독창적인 문예방침을 관철하는 길에서 이룩한 또하나의 기념비적성과작이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맞은 올랐다》가 반영하고있는 력사적시기는 1925년초부터 1926년말까지의 기간이다.

이 시기로 말하면 일제의 식민지적폭압정책과 략탈정책이 교활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민족주의 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이 본질적인 약점을 드러냄으로써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이 심각한 우여 곡절을 겪고있던 시기이다.

바로 이러한 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심으로써 우리 인민의 수난의 력사는 끝장나게 되었으며 이 땅우에는 자주위업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장편소설 《맞은 올랐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이 개시됨으로써 사대와 굴종, 투항과 반목 등 온갖 허접쓰레기들에 사형선고를 내리고 그것을 전염시킨 전세대의 주의자들, 운동자들과 단호히 결별한 전혀 새로운 주체위업의 새 력사가 시작되게 되었다는것을 궁지높이 구가하고있다. 다시말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의 개시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에서 새로운 력사적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는것을 형상적으로 밝히는 여기에 이 장편소설이 제기한 중요한 사상주제적과제가 있다.

장편소설은 이러한 사상주제적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1925년 2월 팔도구를 떠나 립강으로 가시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하여 1926년 10월 17일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고 혁명활동의 무대를 보다 넓은

지역으로 옮기시기 위하여 이해 12월초 화성의숙을 떠나시는 내용까지를 예술적화폭에 담고있다.

2년도 채 못되는 이 짧은 기간 주체시대의 새 력사의 맞을 올리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활동은 실로 그 업적의 위대성으로 하여 만대에 길이 빛나고있다.

그러면 이 기간에 벌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공산주의적인간학의 요구의 견지에서 예술적화폭으로 그린 장편소설 《맞은 올랐다》가 거둔 중요한 사상예술적성과는 무엇인가?

## 1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맞은 올랐다》가 거둔 가장 중요한 사상예술적성과는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본질적약점이 심각히 분석총화되고 전시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혁명의 시대, 자주위업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는것을 형상적으로 감명깊게 보여준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로 자라난 조선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은 선행한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았으며 새로운 혁명적세계관을 가지고 민족주의운동자들이나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과는 전혀 다른 혁명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장편소설 《맞은 올랐다》는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시던 1920년대중엽 우리 인민의 암담한 생활처지와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실태를 생동하게 그려보고있다.

1920년대중엽으로 말하면 조선인민의 거족적인 3.1봉기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은 일제침략자들이 종래의 야만적인 무단통치방법으로써는 도저히 조선을 통치할수 없다는것을 타산하고 이른바 《문화통치》로 이행함으로써 회유와 기만의 방법으로 우리 인민에 대한 사상문화적예속을 강화하는 한편 보다 악랄하고 교활한 수법으로 조선에서 식민지적략탈을 본격화하던 시기이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문화통치》의 간판밑에 《민의창달》이요, 《교육채신》이요 하고 떠들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놈들의 식민지통치를 찬미하는 범위안에서만 허용되었다. 놈들은 민족



적독립과 자유를 위한 조선인민의 사소한 움직임도 철저히 탄압하였으며 국내외의 일체 반일적 요소들과 무고한 인민들에 대한 야만적인 학살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그리하여 이전의 야수적인 무단통치 방식에 교활성을 결합한 보다 악랄한 식민지통치 방식이 이 땅에 군림하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조선은 말그대로 하나의 음산한 감옥으로, 죽음의 생지옥으로 전변되었으며 망국의 비운을 통탄하는 겨레의 울부짖음과 분노의 함성은 온 삼천리강토에 메아리쳤다.

소설은 나라를 빼앗기고 살길을 찾아 이역으로 흘러가는 리무성이네의 참담한 모습과 무송의 샘골에 울짖을 박고 근근히 목숨을 이어가던 그들이 끝내 외삼촌 박도삼마저 잃고 산지사방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통하여 당시 우리 겨레의 비참한 생활상을 방불하게 그려보이고있다.

그러나 당시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한 우리 인민의 반일투쟁은 간고한 시련을 겪고 있었다.

3.1봉기후 자산계급출신의 민족운동지도자들은 그 대부분이 반일애국운동을 포기하고 일제의 충실한 앞잡이로, 민족개량주의자로 굴러떨어져 우리 인민의 반제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을 저해하는 파렴치한 책동을 감행하여나섰다.

또한 중국의 동북지방과 로씨야의 연해주지방에 망명하여 반일투쟁을 계속하던 독립군들은 《흑하사변》을 계기로 전면적인 와해과정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독립운동단체들은 서로 자파세력을 넓히기 위한 추잡한 파벌싸움으로 아까운 피만 흘리고있었다.

소설은 북만의 《신민부》파견원 마인택과 남만 《정의부》의 독립군중대장 장호림과의 론쟁 그리고 《군자금》으로 토지를 사고 약혼식까지 한 마인택이 화선의 삼발골에 나타나 《독립공채》를 팔려다가 모연공작을 나온 화성의숙학생들과 충돌을 하고 나중에는 사태를 수습하려고 나온 리무성을 살해하는 류혈참극까지 빚어내는 장면 등을 통하여 파벌싸움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당시 독립운동자들간의 반목과 질서는 파벌들 사이에서만뿐아니라 자파세력안에서도 벌어지고있었다.

소설은 안도지방의 《정의부》산하 독립군부대 안에서 연대장을 중심으로 한 서도출신과 변참모를 중심으로 한 북도출신간의 대립과 충돌이 격화되던 나머지 부대의 합심을 이룩하려는 진정서를 가지고 떠난 최인걸에게 사격을 가하여 중상을 입히고 두령들의 패싸움을 화해시키려 갔던 화전의 김시우총판에게 무리매를 안겨 룡지가 되

게 한 형상을 통하여 자파세력안의 패싸움이 잦을 날이 없었던 사실을 상기시키고있다.

그런가 하면 길림을 비롯한 만주의 각곳을 돌아치며 기업을 토하는 《상해임시정부》의 《리론가》들과 서울 《연정회》의 개량주의자들은 외세의존사상을 퍼뜨리거나 투쟁에 일떠선 인민들에게 무저항주의를 설교하고있었다.

당시 사회주의10월혁명의 영향밑에 발생한 초기 공산주의운동도 그자체의 제한성으로 말미암아 옳은 지도리론과 전략전술을 제기하지 못하고 대중속에 뿌리를 박지 못하였으며 파벌싸움으로 대중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고있었다.

소설은 화요파계열의 행세식밈스주의자 최재영이 화전에 나타나 공산주의를 운운하면서 로동계급의 해방을 부르짖고있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우리 혁명의 성격과 동력도 제대로 모르고 한갓 남의 《리론》을 기계적으로 되풀이하면서 자파세력을 확장하려고 날뛰는 비렬한 행세군에 불과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이와 같이 1920년대중엽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에 편승한 민족주의운동자들과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이 제각기 《지도자》, 《혁명가》로 자처하면서 소란스럽게 떠들었으나 그 어느 누구도 조선혁명의 진로를 정확히 밝혀주지 못하고있었던 사실을 생활적으로 보여주면서 이로 말미암아 당시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옳게 이끌어줄 탁월한 수령의 출현을 목마르게 기다리던 시대의 절박성을 강조하고있다.

이러한 시대의 념원을 한몸에 지니신 김성주동지께서는 비상한 통찰력으로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본질적약점을 깊이 꿰뚫어보시었다.

김성주동지께서 심오히 분석총화하신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본질적약점이란 우선 조선민족해방운동을 한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대중을 떠나서 상층부의 몇몇 사람들끼리 모여앉아 말공부만 하고 세력권확장과 권력쟁탈을 위한 파벌싸움으로 민족해방운동을 4분 5렬시키는것이였으며 그 다른 하나는 인민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할 대신 남만 쳐다보고 남의 힘을 빌어 혁명을 하려고 한 사대주의적사상관점이였다.

김성주동지께서는 일제와 판가리싸움을 할 대신 인민들로부터 《운동자금》이나 모으고 그것을 사리사욕에 탕진하며 조선인거주지역을 차지하기 위하여 개싸움이나 하고 남만 쳐다보는 이자들으로써는 도저히 조선을 독립할수 없다는것을 통감하시고 이자들의 행동에서 환멸을 느끼시였다.

그렇다면 조선은 어느 길로 가야 하며 무슨 힘

으로 어떻게 나갈것인가?

소설에 묘사된바와 같이 별이 없는 조국, 달이 없는 조국, 향도성이 없는 조선의 1926년을 인정하신다는것은 김성주동지에게 있어서 사실상 괴롭고 슬프신 일이었다. 하지만 괴롭고 슬프시더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차라리 그렇게 백지상태로 돌아가는것이 미래를 위하여 다행한 일인지도 몰랐다. 왜냐 하면 별이 없는 하늘, 빛이 없는 밤을 각오한 길손은 머리 위에 눈을 팔지 않고 자기 손으로 어둠을 밝힐 화불을 마련하게 될것이기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두뇌와 힘으로 조선이 나아갈 길을 찾을것이다. 그 어떤 때에도 물들지 않는 새 세대들의 심장으로 조선이 쳐다볼 화불을 만들것이다!》

이렇게 결심하신 김성주동지께서는 천리혜안의 비범한 예지와 비상한 탐구력으로 조선혁명의 진로를 새롭게 탐색하시였다.

소설은 김성주동지께서 화성의숙에서 생활하시는 기간 맑스-레닌주의서적들을 탐독하시는 한편 밤이면 밤마다 순화강가를 거니시고 새벽이면 어김없이 화전의 들과 언덕을 산책하시며 깊은 사색의 세계를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모습을 숭엄하게 보여주면서 이 심오한 사색과 탐구를 통하여 마침내 혁명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인민의 힘을 믿고 인민대중속에 들어가야 하며 또 자기 나라 혁명은 자신이 책임지고 자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게 되는 과정을 잘 형상하고있다.

김성주동지께서 지니신 이 철석같은 신념은 이께서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게 된 출발점으로 되였으며 조선혁명을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시게 된 근본동기로 되였다.

소설은 바로 김성주동지께서 이러한 신념에 기초하여 그 어떤 낡은 사상에도 오염되지 않은 새 세대들을 주체형의 첫 혁명전위들로 키우시고 마침내 뜻을 같이하는 청년핵심들으로써 타도제국주의 동맹의 결성을 선포하시며 그 강령을 발표하시는 역사적인 회의를 숭엄한 화폭으로 그려보이고있다.

김성주동지께서는 이 강령에서 조선혁명의 당면과업은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는것이며 최종목적은 조선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나아가서 모든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세계에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김성주동지께서 곡절많은 민족주의운동과 초기 공산주의운동에 종지부를 찍으시고 그와 완전히 결별한 전위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

것은 우리 혁명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인 사변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우리 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인 선언이였습니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이 결성된 때로부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되게 되였으며 바로 이때로부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 이것은 유구한 역사를 내려오면서 위대한 수령을 기다려마지않던 우리 인민이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자기의 수령으로 높이 모시게 된 영광의 선언이였으며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혁명의 새 력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력사적인 선언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령도를 받들어나갈 정치적무기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이 결성됨으로써 우리 혁명은 비로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를 받게 되였으며 정확한 지도사상과 지도리론, 지도방법, 전략전술을 가지고 주체위업의 새 역사를 개척하는 영광스러운 길로 힘차게 전진하게 되였다.

하기에 장편소설 《맞은 올랐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전면적으로 체계성있게 형상화하는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가운데서 그 년대적순차로 볼 때 첫시기에 놓이는 작품이라고 말할수 있다.

장편소설 《맞은 올랐다》는 이처럼 의의있는 내용을 반영함에 있어서 당대의 력사적 사건과 사실들을 그대로 진실하게 그리면서도 그것을 일대기식으로 라렬한것이 아니라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 김성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데 력점을 찍고 그 력사적사변이 마련되게 된 경위를 공산주의적인간학의 요구에 맞게 보여줌으로써 이 작품이 력사문헌적인 가치와 함께 예술작품으로서의 가치도 가질수 있게 하였다. 바로 여기에 이 장편소설이 거둔 중요한 사상예술적성과의 하나가 있다.

## 2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맞은 올랐다》가 거둔 사상예술적성과의 다른 하나는 주체위업의 시원을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을 기정사실화하지 않고 다양한 생활을 통하여 형상적으로 진실하게 보여준데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로동계급의 정치적수령은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을 사회발전법칙에 관한 지

식과 계급투쟁에 관한 리론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에게 옳은 투쟁강령을 제시하며 혁명의 매 단계마다 과학적인 전략과 전술을 세워 그들을 혁명승리에로 이끄는 위대한 령도자이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수령은 력사발전의 합법칙성과 시대의 절박한 요구, 로동계급의 력사적임무, 계급적세력의 호상관계와 혁명투쟁이 진행되는 환경 그리고 혁명의 수행방도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인민대중의 리익을 가장 철저히 대표하며 계급가운데서 누구보다도 멀리 앞을 내다보면서 혁명승리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나가는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인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간이 출현하지 못할 때 그 시대가 아무리 탁월한 수령을 목마르게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또 그 누가 아무리 혁명의 《령도자》로 자처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로동계급의 수령을 맞이하는 력사적과제는 해결될수 없다.

이것은 지난날 우리 나라의 력사가 잘 실증하여 주고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1920년대중엽에 위대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력, 고매한 인품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를 맞이함으로써 력사상 처음으로 혁명의 수령을 높이 우러러모시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지니게 되었다.

장편소설 《맞은 올랐다》는 이러한 력사적사실을 반영함에 있어서 김성주동지를 우리 혁명의 수령으로 모시게 된것은 결코 그 어떤 기상천외한 사변이나 그 누구의 지시에 의한것이 아니라 애국의 혈통을 이어받으신 그이께서 도란에 빠진 겨레의 참담한 모습과 조국의 불우한 운명을 통감하시고 비범한 예지와 심오한 사색으로 혁명의 진로를 밝히시면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는 과정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과 위대한 인간적풍모에 의한 필연적결과임을 설득력있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무엇보다먼저 김성주동지께서 근로인민대중이 력사무대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자주시대의 요구를 명철하게 헤아리시고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가 인간, 근로인민대중이라는 주체의 신념을 지니신데 대하여 형상하고있다.

김성주동지께서 무송에 계실 때 양조업자의 아들 남을송의 집을 찾으신 장면의 묘사가 그 실례로 된다.

을송의 아버지 남태검과 현장 사이에 주고받는 말에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야 사실상 인력이 아니라 금력》이라고 하면서 돈만 있으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락지뺨으로부터 유한부인들의 다이아몬드반지와 국가관직에 이르기까지 못사는게 없》고 지어 나라의 독립도 돈이 있어야

한다고 지껄이는 소리를 들으신 김성주동지께서는 력사가 아직 황금만능의 교훈을 타파할만한 새로운 교훈을 만들어내지 못한것을 유감으로 여기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신다.

《아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돈일수 없다. 돈도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낸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깊은 사색의 세계를 헤치시던 김성주동지께서는 백산학교 개교식날 최인걸에게 금력보다 더 큰것은 사람의 힘이며 비록 돈이 없고 가난한 민족이지만 조선민족은 힘있는 민족이며 이런 민족과 인민은 반드시 나라를 자기 힘으로 광복할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말씀하신다.

이것은 과란많은 전시대, 온갖 주의주장들이 범람하는 동란의 전시대가 아직 한번도 말해본적 없는 전혀 새로운 진리이며 앞으로 주체사상이 창시되게 될 출발점기초였다.

소설은 이러한 신념에 기초하여 혁명의 진로를 탐색하시던 김성주동지께서 마침내 인민대중에게 자주주의를 심어주고 그들을 묶어세우면 못해낼 일이 없으며 조선은 반드시 무산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공산주의의 길로 나가야 한다는 진리를 발견하시는 과정을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김성주동지께서 발견하신 이 진리, 이것은 민족주의운동자들의 주장과는 물론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의 견해와도 완전히 다른 전혀 새로운 사상이다.

소설은 김성주동지께서 화성의숙을 떠나시려고 작별인사차로 교원실을 찾으셨을 때의 장면을 의미깊게 묘사하고있다.

그이를 바래워드리려고 문밖에 나온 박인석이 화전에 나타나 맑스주의를 선전한 최재영때문에 젊은이들이 새 사조에 끌리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고 탓하자 김성주동지께서는

《선생님, 최재영은 여기에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나는 내 신념에 의해 떠나기로 결심한것입니다.》라고 단호히 선언하신다.

소설은 이 짙막한 대화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사상의 창시자로서의 김성주동지의 높은 사상정신세계의 독창성을 인상깊게 보여준다.

소설은 이와 함께 김성주동지께서 일찍부터 지니고계시는 군중에 대한 남다른 포용력과 비범한 령도력에 대하여서도 진실하게 형상하고있다.

김성주동지께서 무송과 화성의숙에서 생활하시는 기간 인민들을 반일애국사상으로 무장시키고 혁명동지들을 한사람 한사람 키워내시는 장면들은 참으로 감명깊다.

무송에 백산학교를 건설하던 때의 일이다. 김성주동지께서는 학교건설장에 나가 동무들과 함께 해종일 공사를 도우시다가 저녁어스름이 깃들 무렵이면 동무들을 우등불가에 모여놓고 조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었으며 대남문거리의 남을송이네 집에 동무들을 모여놓으시고서도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었다. 샘골의 오지주가 백산학교건설장에 나무를 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여나섰을 때에는 그놈의 약점을 들춰내어 공박을 들이 대면서 꼼짝못하게 하시고 마을농민들에게 지주놈을 무서워할것이 아니라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화성의숙에서의 김성주동지의 대중령도의 비범성은 그이께서 지니고계시는 수령으로서의 위대한 령도력을 더욱 생동하게 보여준다.

김성주동지께서는 공산주의선진사상을 연구하기 위한 독서에 열중하시는 한편 뜻을 같이할수 있는 리무성이며 최인걸, 리효, 박두학이들에게도 《공산당선언》과 《국가와 혁명》을 비롯한 선진서적들을 읽도록 하시고 읽은 책에 대한 토론과 논쟁을 활발히 벌리시며 그 과정에 비밀독서회를 조직하시고 여기서 새세대의 공산주의청년핵심들을 키우시어 마침내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다. 그러시던 어느날 완고한 민족주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화성의숙의 숙장과 군사교관이 선진서적을 읽는 학생들을 불러내어 크게 꾸짖으려 할 때 김성주동지께서는 자신의 신념과 요구에 의하여 새 사조를 받아들이는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라고 하시면서 추호의 동요도 없이 선진사상을 견결히 옹호하신다.

김성주동지께서는 또한 삼밭골에 나타난 마인택 일당과 화성의숙학생들사이의 싸움끝에 리무성이 희생되고 이에 격분한 군사교관과 학생들이 그의 원쑤를 갚는다고 총격전을 벌리려 할 때에는 패싸움으로 무모한 희생을 내지 않도록 리성으로써 사태를 수습하신다.

김성주동지께서는 이렇듯 대중을 옹계 이끌어 나가는 높은 령도력의 체현자이실뿐아니라 동지들과 인민들을 언제나 따듯이 보살피주시는 고매한 인간적품모를 지니고계시였다.

그것은 특히 소설의 중요인물인 리무성에 대한 동지적사랑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팔도구를 떠나시던 그날 압록강가의 우등불결에서 잠시 만나셨던 리무성을 무송땅에서 다시 만나신 김성주동지께서는 그와 친교를 맺으시고 그가 화성의숙에 들어와 주체형의 첫 혁명전위로 자라나도록 따듯이 이끌어주시며 그가 패싸움의 희생자가 되었을 때에는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면서 이른새벽 그의 무덤을 찾아주시고 무성이가 그토록 소원하던 무산사회를 기어이 성취하고야 말것을 굳게 다짐하신다.

김성주동지께서는 최호국일행의 무훈담에서 충격을 받고 국내원정을 나갔다가 실패하고 심한

부상까지 당하여 돌아온 리효도 성의껏 돌봐주신다.

리효네의 국내원정을 추동한 군사교관 박인석은 《참외추렴》을 다니면서도 얼굴 한번 내밀지 않는 그런 때 째째이 그를 찾아 한약도 달여먹이시는 김성주동지의 인간애는 얼마나 뜨거운것인가.

뿐만아니라 소설은 김성주동지께서 지니고계시는 근로하는 인민에 대한 다함없는 사랑과 소탈한 인민적품성도 잘 보여주고있다.

무성의 외삼촌 박도삼이 살았을 때 그의 집을 찾으신 김성주동지께서는 앓는 몸으로 지붕을 잇는 도삼의 일손을 도우시면서 물매가 밋밋한 지붕에다가는 평괘새보다 까치괘새를 틀어올려야 비물이 잘 빠지고 이영이 덜 삭는다고 일깨워주시며 지붕에 벼알이 있으면 날짐승들이 자꾸 이영을 들추어 비물이 인차 썰수 있으니 짚에서 벼알을 뜯자고 하신다. 하기에 박도삼은 나이가 아직 스무살도 되지 않은 젊은분께서 이영물게까지 도통하신데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면서 《...파시 농사군의 손자답군!》 하고 감복한다.

의지가없는 무성의 누이동생 무련이에 대한 김성주동지의 보살피심은 참으로 눈물겨웁다.

김성주동지께서는 무성이가 화전의 어느 삼포로 별이를 떠난 뒤 지주집의 아이보개로 지내는 무련이를 가궁하게 여기시여 강반석어머님께서 지으신 저고리를 가져다 입혀주시기도 하고 무련이가 새초덕의 면양업자한테 가서 돼지몰이공으로 일할 때에는 모연공작을 나간 리효를 만나시려고 성남촌으로 가셨다가 돌아오시는길에 지짐 여섯장과 옛 한근을 사가지고 수십리길을 에돌아 굶은비를 맞으시면서 무련이를 찾아보기도 하신다. 그리고 무성이가 희생되던 그무렵에는 무련이를 량심적인 김시우총판네 집의 양딸로 데려오시고서야 마음을 놓으시는것이였다.

소설은 이렇듯 경애하는 김성주동지께서 지니신 위대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력, 고매한 인간적품모를 다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로동계급의 수령이 지녀야 할 품모를 완벽하게 갖추시고 우리 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의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더욱 두텁게 하여 준다.

### 3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달은 올랐다》가 거둔 또 하나의 사상예술적성과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주위업의 새시대를 펼치시게 된 그 사상정신적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것을 형상적으로 감명깊게 보여준데 있다.

소설은 경애하는 김성주동지께서 일찌기 혁명

에 대한 큰 뜻을 품으시게 된 그 근처에는 위대한 혁명가정의 영향이 컸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소설에 형상된 바와 같이 불요불굴의 반일혁명 투사이시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 운동으로의 방향전환의 선구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반일민족해방운동이 파벌들간의 세력권확장과 《령도권》탈취를 위한 싸움으로 4분5열되고 있었던 당시의 현실을 가슴아프게 보시면서 이 운동의 단합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바치시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 관전회의를 통하여 《대한독립청년단》과 《광제청년단》사이의 류혈적인 당파싸움을 화해시키시였음에도 불구하고 파벌들간의 통합문제가 의연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심려하시는 내용도 그 한 실례로 된다.

그리하여 민족단체들의 연합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시던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마침내 1925년가을 역사적인 무송회의를 소집하시고 민족단체연합촉진회 조직의 탄생을 선포하시였으며 무송회의결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만 각지의 독립운동자들을 찾아 먼길을 다녀오기도 하시였다.

소설은 김형직선생님께서서 적들에게 체포되시었다가 피하시는 과정에 받은 고초로 말미암아 병을 만나 앓는 몸이심에도 불구하고 《뼈와 살을 깎아 내리는 참혹한 고통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이 민족단합의 역사적대제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강요한 의지로 그처럼 애쓰시는 마음이 김성주동지의 심장에 그대로 흘러들고있음을 형상적으로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김형직선생님께서서 패싸움의 과녁이 되어 총상을 당한 최인걸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돌아오시는길에 아드님께 들려주시는 이야기장면에서 잘 표현되고있다.

《대가가 아무리 비싸도 단합을 이룩하지 못하면 왜놈들과 싸울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는 한낱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느냐. 나는 아마도 일생을 그 일에 바치게 될것 같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너희들 대에 가서 또 지금처럼 파쟁때문에 애를 먹을수 있는것이다. 파쟁을 뿌리뽑지 못하면 아무것도 성취할수 없다는걸 명심해야 한다.》

아버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는 김성주동지의 어깨는 갑절 무거워지는것 같은 느낌이었다. 개천에 짐돌을 놓아드려 아버지께서 개울을 쉽게 건느시듯 가시는 그 걸음마다에 디딤돌을 놓아드릴수 없을가고 생각하시는 그이의 심정은 곧 민족단합의 대제를 자신께서 말아 이룩하시려는 굳은 결의의 표시이기도 하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또한 《지원》의 높은 뜻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무송에 백산학교를 세우시고 앞날의 애국자들과 열혈지사들을 키워내시였으며 조선이 어느 길로 나갈것인가를 깊이 탐구하시며 마침내 레닌이 맑스의 사상을 발전시켜 로씨야의 구미에 맞는 진리를 만들어낸것처럼 《우리는 조선의 구미에 맞는 공산주의진리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시였다.

1920년대초엽을 피로 물들인 반일항전의 교훈우에 새 사조를 태우시고 민족해방투쟁의 방향타를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기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 혁명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야 할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아쉽게도 아드님께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시고 세상을 떠나시였다.

《...모두 같길을 대달라는것이다. 조선은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고... 이것은...온 민족의 물음이고 시대의 물음이고 력사의 물음이다. 너는 반드시 아버지를 대신하여 이 물음에 대답을 주어야 한다....

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간다. 그러나 너희들을 믿는다. 너희들은 언제든지 나라와 민족의 몸이라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뼈가 부서지고 몸이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의 서거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에서 돌이킬수 없는 커다란 손실이었다.

그러나 조선의 독립을 조선사람자신의 힘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는 김형직선생님의 확고한 자주적립장과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이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으로 발전하여야 한다는 선생님의 그 념원은 김성주동지께서 조선혁명을 주체적립장에서 전개해나갈 신념을 지니실수 있게 하는데서 커다란 사상정신적힘으로 되였다.

소설은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사업을 말없이 반들어드리시고 아버님의 생전의 뜻을 이룩하시도록 아드님을 화전으로 떠나보내시는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녀사의 그 웅심깊은 마음도 김성주동지로 하여금 시대와 겨레의 열망을 기어코 성취하고자 말리라는 결심을 굳게 다지시게 된 힘의 원천이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뜻을 같이 할 동지들을 찾고싶은 생각에서 마음은 화전으로 쏠리셨지만 어린 동생들만을 남기고 떠나기가 괴로우시여 선뜻 결심을 내리지 못하시는 김성주동지께

《나는 네가 집을 생각하기전에 나라와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조선의 아들이 되었으면 한다.》고 하시면서 아드님을 화성의숙으로 떠나보내시는 강반석어머님, 이역의 거칠은 광야에서 김형직선

생님을 여의신 설음을 용케 이겨내시면서 뒤흔락의 꽃강냉이를 써서 아드님께 보내시는 어머님의 그 다심한 손길은 김성주동지에 대한 그 얼마나 크나큰 기대를 담고있는것인가.

소설은 김형직선생님의 지도를 받던 애국지사들의 김성주동지에 대한 기대도 진실하게 그려보고있다.

황혼기의 민족주의운동을 서글프게 바라보는 량심적인 독립군사령관 오동진이 김성주동지께 한양성에서 땡- 하고 치면 온 삼천리가 다 들을 수 있는 큰 종을 만들어 올리면 이천만백의동포가 모두 쟁기를 들고 와닥닥 일어나 왜놈들을 답새기는 그런 큰일을 해주실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우리는 오직 너희들만을 믿는다. 너희들 세대만이 조선을 위한 대경륜을 치를수 있고 대사를 치를수 있다.》

오동진의 이 말은 전세대의 량심적인 애국지사들이 김성주동지께 올리는 시대의 부탁이다.

소설은 또한 화전총판소의 김시우총판이 김형직선생님께서 생전에 이루시지 못한 원대한 뜻을 김성주동지께서 이루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자기의 서재를 마음대로 리용하시도록 하며 그이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는 그날에는 그 력사적인 모임을 자기의 집에서 가지시도록 온갖 편의를 돌봐드리는 형상을 통하여서도 량심적인 애국지사들의 김성주동지에 대한 크나큰 기대를 보여주고있다.

이와 함께 소설에서 이채롭게 빛을 뿌리는 림소영의 형상도 김형직선생님의 영향하에 민족주의운동이 공산주의운동으로의 방향전환을 준비하던 시기 민족주의운동안의 진보적세력의 전형으로 뒹과 동시에 김성주동지의 혁명활동에 대한 애국렬녀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던가를 짚게 보여주고있다.

왜놈에게 부모를 빼앗기고 사랑하는 어린 두 동생과 생리별을 한 독립군의 녀대원 림소영에게 있어서 원쑤를 갚고 나라를 찾는 일보다 더 크고 소중한것은 없었다. 하기에 처녀는 화성의숙의 군사교관 박인석의 사랑에 마음이 끌리면서도 그가 자기를 한갓 녀성으로밖에 대해주지 않는 것이 안타까와 몸부림을 치며련인이 김성주동지께서 탐구하시는 새 사조에 반기를 들고나섰을 때에는 비록 일생의 상처로 남아있게 될 일이지만 순정을 바쳐온 그와 단호히 결별하는것이다.

그는 아직 공산주의자는 아니였지만 김성주동지께서 탐구하시는 공산주의가 조선독립과 만민의 복락을 위한 진리의 길일진데 그를 서슴없이 따

라야 한다는 림장만을 가지고있었다.

따라서 림소영과 박인석과의 결렬, 이것은 청춘시절에 깊어졌던련정의 단순한 결별이 아니라 민족주의운동안의 두 세력- 애국적인 진보세력과의 시대의 새 사조의 발전을 가로막는 편협한 보수세력 사이의 결별이었다.

소설은 이와 같이 자주의 새세계를 창조하시려는 김성주동지에 대한 애국지사들의 크나큰 기대를 다양한 형상을 통하여 보여줌과 동시에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이 그이께서 주체의 신념을 더욱 굳건히 지니실수 있게 한 원천이었다는것을 밝히고있다.

김성주동지께서 압록강을 건느신 그달음으로 말파리를 타고 림강으로 떠나시던 날 밤, 고국땅에서 쫓겨난 류랑민들이 압록강가에 구슬픈 모닥불을 피워놓고 밤을 새우는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가슴아파하시였던가.

하지만 인민대중의 힘은 무궁무진한것이다. 리무성의 외삼촌일가는 것처럼 어려운 처지에서도 어떻게 하나 살아보려고 버티고있었으며 남편과 아들을 왜놈들에게 빼앗기고 홀로 사는 성남촌의 한 할머니는 닭을 잡아 독립자금으로 써달라고 바치고있었다. 이런 인민을 묶어세운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진리를 발견하신 김성주동지께서는 마침내 선행한 초기공산주의운동과는 완전한 계선을 그으시고 근로인민대중을 력사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자주의 길을 택하시였던것이다.

그리하여 김성주동지의 신념을 받들고 자라난 주체형의 첫 공산주의혁명전위들은 그이께서 방향타를 잡으시고 닳을 올리신 조선혁명의 새로운 기슭을 떠나 자주시대의 노를 힘있게 저으면서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위한 거창한 파도를 헤쳐나가게 되었다.

참으로 장편소설 《땃은 올랐다》는 위대한 수령의 혁명활동의 개시로 인하여 주체시대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된 뜻깊은 사변을 반영한 작품으로 우리 혁명대오의 주체사상화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어떻게 내리기 시작하였는가를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리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귀중한 교과서이다.

우리는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땃은 올랐다》를 통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우리 혁명의 수령으로 높이 모신 공지를 더욱 심장깊이 지니고 수령형상작품창작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주체의 혁명문학의 화원을 더 아름답게 장식하며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으로부터 시작된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 가지못한 길

백보흠

북악령의 철길을 달리는 협궤열차안은 점점 어두시근해졌다.

밖에서는 이해의 첫눈이 어슬한 저녁하늘을 메우며 꽃보라처럼 떨어지고있는데 부나비마냥 차창에 달라붙는 눈송이들은 제창 녹아서 물방울을 지으며 흘러내렸다.

덜컹거리는 차륜소리, 요람처럼 좌우로 흔들리는 객차... 려객들은 단조롭고 규칙적인 그 음향과 진동으로 하여 혹은 편안한 꿈나라속에 혹은 아득히 먼 추억의 심연속에 깊이 잠겨든듯 차안은 별로 조용했다.

나도 객석등받이에 몸을 기대채 함박눈이 쏟아지는 차창밖을 물끄러미 내다보며 무엇인가 깊은 생각을 하고있었다.

바로 몇시간전에 나에게는 뜻하지 않은 불쾌한 일이 생겨났었다.

며칠째 밤을 패며 합성원료에 대한 실험작업을 해오던 나는 이날 아침에 폭발사고를 일으켜 실험공처녀의 얼굴에 화상을 입히고 값비싼 실험기구들을 죄다 마사버렸었다. 나는 미칠것 같았고 그래서 독한 아류산기체들이 구름처럼 덮인 폭발현장에서 너자들처럼 땅을 치며 통곡하였다.

아주머니 넷이 달려와서 망측하게 울고있는 나의 팔다리를 하나씩 붙들고 실험장에서 꺼내다가 합숙침대우에 눕혀놓았다.

몇시간후야 마음을 진정한 나는 앞으로 벌여지게 될 사고심의를 예견하고 멀뚱하니 천정을 올려다보면서 폭발의 원인을 곰곰히 더듬어보았는데 그것은 분명 실험공처녀가 온도조절을 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온도조절계자체의 결함에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곧 병원으로 달려가서 얼굴에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실험공처녀에게 몇마디 위로의 말을 해주고 서둘러 물었다.

《동무가 온도조절은 정확히 했겠지?》

《네, 저는 150 도 눈금을 정확히 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글썄...》

울먹거리는 처녀의 눈귀에는 이슬이 맺혀있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운덕화학공장에서 받아온 온도조절계자체에 결함이 있소. 내 당장 그 공장으로 가서 노여운 소리를 해야겠소.》

《기사동지, 가지 마세요. 설사 온도조절계에 잘못이 있다 하여도 어쨌든 잘못이야 실험기구들을 간간히 살펴보지 못한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

까... 또 혹시 제가 눈금을 헛갈렸는지도 모르지요.》

《좌우간 실험기구도 다시 받아올걸 가보아야겠소.》

처녀는 한사코 만류하였으나 나는 이렇게 부득부득 길차비를 하고 협궤열차에 오른것이였다.

열차에 올라서도 나는 연신 한숨을 내쉬었다. 참으로 계름한 생각들이 번거롭게 떠오르는 불쾌한 려행이였다. 그러나 려행을 시작한지 한시간 남짓이 지난 지금에 와서 나는 우연히도 한 길동무를 만나서 이날에 있었던 그 불쾌한 일들을 잠시 잊어버리고 자신의 문제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전

혀 판 생각에 파묻히게 되었다.

나는 지금 맞은편 객석에 앉아있는 한 려객의 기이한 려행길에 대하여 생각하고있는것이였다.

나의 사색의 대상인 그 손님은 체구가 우람한 40 대의 건장한 사나이인데 진회색 모직옷을 입은 그의 넓은 가슴에는 금별의 훈장이 빛나고있었다.

나는 협궤열차에 오르자부터 그 손님과 이야기하는동안에 그가 당의 배려로 평양에 올라가서 높은 국가훈장과 함께 발명가칭호를 수여받고 돌아가는 농산기사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설태진이였다.

차량스러운 위훈과 영예가 차례진 즐거운 이때 설태진은 자기 공적에 대한 긍지가 아니라 지난간 어느 한 시절에 있었던 생활의 실책을 가슴아프게 돌이키면서 전혀 낮은 손님인 내앞에서까지 진심으로 자신을 반성하는것이였다.

그는 지금 25 년전 애젊은 시절에 잠시 만났다가 헤어진, 그러면서도 어떤 량심의 가책과 가슴아픈 반성으로 하여 그 긴 세월이 흐르는동안 한 시도 잊어본적이 없는 리철원이라는 한 기상관측원을 만나러 가고있었다.

설태진은 여태껏 리철원의 행처를 모르고있었는데 이번에 평양에 올라갔다가 우연히 그가 철산봉기상관측소에서 일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나는 묵묵히 차창밖을 내다보면서 25 년전에 설태진기사가 잠시 들렀다가 지나간곳, 그러나 그의 머리속에 깊이 인찍혀져 향시 잊지 못했었다는 북부고원의 한산한 설경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있었다.

해발고 1,600 메터를 헤아리는 아득히 넓은 백

설광야, 그 넓은 눈밭 한가운데에 망망대해의 무인고도처럼 외롭게 솟아있는 백산봉의 둥스한 흰 봉우리... 25 년전 그때 세상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웬간한 지도에는 밝혀있지도 않는 백산봉꼭대기에는 변덕 많은 북방의 바람과 구름때들의 조화를 알아내는 기상관측기구가 설치되어 있었다. 거기서는 동 서 남 북 어디를 둘러봐도 인가마을을 찾을수 없고 다만 산기슭의 붓나무숲속에 귀틀집 한채가 숲속에 돌아난 송이버섯처럼 고독하게 앉아있었으니 그 집이 바로 기상관측원들의 숙소이자 사무실이였다.

설태진은 사회생활의 첫발자국을 내디딘 열여덟살 그 시절에 백산봉귀틀집에서 리철원기상관측원과 함께 한주일동안 기상관측작업을 하였었는데 바로 그때 일생을 두고 잊을수도 없고 씻을수도 없는 수치스러운 죄악을 저질렀다는것이다.

그로 인하여 20 여년의 세월이 흐르는동안 늘 마음속으로 리철원에게 사죄하며 살아왔고 한주일동안의 짧은 경력이 있는 기상관측원 생활을 잊지 못하고있다는 설태진이었다.

(그가 도대체 거기서 무슨 죄되는 일을 했을까?)

나는 그것이 저지기 궁금하였으나 차마 그 사연을 캐여물을수가 없었다.

설태진이 또한 그이상 더는 말을 꺼내지 않을상심게 두툼한 입술을 꼭 다문채 고개를 수긋하고 덤덤히 차바닥만 내려다보았다.

벌써 차창밖은 어둠에 잠기고 렬차안에는 은근한 황백색 전등빛이 차넘쳤다.

나는 뽕-하는 부드러운 기적소리를 듣고 차창에서 고개를 돌렸다.

몇명의 손님들이 당반에 앉았던 짐들을 내리우고 천천히 승강대쪽으로 걸어돌나갔다. 그제사 설태진이라도 수그렸던 고개를 들고 출입문쪽을 흘금 돌아보더니 나에게 조용히 물었다.

《천은역이 아직 멀었겠지요?》

《글쎄요?... 나도 이고장에 온지 몇달밖에 되지 않아서...》

《아, 그런가요.》 하고 설태진은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다가 저쪽에서부터 밀대로 차바닥을 닦으며 마주오는 렬차원에게 눈길을 돌렸다.

《렬차원동무, 천은역이 아직 멀었소?》

《천은역말입니까?》

렬차원처녀는 문득 밀대를 멈추고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훔치며 설태진을 잠시 지켜보고나서 세정거장제가 천은역이라고 했다.

《세정거장?... 철산봉기상관측소로 가자면 천은역에서 내려야 된다고?》

《철산봉기상관측소요?》

아직도 애티가 벗기지 못한 렬차원처녀는 눈을 울물해서 흐트러진 단발머리를 귀바퀴뒤로 쓸어

넘겼다. 그 처녀는 철산봉기상관측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모양이었다. 렬객들중에도 기상관측소의 위치를 알고있는 사람이 없는지 누구도 응대를 못해주고 설태진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그래서 나는 철산봉기상관측소 역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외진곳에 있구나 생각하면서 렬차원에게 물었다.

《철산봉이라는 산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야 알겠지? 그 산으로 가자면 어느 역에서 내려야 하오? 이 손님은 천은역에서 내려야 된다는 말을 듣고 오셨다는데 그제 확실한지 몰라서 그러우...》

렬차원은 그것도 모르겠는지 무안을 타며 손으로 입을 가리웠다. 마침 이때 하늘색 다우다직숨옷을 입은 몸매가 날씬하고 살강이 분뻗처럼 하얀 처녀가 우리들의 앞으로 찾아와서 상긋 흰이를 드러내었다.

《철산봉기상관측소를 찾아가십니까?》

《그럼소.》

설태진이 문득 나타난 처녀를 어정쩡히 쳐다보았다.

《무슨 일로 오시는지... 제가 바로 그 기상관측소에 있습니다.》

《아 그래!... 동무가!...》

초행길의 안내자를 만난 기쁨때문인지 아니면 그리도 못잇던 옛친우의 직장사람을 만난 감격에서인지 설태진은 환성을 지르며 벌떡 일어섰다. 나도 역시 반가움을 금치 못해 생긋이 웃고있는 처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서둘러 물었다.

《동무네 기상관측소에 리철원이라는 사람이 있소?》

《예?!... 있습니다.》

처녀는 웬일인지 한순간 놀라운 표정을 짓더니 나와 태진의 얼굴을 새삼스레 훑어보았다. 설태진은 한층 더 흥분한 얼굴을 하고 서서 처녀의 숨웃자락을 잡아끌었다.

《동무, 좌우간 여기 앉소. 그래 리철원동지가 잘 있소?... 이제는 퍼그나 늙었을텐데. 그렇지 그때 철원동지의 나이가 서른한살이었으니까 지금은 원여섯살이겠구만... 한살짜리 딸이 있었는데 아마 그 애도 지금은 큰 처녀가 됐겠소.》

《그때 한살이었으면 지금은 스물여섯살이겠군요. 처녀가 아니라 애어머니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허허허...》

내가 태진의 말에 동을 달며 꺾꺾 웃어대자 처녀는 그만 낮이 빨개져서 《어마나-》 하고 외마디소리를 내며 우리를 외면하더니 무엇이 그리도 부끄러운지 상큼한 목을 움츠리고 한참이나 돌아서있었다. 얼마후에 우리쪽으로 고개를 돌린 처녀의 해맑은 얼굴에 발가우리한 홍조가 어려있었는데 그는 여전히 수집어하면서 가느다란 목소



리로 속삭이였다.

《저의 아버지가 바로 리철원입니다.》

《아니 뭐라구?!》

자리에 앉았던 설태진이 용수철에 튕기듯 다시 벌떡 일어섰다. 나도 어지간히 놀랐다.

《동무가 철원동지의 딸이란말이요!...》

설태진은 고개를 다소곳하고 서있는 처녀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계속 뭐라고 중얼거리었지만 나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다만 차등이 비치는 그의 눈굽에서 무엇인가 번쩍이는것을 보았다.

나는 설태진과 리철원사이에 어떤 관계가 맺어있는지 아직 모르고있었으나 옛친우의 딸을 보며 눈굽을 적시는 태진의 표정을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뿌리가 뜨끔해지며 가슴이 무두룩해왔다.

《허허... 옛날부터 <해후>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태진동지가 정말 뜻밖의 상봉을 하는구만요.》

《글쎄말입니다. 이렇게 차칸에서 철원동지의 딸을 만날줄이야 몰랐지요... 정말 세월이 빠르군... 철원동지의 딸이 이렇게 컸구만》 하고 설태진은 새삼스레 많은 세월이 흘렀다는것을 느끼는 듯 흰오리가 다문다문 섞여있는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나는 그때 웬일인지 태진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입귀가 이상스레 실그러지는것을 보았다. 잠시 침묵이 흘러간 뒤 고개를 숙인채 오도카니 서있던 처녀가 눈길을 들어 태진의 가슴에서 빛나고있는 금별의 훈장을 언저리 건너다보고 조심스레 물었다.

《우리 관측소에 어떻게 오시는가요? 지도사업을 내려오시는가요?》

《허허... 지도사업이 아니라...》

태진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어색한 웃음을 짓다가 말머리를 돌렸다.

《가만, 네 이름이 뭐드라?... 그렇지 진옥이지. 그래 진옥이도 기상관측소에 있다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하나?》

《무전수입니다.》

《무전수?... 거 참 훌륭한 일을 하누만. 여보 손님, 기상관측소의 무전수는 매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굉장한 사람들이라요.》

설태진은 나를 돌아보며 눈을 가느스름히 하고 미소를 지었다. 순간 나의 머리에는 조그마한 무전실에서 온 나라 온 세계를 내다보면서 부지런히 키를 누르는 처녀의 장한 모습이 떠올랐다.

《자, 진옥이, 어서 여기 앉으라구. 앉아서 좀 천천히 이야기나 하자구.》

설태진은 눈을 슬쩍거리며 내쳐 진옥을 바라보다가 비어있는 자기 옆자리를 툭툭 두드리었다.

진옥은 태진이 가리키는 객석을 굽어보고 한결 스스럼없는 표정으로 명랑하게 대꾸하였다.

《저 잠깐 저리 갔다오겠어요. 도에서 관측기구

를 가지고오는 동무와 이 차에서 만나기로 했었는

데 아직 찾지 못해서...》

《그럼 어서 찾아보구 오라구... 그런데 참 이제 가면 아버지를 만날수 있겠지?》

그 말에 자리를 뜨려던 진옥이 다시 돌아서며 설태진의 얼굴을 딱하게 바라보았다.

《아이 어찌나... 아버지 며칠전에 출장을 가셨는데...》

《저런!》

나는 일껏 찾아가는 설태진이 헛걸음을 하게 된것이 못내 아쉬워 그만 이렇게 놀란 소리를 내질렀다. 설태진도 한동안 아연히 진옥을 지켜보다가 실망한 표정으로 풀기없이 물었다.

《출장을 가셨다구? 어디로 가셨어?》

《아주 먼곳으로 갔습니다. 백산봉기상관측소라구. 북부고원지구에 있는 외딴 관측소입니다.》

하마트면 나는 이번에도 소리를 지를번하였다. 맞은편을 건너다보니 눈이 둥그래진 설태진의 너부죽한 얼굴이 웬일인지 거뭇하게 질려있었다.

하지만 진옥은 우리들의 얼굴에서 갑작스레 일어나는 그 험등한 파문들을 보지 못한듯 눈발이 희끗거리는 어두운 차창밖을 내다보며 레사롭게 속삭이였다.

《6차당대회전 <100일전투>때부터 아버지 백산봉과 같은 높은 지대에서 합리적으로 쓸수 있는 새로운 원격기상관측기구들을 연구했습니다. 물론 새로운 원격기상관측기구들이 그전에도 더러 나온게 있지만 백산봉이나 무두봉, 백두산과 같이 바람이 지내 센곳에서는 자주 고장이 나서 애를 먹었지요. 그래서 아버지 당대회를 앞두고 그 문제를 풀어보자고 무진 애를 썼었는데 요즘에 와서야 그 연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걸 실험해보자구 백산봉을 찾아갔습니다.》

《음...》

설태진은 이상한 신음소리를 길게 끌면서 눈을 꼭 감아버렸는데 찌프린 미간으로 좁히 물려든 눈섭끝이 무들거리였다.

신음소리를 듣고 흠칫 고개를 돌린 진옥은 명상에 잠겨있는 설태진의 그늘진 얼굴을 의아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나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 실험이 성공됐으면 좋겠는데...》

나는 설태진과 진옥을 번갈아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리였다. 설태진이 리철원과 깊은 인연을 맺은곳이고 일생을 바쳐도 씻을수 없는 죄를 저지른곳인 백산봉의 이름은 이미 나에게 있어서도 범상한것이 아니었다. 리철원이 백산봉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 설태진의 얼굴이 왜 저리도 거뭇게 질리는지 다시금 나의 가슴에서는 여러가지 호기심이 피여올랐다. 아마 진옥이도 설태진과 리철원과 관계가 있을테지. 하긴 그 처녀는

아직 자기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이름조차 모르고있는것이다. 진옥은 침울한 명상에 잠긴 설태진이라는 이야기할 맛이 없었던지 나에게로 고개를 돌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실험은 꼭 성공할것 같아요. 그런데 한가지 근심이 되는것은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백산봉에서 일할 때 발을 얼려서 <특발성피조>까지 앓았었는데 괜히 그 높은 산을 오르내리다가 또 그 병이 도질가봐...》

《아니 뭐 특발성피조를 앓았다구?》

잠자코 앉아있던 설태진이 문득 진옥의 말허리를 자르며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나도 가슴이 섬찟하여 진옥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특발성피조는 대체로 동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의 불치의 병으로 알려진 가장 고통스럽고 악질적인 병인것이였다.

진옥은 수심에 잠겨 중얼거리였다.

《예, 특발성피조를 앓았답니다. 백산봉에서 일할 때 로력이 모자라 몇달동안 혼자서 눈덮인 산을 돌아다니다가 발을 얼렸지요. 여기서 이제야 첫눈이 내리지만 백산봉엔 아마 벌써 눈이 산같이 쌓였을거예요... 그래서...》

설태진은 감기에 걸렸는지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기침을 대구 낚고는 힘이 전해져서 객석등반이에 잔등을 털썩 기대었다. 기침때문에 고추빛이 되었던 그의 얼굴은 점차 거뭇하게 변하더니 이어 종이장처럼 창백해졌다.

나는 그가 몹시 가엾게 여겨졌다. 그에게는 분명 백산봉과 얽혀진 그 어떤 무서운 과거의 생활이 있는것 같았다.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리철원이 백산봉으로 갔다는 말이 나오자부터 저렇게 고민하는것인가. 그렇다. 저 사람은 지금 확실히 무엇인가 고민하고있다.

갑자기 낮빛이 파래지면서 기진해서 앉아있는 설태진을 보고 진옥이도 놀라운듯 눈이 둥그래졌다.

《어디 편치 않으신 모양이지요? 요즘 독감에 주의하셔야 될거예요.》

《음...》

설태진은 가래를 튕는 소리를 내며 이마살을 찡그리고 진옥을 올려다보았다.

《그래 아버지의 병이 지금은 어떻게?》

《치료를 잘 받아서 다행히 엄지발가락 하나만 상했을뿐 이젠 아무 일 없습니다... 저 그럼 동무를 찾아보고 오겠어요... 참 감기에 들렸으면 이걸 잡수세요.》

진옥은 주머니에서 약봉지를 꺼내놓고 자리를 떴다.

그 처녀가 떠나가자 설태진은 약봉지를 주머니에 넣고 묵묵히 차창밖으로 고개를 돌리었다. 아직도 밖에서는 함박눈이 쏟아지는지 검은 장막속에

서 무엇인지 끊임없이 희끗거리었고 나와 설태진의 얼굴이 거울처럼 비치는 차창의 물방울들은 불빛을 받아 색진주처럼 반짝거렸다.

나는 설태진의 입에서 무슨 말인가 먼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끝내 궁금한 생각을 참지 못하고 말꼭지를 뗐다.

《백산봉에는 벌써 눈이 많이 쌓였을거라고 하니 정말 거기는 겨울이 일찍 오는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아마 이런 앞지대보다는 두어달 먼저 겨울철이 시작될겁니다... 리철원동지가 그 불편한 발을 가지고 고생을 하겠는데요.》

《글쎄말입니다. 엄지발가락이 상했었다니 산을 토틀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렇지요. 힘들지요... 그런데 그가 그런 몸쓸 병을 앓게 되었던것이 아마 나때문인것 같습니다.》

《...?》

나는 찡그린 그의 얼굴을 의혹에 잠겨 말없이 바라보았다.

《말이 나온김에 옛이야기나 마저 할가요.》

설태진은 몹시도 궁금해서 앉아있는 나에게로 눈길을 옮기고 어쭙은 웃음을 지었다. 그는 눈을 쪼프리고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가 당반에 엎어놓은 자기 들가방을 훌쩍 올려다보고 말을 이었다.

《세월이 퍼그나 흘러갔지만 아직 날자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1955 년이었지요. 내가 기상관측원양성소를 졸업하고 백산봉기상관측소에 배치받은지 엿새째 되는 12월 23일이였습니다.》

...그날 눈보라가 소용돌이치는 백산봉마루에서 밤 12시 기상관측을 하고 숙소로 돌아온 설태진은 뜨끈한 아래목에 이불을 뒤집어쓰고 홀로 누워있었다.

방안은 칠혹같은 어둠에 묻혀있었다. 밖에서는 눈바람이 맹호의 울음소리같은 사나운 소리를 지르면서 이따금 문짝을 툭툭 두들겨댔다. 그럴때마다 태진은 마치 먹이를 본 굶주린 야수가 사나운 앞발로 문짝을 허비고 두드리며 돌아가는것 같아 머리끝이 쭈뼛이 곤두서곤하였다.

바람소리가 잠시 뜸해졌을 때 태진은 이불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머리맡에 놓인 손전지를 집어들었다. 손전지에서 뿜어나오는 허연 불빛따가 어둠속을 꿰어 저편 문짝모서리에 동그라미를 그리자 그안에서 숨몰치같은 하얀 성애가 번쩍거렸다. 이윽고 그 동그라미는 방바닥을 천천히 기어서 뒤벽으로 올라가다가 수리부엉이의 통방울눈이 꺾뻗거리고있는 벽시계에 와닿았다.

벽시계는 벌써 새벽 2시 10분을 가리키고있었다.

설태진은 한숨을 쉬고 전지를 맥없이 머리맡에 내려놓았다.

밤 8시 관측을 하자면 어찌는수 없이 이젠 자리를 차고 일어나서 눈보라가 저렇게 울부짖는 바람, 춥고 어둡고 무시무시한 백산봉꼭대기로 올라가야 했다. 밤 12시 관측을 하면서 너무도 혼란이 났던 그는 어둠과 추위가 도사리고있는 바람으로 나갈 생각만 하여도 지긋지긋하고 진저리가 났다.

밤 12시에 백산봉의 한난계는 령하 33도나 떨어 졌으니 아마 지금쯤은 그보다도 더 혹독한 추위가 한난계의 수은주를 기껏 내리누르고있을 것이었다.

설태진은 백산봉에 온지 몇새째 되지만 그는 아직 이런 혹독한 추위속에서 밤관측을 해본적이 한번도 없었다. 왜냐면 관측조장인 리철원이가 매일 밤관측을 맡고 태진에게는 낮관측만을 시켰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철원이가 어제 아침에 갑자기 첫딸을 낳은 안해의 몸이 편치 못해 집으로 왔다가라는 소장의 지시를 받고 30리나 떨어져있는 관측소본부로 가게 되어 어차피 이 하루밤만은 태진이가 밤관측을 하게 된 것이었다.

리철원은 어제 떠날 때 잠시나마 이 외진곳에 태진을 홀로 남겨놓게 된 것이 못내 마음이 내키지 않은듯 한참이나 침침한 눈보라속에 파묻혀있는 백산봉마루쪽을 쳐다보았다.

《날씨가 더 사나와지는걸. 태진이가 밤관측까지 하자면 힘들겠는데...》

《일없습니다. 조장동무가 늘 하는 밤관측을 내가 왜 못하겠습니까. 아무 넘어 말구 아주머니 구완을 잘하고 오십시오.》

설태진은 밤관측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듯 서글서글한 웃음을 지으며 리철원의 등을 떠밀었다.

기실 태진은 양성반을 졸업하고 이곳으로 배치됐을 때 별 군소리를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한난계와 풍력계나 보는 백산봉의 일터가 자기와 같이 피가 끓는 18살의 청년에게는 마땅치 않은 일이라고 불만스러워했었다. 그러나 정작 이날 12시 밤관측을 해보고나니 어찌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기상관측작업인것 같았다.

《조장동무가 래일도 오지 못하게 되면 이거 정말 야단인데.》

설태진은 한숨을 쉬고는 다시한번 전지불로 벽시계를 비쳐보았다. 새벽 3시 관측시간이 박두해울수록 야속하게도 온몸이 노근해오면서 졸음이 밀려왔고 따끈한 아래목과 포근한 이불속을 뜨기가 아쉽기 한정 없었다.

《가야지, 올라가야지!》

설태진은 이불속에 누워서 이렇게 자신을 충동했으나 섣뚱 자리를 차고 일어날수가 없었다.

통다당, 통탕...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아우성을 치면서 문짝을 두들겨댔다.

《오분동안만 기껏 몸을 녹이고 일어나자!》

설태진은 이제 오분만 지나면 그 무서운 추위와 눈보라에 부대끼것을 생각하고 이불을 머리우까지 뒤집어썼다.

그는 잠이 들어서는 안된다고 정신을 가다듬으면서 흘러가는 오분동안을 이불속에서 가늠하였다. 하나 얼마 지나지 못해서 그는 자기의 코숨소리가 심상치 않게 높아지는것을 어렵것이 의식하면서도 꼼짝 않고 누워있었다.

몇시간이 지났는지, 설태진은 맹수에게 쫓기우는 무서운 꿈을 꾸다가 화닥닥 놀라서 깨어났다.

한순간 그는 어리둥절해서 캄캄한 방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푹딱거리는 벽시계소리들을 듣고 얼른 전지를 집어들었다. 끄뻑거리는 수리부영이의 통방울눈이 전지불에 비치는 순간 설태진의 가슴에는 연등이같은것이 덜컥 내려앉았다. 새벽 3시 관측시간이 벌써 삼십분나마 지나간 것이었다.

《아차 내가 그만 잠들었었군. 어떻게 한다?》

설태진은 전지불을 켜쳐 이불을 헤치고 일어났으나 어찌으면 좋을지 몰라 멍하니 서있었다. 기상관측원들이 오랜 세월을 두고 쌓아놓은 공들인 귀중한 탐을 자신이 한시에 무너뜨린듯 무서운 죄악감으로 하여 가슴이 어지럽게 뛰놀았다. 그러나 얼마후에 그는 도리를 흔들며 혼자서 중얼거리었다.

《과연 모든 기상관측원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관측시간을 지켰을것인가? 어찌다가 나처럼 이렇게 실수해서 관측시간을 어긴 때가 한두번은 있었을 테지. 3시 40분에 관측하고 3시에 관측한것으로 일지에 적어놓고 보고해도 누가 알수 있겠는가. 흘러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기때문에 관측자료를 누가 검열해서 발가낼수도 없는 일이다. 또 한시간가량 관측시간을 드렸다고 기상자료종합에서 그다지야 큰 혼란이 생기겠는가!》

설태진의 머리에는 리철원을 포함한 전날의 기상관측원들을 반신반의하는 생각과 함께 자기 실책을 조용히 무마해버릴 타협안이 떠올랐다. 그러자 야릇한 어떤 《억센마음》이 불안에 휩싸였던 가슴을 티워주면서 배심을 든든하게 만들어주었다.

《그래, 좀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서 관측을 하면 되지...》

설태진은 드디어 옷목 책상우에 놓인 자체발전기가 달린 대형전지불을 켜놓고 털외투, 털모자들을 찾아서 든든히 차비를 한 다음 야외관측일지를 들고 부엌으로 내려갔다. 솜신을 신고 부엌문을 열자 양심을 품고 기다리고있을듯 뻔한 눈보라가 뽀- 소리를 지르며 부엌문으로 몰려들며 설태진의 몸을 휘뚫 떠밀어냈다. 숨이 탁 막혔다.

《젠장 날씨두...》

설태진은 부엌문을 도로 닫고 귀틀벽에 하얗게 버께가 앉은 성에몽치들을 전지불로 비쳐보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갔다. 문득 그는 새문을 열어 젖히고 애매한 벽시계애다 또다시 전지불을 겨누었다. 때마침 수리부엉이가 태진을 향해 눈을 깜빡거리면서 그 무엇을 달래듯 일깨우듯 낮고 구슬픈 소리로 부엉, 부엉... 하고 네번이나 거퍼 울었다.

《흠, 벌써 네시구나 에라 이래도 거짓말이고 저래도 거짓말인걸 뭐...》

설태진은 아예 밖으로 나가기를 단념하고 코언저리까지 둘러감았던 털목도리를 풀어헤치고 신들매를 단단히 동인 숨신을 벗어버렸다. 이윽고 그는 옷목 책상우에 놓여있는 붉은색 걸가위를 한 두툼한 관측기록장-5년동안의 기상관측자료를 체계적으로 기록해놓은 그 관측기록장을 번지였다. 그는 이미 적어놓았던 밤 12시 기상관측자료를 놓고 적당히 수자들을 조절하여 새벽 3시 《기상관측자료》를 앉은자리에서 죄다 기록장에 적어넣었다. 량심이란 어쩔수 없는것인지 무슨 더러운 음식을 먹고난것처럼 속이 깨름했다. 벽에 걸린 수리부엉이의 눈이 그순간은 마치 백산봉의 량심을 지키는 초병의 눈처럼 무섭게 올려다보였다.

그는 다음 관측시간인 새벽 6시관측만은 절대로 어기지 말자고 유혹적인 달콤한 잠자리를 물리치고 5시 20분에 정확히 밖으로 나섰다.

새벽녘에는 바람세가 좀 숙어져서 짐승처럼 울부짖던 눈보라소리도 한결 고자누룩하니 가라앉았다. 그렇지만 대기는 여전히 맴짜고 칼날을 세운듯이 날카로웠다. 밤새 구름처럼 밀려다니던 눈보라는 관측점으로 올라가는 길에 무뚝무뚝 수많은 눈언덕을 쌓아놓아서 마치 낮선고장을 찾아온것 처럼 향방을 가릴수가 없었다.

눈이 어찌나 많이 쌓였던지 가슴팍까지 눈속에 빠져들어갔는데도 발끝이 굳은 땅에 닿지 않아서 도저히 몸을 움직일수가 없었다. 눈속에 깊이 찔려진 발을 안간힘을 써가며 들어올리느라면 대신 다른쪽 발이 눈속으로 더 깊이 꺼져들어간다. 게다가 속눈썹에 성애가 붙고 눈가루가 씹없이 날려와서 아무리 전지불을 비쳐도 갈길을 잡아낼수가 없었다.

눈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태진은 하는수없이 눈우에 벌렁 드러누워서 디굴디굴 몸을 굴리면서 한치한치 눈언덕을 뚫아올라갔다.

그는 6시가 훨씬 지나서야 관측기구들이 있는 백산봉마루에 겨우 올라섰다.

산마루에서는 눈바람이 우-우- 하고 무슨 귀신의 울음소리같은 괴이하고 불쾌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설태진은 6시관측마저도 이렇게 제시간에 하지 못한채 기운이 빠져 비칠거리면서 속소로 돌아왔다.

온몸에 눈가루를 한벌 뒤집어쓴 설태진이 부엌문을 열고 들어서니 뜻밖에도 뜬김이 뽕얇게 서린 부엌안에서 분비나무 타는 소리가 들려왔다.

눈바람에 한껏 시달려 곤죽이 되어버린 설태진은 부엌문지방가에 엉겨주춤 서서 한동안 뽕얇게 서린 뜬김속으로 내비치는 불깃한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뜬김이 어찌나 서렸던지 그는 한참만에야 저 안쪽 부뚜막에 몸을 수긏하고 서서 쌀을 일고있는 리철원을 볼수 있었다.

《철원형님! 아니 벌써 와계셨군요!》

태진은 환성을 지르며 부엌바닥으로 뛰어내려가서 철원을 얼싸안았다. 그런데 리철원은 웬일인지 반가와 어쩔줄 몰라하는 태진을 알은체도 하지 않고 덤덤히 쌀을 일고있는데 아궁의 불빛에 어렴풋이 드러난 그의 길쭉한 얼굴에는 분명 노기가 어려있는것 같았다.

철원의 어깨를 그러안았던 태진의 팔은 맥없이 아래로 떨어졌다.

《조장동지두 갑자기 병어리가 됐어요... 왜그래요? 아주머니의 병이 몹시 심한가요?》

태진은 아궁앞에 쭈그리고앉아 끄끙 얼어붙어서 쇠줄처럼 꺾꺾해진 신끈을 풀면서 철원의 눈치를 살피었다.

철원이는 일어난 쌀을 솔애다 와락 쏟아내고 태진에게 획 돌아섰다.

《덜패먹은너석!》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요?》

설태진은 신끈을 풀다 말고 벌떡 일어섰다.

《량심이 있는가, 량심이! 도적놈같은너석!》

리철원은 느닷없이 태진의 목살을 움켜쥐었다가 내뱉리었다. 그바람에 뒤걸음을 치던 태진은 부엌바닥에 놓인 나무토막에 걸려 번드러졌다.

영문도 모르게 줄지에 봉변을 당한 설태진은 눈물이 찔끔 쏟아졌다. 억울하고 분했다.

《도대체 이진 뭐야요! 밀도끝도없이!》

설태진은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솟구쳐 일어났다.

《온밤 관측을 한 사람보고 수고했다는 소린 없이 도대체 뭐야요!》

설태진은 부르썩 주먹을 한참 떨다가 자기를 넘어뜨린 참나무토막을 뿔처럼 차버렸다. 그 나무토막은 풀문처럼 열려진 아궁속으로 날아들어가서 수많은 불씨를 어지럽게 내뿜었다.

《뭣이 어쨌다구!》

순간 리철원이 격분을 참지 못해 주먹으로 부뚜막을 내리쳤는데 미국놈을 목사발내던 경찰병이었던 그의 딱메같은 주먹이 공교롭게

도 물바가지우에 떨어졌다. 바가지는 산산조각이 나고 그속에 담겨있던 물은 부뚜막에, 부엌바닥에 그리고 리철원이와 태진의 얼굴에 휘뿌려졌다. 불씨우에도 물이 떨어져서 칙칙 김을 뿜어댔다. 《에익 참!》

설태진은 분김에 와락와락 신끈을 풀고 방안으로 hing하니 날아들어갔다. 털모자 털외투 털목도리들을 아무렇게나 벗어내던지고 한참 씨근거리다가 관측기록장이 놓인 책상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내참 어이가 없어서...》

설태진은 부엌쪽을 돌아보며 코방귀를 끼고 야외수첩에 적어놓은 관측자료들을 옮겨베끼기 위해 관측기록장을 벌척벌척 뒤지었다. 그러다가 그는 갑자기 와뜰 놀라 엉-소리를 치며 눈을 둥그렇게 떴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관측기록장에는 벌써 6시 관측자료가 기록되어있었던것이다.

그리고 태진이가 앉은자리에서 적어놓은 새벽 3시 《관측자료》의 수자들을 죄다 그어버리고 그 밑에다 새로운 수자를 적어넣은것이였다.

태진은 점점 눈앞이 캄캄해왔다. 리철원이가 다짜고짜 성을 낸 까닭이 너무도 명백해졌다. 분명 그것은 리철원이가 적어넣은 수자들이였다.

(그럼 조장동무가 밤중으로 돌아와서 새벽 3시 관측을 했던말인가? 그런데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에 조장동문 어디에 있었는가? 내가 5시까지 숙소에 있었으니까 그가 3시 관측을 하고 내려왔다면 만났을텐데... 그렇지 3시관측을 하고는 내가 좀 늦어서라도 올라올걸 생각하고 산에서 기다렸을테지. 그러다가 시간이 가고보니 아예 6시까지 놀러있었는가?... 그렇다면 내가 6시관측을 하러 갈 때는 어째서 그를 보지 못했을까? 하긴 그때도 내가 제시간에 못올라갔으니 서로 길이어긔 날수도 있었지...)

구름처럼 피여오르는 여러가지 의문과 추측들은 설태진의 머리를 흐리멍텅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어쨌든 리철원이가 새벽 3시와 6시 관측을 하고 돌아온것은 엄연한 사실이었다.

《일이 정말 너절하게 뻤는걸...》

설태진은 관측기록장을 덮어버리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얼마후 축축히 내배인 이마의 땀을 문지르고 슬며시 고개를 돌리는 순간 태진은 또 다시 와뜰 놀라며 벌떡 일어섰다. 리철원이 어느새 방안으로 들어와서 푸르딩딩한 얼굴로 태진을 노려보고있었던것이다.

설태진은 입술을 깨물면서 고개를 떨구었다. 수그린 그의 머리우로 리철원의 쇠소리나는 욕설이 날아떨어졌다.

《모두매를 맞을너석!... 너같은놈이 기상관측원이 되면 어차피 술한 사람들이 재난을 입게 될게

다. 나라의 농사는 개관이 되고 어로공들은 풍랑에 묻혀 다 죽게 될게다. 량심이 없는너석!》

《형님! 조장동무, 잘못했어요.》

설태진은 와락 앞으로 달려가서 철원의 발밑에 풀썩 물러앉았다. 갑자기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졌다.

《흥 정말, 내가 밤중으로 돌아오길 천만번 잘했지, 너같은 도적놈을 이 집에 그냥 둘수 없다. 비겁한자식, 계집애처럼 눈물은 잘 흘린다. 썩 물러가라!》

리철원은 설태진의 눈물이 떨어지는 바른 발을 뒤로 치우더니 다시는 보지 않을듯이 돌아서서 부엌으로 나가버렸다.

그는 9시관측을 하러 떠날 때까지 설태진을 전혀 거들떠보지 않았다. 아침밥도 돌아앉아서 혼자만 먹었다.

그가 나간 뒤에 설태진은 앞으로 닥쳐오게 될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곰곰히 생각하였다.

(조장동문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앞에 폭로할테지. 나는 술한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쫓겨날거란말이야... 에라 그럴바엔 차라리 내 발로 가버리자!)

여기까지 생각한 설태진은 종이 한장을 꺼내들고 책상앞으로 갔다. 그는 만년필을 꼬나들고 푸송이를 틀어박은 귀틀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종이우에 글자를 적기 시작했다.

...조장동무, 나를 도적놈처럼 생각하고있으니 스스로 물러가겠습니다. 나로 나쁜놈이지만 조장동무도 좀 너무합니다.

앞으로 서로 찾지도 말고 영원히 헤어집시다...

《나는 이렇게 몇자 적은 종이를 관측기록장 갈피에 끼워놓고 백산봉을 떠나버렸습니다. 말하자면 도주했지요. 허허...》

설태진은 허거픈 웃음을 짓더니 그것으로써 이야기를 다 마친듯 눈송이들이 희끗거리는 칠혹빛 차창밖을 내다보았다.

사실 그만한 일쫓은 18살 애젊은 시절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누구에게서나 용서받을수 있는 실책이 아니라싶었다. 물론 지금 설태진이는 자기가 백산봉의 초소를 버리고간때문에 리철원이가 특발성피조의 병마에 시달리게까지 되었다고 생각하고있으니 량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거울수는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철부지 시절에 있었던 그 잘못을 일생토록 반성할 실책으로 여길 필요야 무엇이냐는듯 대수롭지 않게 웃으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래 백산봉을 떠난 이후엔 어디로 갔습니까

허허…》

《그 이후에말입니까?》 하고 반문한 설태진은 시간의 촉박을 느낀 사람처럼 시계를 들여다보고 좀 서두르며 말을 이었다.

《멀찌감치 황해도쪽으로 갔지요. 어느 지방산 업공장 지배인으로 일하는 아버지의 딱친구(설태진은 전쟁시기 부모를 잃었다.)를 찾아가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물론 관측소에서 도주한 사연에 대해 저는 감쪽같이 숨겼습니다. 쑥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사실 그때 별로 량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니다. 리철원에 대한 원망의 감정만 컸었지요. 점차 철이 들고 집단과 조직의 교양을 받게 되면서부터 나는 백산봉에서 있는 자신의 일을 두고 심각한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리력서직업란에다 한주일밖에 안되는 기상관측소 사업경력을 써놓고 직업을 이동한 이유는 《도주》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리철원에게는 사죄의 편지도 띄웠는데 펍 날자가 지나서 리철원이기 백산봉에 없다는 <주소불명>의 딱지가 붙어서 되돌아왔습니다. 아마도 그때 리철원동지가 병에 걸려 자리를 옮겼던것 같습니다. 나는 되돌아온 편지를 받고 많은것을 생각하다가 백산봉부근의 산골농장으로 직업을 또 옮겼습니다. 나는 지금도 방송이나 텔레비존을 통해 일기예보를 들을 때면 얼굴이 뜨거워지고 철원동지가 생각나군하지요. 허허…》

설태진은 껄껄 웃으면서 렬차칸에 매달려있는 차시간안내표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그의 음울한 눈빛과 주름잡힌 미간과 설그러진 입모양은 보고 그가 걸으로는 웃고있지만 얼마나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있는가를 알수 있었다.

문득 동이 트듯 차창밖이 흰해지면서 흰눈이 덮인 역승강장이며 철길주변의 건물들이 천천히 흘러갔다. 눈은 멎었으나 바람질을 하는지 하얀 눈가루들이 회오리바람에 말려올라가는 먼지처럼 허공에서 뽀얗게 맴돌이치고있었다.

《상동역》이라고 쓴 흰 표시판이 저발췌 앞에 내다보이는곳에서 렬차는 덜커덕 가벼운 진동을 하더니 멎어버렸다. 그러자 설태진이 천천히 일어나서 당반에 놓인 밤빛 러행가방을 내리웠다.

《나는 여기서 내려야 하겠습니다.… 가만 그런데 진옥이를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왜 아직 오지 않는가…》

《아니 내리시단요. 천은역은 아직 두 정거장을 더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덩달아 일어나서 태진을 의아쩍게 바라보았다. 태진은 나의 말에 대답할 경황이 없는듯 굽히 출입문쪽으로 가서 진옥을 찾으라고 고개를 기웃거리며 건너편칸을 넘겨다보았다.

기차는 상도역에서 2분밖에 서지 않는다. 벌써 발차시각을 알리는 렬차원들의 호각소리가 렬달아 들려왔다.

설태진은 할수 없는지 나에게로 돌아와서

《진옥이가 오면 내가 급한 사정으로 내렸다고 하십시오. 자, 그럼 안녕히…》 하고 서둘러 승강대로 달려갔다.

《아니 갑자기 무슨 사정이 생겼기에…》

나는 영문을 알수 없어 그를 따라가며 중얼거리었다.

설태진은 승강대우에서 나를 돌아보고 손을 흔들더니 훌쩍 밀로 뛰어내렸다.

나는 어쩐지 서운하고 허전하여 이윽도록 승강대우에 우두커니 서있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외등에 밝혀진 승강장의 역표시판을 등지고 이쪽을 바라보는 설태진의 모습이 천천히 다가오다가 뒤로 물러난다.

얼마후 차칸으로 들어오니 우리가 앉았던 자리는 이미, 조무래기 셋을 달고 차에 오른 젊은 여인이 차지하였는데 그는 하늘색 목도리를 풀면서 빨강고 파란 솜옷들을 입은채로 잠에 취해 아무렇게나 쓰러지는 어린것들에게 옷이 구겨진다고 지청구를 해댔다. 그러다가 옆에서 서성거리고있는 나를 흘끔 올려다보고

《저것들 보지 남의 아버지자리까지… 애 철남아, 넌 일어나거라.》하고 그중 커보이는 남자애의 다리목을 쥐고 흔들었다.

《놓아두시오. 저기 빈자리가 있군요.》

내가 빈자리를 찾아 차칸통로를 얼마쯤 걸어가는데 마침 진옥이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는 그를 보듯마듯 대뜸 나무랐다.

《아니 처녀두 왜 이제야 오우, 그 손님이 동무를 기다리다가 그만 내렸다고.》

《어마나, 우리 기상관측소로 출장을 오신다는 분이 왜 내려요?》

진옥은 눈이 동그래져서 나를 뵈히 바라보았다.

《출장을 온게 아니라… 좌우간 저기 좀 앉아서 애길 하자구.》

우리는 출입문곁에 있는 빈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나는 어차피 처녀에게 리철원과 설태진의 옛관계를 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였지만 선뜻 입이 열려지지 않았다. 설태진에 대한 진옥의 태도가 어떻게 나올것인가 하는 일종의 위구심때문이었다.

내가 덤덤히 앉아있는것을 보고 진옥이가 다시금 캐여물었다.

《그 손님이 왜 내렸나요? 갑자기?…》

《그에 대해선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손님은 동무의 아버지와 인연이 깊은 사람이더군. 지금부터 20여년전에 동무의 아버지와 함께 백산봉에서 기상관측을 했다고. 이름은 설태진이라고...》

《아니 뭐라구요? 그 손님이 설태진이에요?!》

진옥이 불시에 눈이 둥그래져서 말을 가로막는 바람에 나는 흠칫 움츠러들었다.

몹시도 놀라운듯 가슴에 두손을 붙이고 뭐라고 허아래소리를 하는 처녀의 낮은 파랗게 질려있었고 타원형으로 도려진 얇은 적갈색의 입술도 점점 파릿해지면서 가늘게 떨리는것이였다.

처녀의 아연한 표정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러니 동무는 이전부터 그 사람에 대한 말을 들어온 모양이구만.》

《그럼요. 아버지가 그 사람을 얼마나 외운다구요.》

나는 그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였다. 아마도 리철원이 설태진에 대한 원망을 묵새길수 없어 지금껏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설태진을 얼마나 꾸짖고 닳았으면 진옥이가 저렇게 놀라라싶었다. 나는 그들이 설태진을 부디 용서해주기를 바라는 진옥을 돌아보았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두번쯤이야 왜 실수가 없겠소. 그 손님은 꽤찮은 손님이요. 농산기산대 이번에 무슨 큰 공적을 세운것 같소. 동무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얼마나 생각하는지 려행길에서 만난 내앞에서까지... 웬간한 사람같으면야 그까짓 지나간 일을 생각이나 하겠소.》

나는 그쯤 말을 비치면 진옥이가 모든것을 리해하리라 믿고 불쾌한 과거사를 더 건드리지 않았다.

진옥은 포동포동한 깨끗하고 작은 손으로, 기상관측원들의 량심과 성실성을 기록한 수많은 관측치들을 날마다 온 나라 온 세상에 무전으로 날려 보낸다는 그 손으로 검은 장막을 드리운 차창을 만지면서 무엇인가 깊은 생각을 하고있었다.

렬차가 천은역을 앞에 두고 달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진옥은 혼자말처럼 중얼거려였다.

《야, 그 손님이 설태진이란 사람인줄 알았더면 내가 아버지 대신 그분에게 용서를 빌었을텐데... 한마디 사죄도 못하구 보냈구나-》

《그건 무슨 소리요? 사죄를 하다니?》

나는 뜻밖의 말이라 어정쩡해서 처녀의 표정을 살피였다. 진옥은 얼굴을 살짝 붉히며 눈을 내리 깔더니 손톱눈을 썰면서 기여든 소리로 속삭이였다.

《아버진 그분한테 큰 죄를 졌답니다.》

《?...》

《아버진 늘 말하지요. 자기가 그 사람의 생활에 큰 흠집을 남겨준 사람이라고... 자기가 어린 사람에게 접수될수 있도록 가슴뜨거운 비판을 해줄 대신에 위협적인 욕설만을 했었기때문에 그분이 혁명의 초소를 버리고 도망치게까지 되었다고 우리들앞에서 자주 외운답니다. 상처입은 발때문에 몹시 고통을 느낄 때에도 아버진 <이까짓 육신의 아픔이나 흠집이야 무어라니. 그 사람은 지나간 생활의 흠집때문에 아마 지금 나보다 더 큰 아픔을 느끼고있을게다. 그 사람이 제 리력을 적을 때마다 얼마나 괴롭겠느냐. 그건 내가 허비여준 상처다. 나때문에 생긴 흠집이다.> 하고 뇌이였지요.》

나는 어떤 단단한 물건이 가슴팍을 들이치는것 같은 강한 충격을 느끼며 진옥을 뻔히 지켜보았다.

설태진이뿐아니라 리철원이자신도 그런 심각한 자책속에서 20여년을 살아왔단말인가.

그들은 서로 소식도 모르고 스무여해를 저마끔 헤어져살아왔지만 얼마나 량심적으로 자기를 반성하며 서로 뜨거운 동지적사랑을 나누며 지냈는가 싶었다.

나는 그제서야 설태진이가 어찌하여 렬차칸에 매달린 차시간표를 유심히 지켜보았는지 그리고 무슨 일로 갑작스레 천은역을 가다 말고 뛰어내렸는지 그 모든것이 다 쉽사리 리해되였다. 그는 틀림없이 리철원을 한시라도 빨리 만나보기 위해 지금쯤 상동역에서 백산봉쪽으로 가는 북행렬차를 기다린것이다.

서로들 잊지 않고 그렇게 서로 찾아보려고 애썼건만 20여년이란 세월이 흐르도록 그들이 소식 한번 나누지 못한결보면 세상이란 과연 넓은것 같기도 했다. 아니 세상이 넓어서만이 그런것 같지 않다.

어쩐지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곳에서 늘 소문없이 수직수직 큰일을 해왔을것 같고 그 때문에 그들의 일터와 이름과 위훈을 쉽사리 찾을수가 없은것이 아닌가싶었다.

(정말 좋은 사람들이로군. 사실 이 세상에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것을 쉽지 잊어버리는 사람, 남에게서만 잘못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남에게 큰 해를 주고 상처를 입히고도 마음편히 지내는 사람들이 없지 않은것이다. 그런데 이 두사람은 얼마나 자기를 반성하며 살아왔는가. 이들이야말로 어버이수령님의 말씀대로 자기사업에 대하여 매일 돌이켜보고 총화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발명가칭호를 받은 설태진이, 백산봉의 원격자동기상관측기를 완성한 리철원이-그들의 이 위훈이 결코 우연하게 세워진것이 아니라고 생각되

였다.

나는 문득 고개를 쳐들고 진옥의 얼굴을 새삼스레 찬찬히 훑어보았다. 분명같이 희고 아름다운 그 처녀의 얼굴 어느 한구석에서라도 리철원의 모습을 찾아보고싶어서였다.

진옥은 어느새 일어나서 붉은 머리수건을 동이며 문득 입을 열었다.

《참 손님, 그분이 백산봉으로 가자구 차에서 내리게아닐가요? 아버지의 실험은 꼭 성공될거예요. 실험도 성공하고 그분도 만나고... 아버지 기쁘게 됐어요.》

《그럼 기쁘구말구-》

나는 갑자기 코언저리가 시큰해지며 눈물이 콧 쏟아질것 같았다.

《손님은 어디까지 가시나요?》

진옥은 내가 너무도 반한 사람처럼 자기를 흠여지게 바라보는것이 쑥스러웠던지 얼굴을 붉히며 말을 건네었다.

《응?... 어디로 가느냐구? 운덕으로... 그래 운덕으로 가지.》

나는 그제야 까맣게 잊어버렸던 이날의 불쾌한 일들이 돌이켜졌다. 그러고보니 나는 여태 자신의 여행길의 사연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있었다. 이제 진옥이가 그것을 물으면 어쩌랴 싶어 얼굴이 화끈거리었다.

나는 오늘의 사고의 원인이 온도조절계에 있었다고 운덕화학공장사람들에게 책임추궁 비슷이 노여운 소리를 하고 실험기구를 다시 받아오기 위하여 운덕땅을 찾아가고있는것이다. 얼핏보매 그것은 응당한 일이며 거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할수 있었다. 그러나 방금 설태진이와 리철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난 나의 랑심은 진옥이앞에서 얼굴을 들수 없게 하였다.

만약 리철원이나 설태진이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 이런 경우를 당했다면 그들은 절대로 운덕땅을 찾아가지 않을것이라고 나는 믿고있었다. 그들이라면 운덕화학공장을 찾아가기전에 우선 실험기구들을 간간하게 살펴보지 못한 자기의 잘못부터 허심하게 비판했을것이며 어떻게 하나 자기 힘으로 실험기구들을 마련하여 나라에 끼친 손해를 다소나마 보상해보려고 아글타글하며 돌아갔을것이었다. 그렇다. 그들은 이런 경우에 절대로 폭발의 원인을 두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을것이며 자기의 일터를 떠나지 않을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의 귀에는 문득 운덕으로 가지 말라고 애원하던 실험공처녀의 울먹이던 목

소리가 쟁쟁히 들려오는듯했다.

어쩌면 주변의 사람들모두가 그렇게 아름답고 성실하다는것을 나는 새삼스레 느끼면서 스르르 눈을 감았다.

《손님!》

숨소리를 죽이고 명상에 잠겨있던 나는 문득 진옥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쳐들었다.

《전 그럼 내리겠어요, 안녕히 가세요.》

진옥은 방긋 웃으며 고개인사를 하고 출입문쪽으로 걸어나갔다.

《아니 벌써 천은역인가?》

나는 저도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줄에 매달려 흔들흔들 춤추는 차시간표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우리의 실험실로, 실험공처녀가 누워있는 병원으로 어서 되돌아가고싶었으나 그쪽으로 가는 객차는 이미 천은역을 지나가버렸었다. 아마 설태진이는 지금쯤 그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을것이다.

하지만 나는 삼면차크가방을 열구리에 끼고 진옥이가 서있는 승강대로 비칠거리며 걸어갔다.

《아니 운덕으로 가신다면서?...》

자기 나이포래의 웬 처녀와 커다란 보짐을 맞들고 서있던 진옥이가 내릴 차비를 하고 승강대로 나서는 나를 보자 눈이 울롱해졌다.

《응, 나도 여기서 내려야겠소.》

나는 어쭙게 대답을 하고 출입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제는 밤이 이슬해져서 객들이 거의나 다 조용히 눈을 붙이고 앉아있었다.

(저들의 여행길에는 어떤 사연들이 있을까?)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차창밖으로 불빛이 얼른거렸다.

렬차는 부드러운 기적을 울리면서 점점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다.

설태진이 내리려던 천은역을 내가 내리게 된것이다.

나는 진옥의 뒤를 따라 승강대를 내려서 한동안 못박힌듯 서있었다.

렬차는 다시 천은역을 떠나 밤하늘에 기적소리를 울리며 어둠속으로 사라져갔다.

가슴에 찌릿한 여운을 남기며 멀리로 번져가는 기적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하였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리었다.

《목적지로 가지 못한 이 여행길을 영원히 잊지 말고 리철원 설태진이들처럼 자기를 반성하며 살아가자.》고...



## 쇠물이 끓는 땅에서 외2편

차영도

여기에 고향을 둔 사람이든  
출장길에 잠시 들렀다 가는  
그 어느 먼곳의 길손이든  
황철땅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것만은 잊지 말자  
-여기서는 지금 쇠물이 끓고있다 !

얼마나 숨엄함이  
얼마나 뜨거움이  
이 말속에 울리는것인가  
쇠물이 끓는 땅!

웁기는 걸음도  
무심히 웁길수 없노라  
쇠물이 끓는  
이 땅에서는

가슴속 생각도  
절로 뜨거워지노라  
끓는 쇠물을 지켜  
밤낮을 이어가는 이 황철땅에서는

오, 감히 우러르지 말라  
하늘가에 장엄히 치솟은 저 불타는 용광로  
그것이 철의 력사가 시작된  
황철의것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기전에는

그리고 무심히 스쳐지나지 말라  
이 거리 한복판에 건물높이 나뉘는  
저 《용해공상점》의 붉은 간판도  
《용해공식당》의 아름다운 장식등도  
이 땅에 바로  
쇠물을 끓이는 사람들이 살고있음을  
다시 한번 새겨보기전에는

사람도

거리도  
쇠물만을 안고 사는 땅  
시각마다 나뉘는 저 속보들도  
쇠물처럼 끓는 황철의 자랑을 노래한다

여기에선 그 누구를 만나도  
그는  
쇠물을 끓이러 가는 길바쁜 사람  
용해공은 아니여도 쇠물을 위해 사는 사람  
그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눌라치면  
그들의 가슴에선 진정의 말이  
뜨겁게 울리더라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는 방엔 언제나  
우리가 끓이는 쇠물도표가 걸려있다우!

오, 쇠물이 끓는 땅  
오가는 말, 웁기는 발걸음에도  
쇠물보다 더 뜨거움이  
가슴을 치는 땅!

황철이여, 황철이여  
그때문에, 정녕 그때문에  
조국에 진한 땀 바친 경력이 없인  
누구나 선뜻 들어설수 없는  
너는 존엄높은 철의 도시!  
누구나 잠시 들렀다 가도  
함께 땀흘려보지 않고서는 떠날수 없는  
너는 충성의 불을 지퍼주는 불의 도시!

오, 여기에 고향을 둔 사람이든  
출장길에 잠시 들렀다 가는  
그 어느 먼곳의 길손이든  
우리  
부디 이것만은 잊지 말자  
-황철에서는 언제나 쇠물이 끓고있다!

## 황철의 아침

구내차가 증기를 뿜으며  
길게 기지개를 켜다  
밤을 새운 황철에  
아침이 왔나보다

불빛수건 머리에 쓴 분석공치너들이  
걸음총총 사라지는 젖빛안개속엔  
밤새 부어낸  
시뻘건 강피더미, 불의 더미...

정다워라, 여기저기 쇠들이 맞부딪는  
철의 음향-철의 노래  
교대길에 서로들 불러찾는  
청높은 목소리-생활의 노래

황철의 아침은 불타는 아침  
황철의 아침은 쇠물의 아침  
종구나, 용광로의 출강종소리에  
저기 해탄로가 불노을로 화답함도

잠을 모르는 황철  
새날을 부르는 황철  
이런 아침엔 정말로  
저 구내산 숲속의 새들마저  
제 혼자 잔 잠이 수집으리 수집으리

철길감시원 처녀야  
기차는 지나갔다 어서 차단봉을 올리렴  
간밤에 수고 많은 용해공들  
기다려 정다운 집 창문들 저 너머에 있거니

쇠물을 끓여 쇠물처럼 뜨거운 가슴들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나  
타는 쇠물로 새날을 맞는 저들이 없다면야  
그 무슨 황철의 이 좋은 아침이라!

보아라, 밝아오는 황철의 이 아침엔  
어디나 불, 어디나 쇠물!  
해가 솟아 아침이나  
쇠물빛어려 아침이나  
조국의 하늘에 불노을을 뿌리며 뿌리며  
오, 황철은 또 하루 아침을 펼친다!

## 이 거리를 사랑한다

가슴에 불을 안은  
담찬 사나이들이  
서로 이웃을 하고 사는 거리  
이 거리를 나는 사랑한다!

용해장에서 오랜 세월 일해온 아바이  
존경받는 이 거리의 《좌상》이 되어  
명절날엔 의례히 첫잔을 먼저 받는  
이 거리를 나는 사랑한다!

저기, 로동자합숙꼭에선  
누군가의 손풍금소리 손풍금소리...  
아직은 짝을 못지 않은 젊은 수리개들  
검푸른 대공을 향해 억센 나래 저어가는  
꿈 많은 이 거리를 나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나는  
용광로의 화광이 불타는 저녁  
야합수 휘날어진 강반의 유보도로  
무리져 걷는 일마친 고운 처녀  
그들이 사는 이 거리를 나는 사랑한다!

문득 길가에서

남달리 귀여운 아이를 보아도  
-어서 크거라  
이 거리의 무용가로 곱게 자란 너로 하여  
래일의 우리 로동자구락부 무대  
또 얼마나 더 화려해질것이나-  
참으로 앞날 좋은  
이 거리를 나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나는  
밤마다 지원자 아낙네들  
서둘러 저녁을 차려먹고  
용광로현장을 찾아 떠들며 가는 거리  
사랑한다 저 수천수만의 불밝은 창문들이  
수고 많은 용해공들을 기다려  
밤깊도록 꺼짐이 없는 정다운 거리  
삶의 노래높은 이 거리를 나는 사랑한다!

오, 거리여 거리여  
언제나 끓는 쇠물을 안고  
잠들줄 모르는 철의 도시-용해공거리여  
나의 젊음처럼, 나의 가슴처럼  
잠시도 진정이 없는 불타는 이 거리를  
나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 교대

안병모

깊어가는 용해장의 밤  
무쇠기둥처럼 나란히  
로대의 란간에 두 로장이 서있다  
번뜩이는 쇠물빛에  
이따금 드러나는 거뭇한 턱수염  
깊이 빨아삼키는 담배연기…  
《불장난에 이골이난놈들이지…》  
오늘호 당보를 넘겨주며  
문득 전야군 로장이 하는 말  
《허기사 그게 놈들의 사는법이지…》  
특호활자로 찍힌 소식을 읽으며  
레사로이 받는 후야군 로장의 대답

그들 두사람  
나란히 선채  
적 정찰기의 소음을 듣는듯,  
전쟁소동으로 어두워진  
먼 남쪽 하늘을 바라보며  
말없이 교대를 넘겨주고 받는다

그들은 이렇게 교대하였다  
아득히 흘러간 청춘시절  
불비 쏟아지던 1211고지, 거기서  
포탄에 허리 잘리운 나무껍질 벗기어  
피로 쓴 맹세문을 넘겨주고 받으며  
기여오르는 적의 수자 하나 둘 헤아리며…

이렇게 교대하였다  
전선에서 메고온 물날은 배낭  
무너져내린 철끝에 나란히 걸던 그 저녁부터  
재무지에서 함께 쪽잠을 자고 일며  
원수들의 《반공》 나발을 짓누르고  
복구건설에서도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줄 마음 안고…

오, 교대에 교대를 이어  
날과 달은 바빠도 흘렸건만  
어찌하여 그들은 잊을수 없었던가  
흙에 묻힌 송풍기결에서 전우의 아들이  
검댕이 발린 얼굴로 마중할 때  
로를 지켜낸 전우의 이름부르며

끓는 가슴에 은은히 고이던것이여!

그날만은 그날만은  
왜 그리 적게만 느껴졌던가  
《함정골》에 처넣은 미국놈의 수자  
가슴가득 절령대던 훈장들이…

뺨긴 강피더미우에서  
끓는 밥통의 구수한 내음새  
가을바람에 실려가던 그 밤  
철끝을 베고 누워  
구내를 떠나는 열차의 기적소리 들으며  
그들 서로가 속구구로 헤아리던  
뿔아낼 쇠물의 톤수 늘어만 갔거니

얼마나 흐뭇했던가  
새로 일떠세운 대형용광로 대견히 쓸어만지며  
감격의 환호성 터칠 때  
미제전쟁 장사치들이  
여기 넓어진 로면적에 겁을 먹고  
작전도를 되꾸민다는 희떠운 소식 들으며…

아, 그들 이제 다시  
흘날리는 재가루를 움켜쥐고  
터져오는 가슴 주먹으로 두드리며  
어찌 무너진 철끝에 배낭을 걸랴  
그들 어찌 다시  
애송이 전우의 아들 부둥켜안고  
가슴으로 더운 눈물 떨구랴!

낮추드리운 어둠이  
쇠물빛에 타번지는 용해장의 밤  
끓는 쇠를 넘겨주고 받으며  
두 로장이 교대한다  
화약내 뿔어대며  
불을 안고 날뛰는 적을 앞에 놓고  
나라의 생명선을 넘겨주고 받는다!

《부탁하네!》  
《넘려말게!》

## 접중화

박정범

우리 집 정원에는 해마다 접중화가 곱게 피어나군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하며 가꾸는 꽃이다.

아버지는 탐사대원이었다. 우리는 자주 이사를 다녀야 하였다. 그럴 때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꽃뿌리를 새집으로 떠옮기곤하였다.

한번은 층높은 아파트로 이사간적이 있었는데 그 아파트 남향창가에서도 접중화는 봄과 함께 어김없이 피어나군했다.

《많고 많은 꽃중에서 왜 접중화만 그렇게 좋아하나요?》

철없고 호기심 많던 소녀시절에 나는 아버지에게도 물어보고 어머니에게도 물어보곤하였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씩스려운 미소를 지을뿐 대답을 피하곤하였다.

하여 나는 숙성한 처녀로 자랄 때까지 접중화 꽃에 깃든 사연을 모르곤있었다.

그러던 지난해 설을 앞둔 저녁이었다.

우리들은 오랜만에 산에서 돌아올 아버지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있었다.

일박에 모르던 아버지가 그해 설만은 꼭 집에 돌아와 우리들과 함께 가족산보도 하고 새해경축 공연도 구경하자고 약속해주었던것이다.

어머니는 나의 머리단장도 도와주고 의롱속에서 끄집어낸 명절비단옷에 다림발을 세우기도 하면서 현관문밖에서 들려오곤하는 인기척에 자주 귀를 기울이곤했다.

중학교 1학년에 다니던 남동생 철이는 기다리다 못해 최우등성적증을 말아들고 아버지가 기차에서 내릴 정거장으로 달려가기까지 했다.

저녁술을 놓기바쁘게 품아떨어지곤하던 막내동생 옥금이라도 그날만은 영근 머루알같은 눈알을 대롱거리며 좀체로 잠들줄을 몰랐다.

하지만 아버지는 잠시 멎었다 떠나는 마지막 러객렬차의 기적소리가 길게 울린지 오랜 후에도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오래간만에 아버지 어머니를 이끌고 출판으로 구장으로 웃고 떠들며 돌아치려던 우리의 간절한 꿈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말았다.

밖에서는 노래소리 웃음소리 박수소리가 높아졌다.

그 소리는 뽕양게 김이 서린 우리 집 창유리를 드르르릉 울리며 지나갔다.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곳에 오색무리등을 달고 명절놀이터를 마련한 광장이 있었던것이다.

자리에서 일어난 나는 말없이 창문가에 기대서 한해가 저물어가는 거리를 내다보고있었다.

떠오르는 태양아래 흰눈을 이고 곳곳이 서있는 소나무를 그린 축등들, 소리없이 내리는 함박눈을 꽃보라로 맞으며 손에 손에 병이며 과일, 사탕, 파자통이 든 선물구렁들을 들고 바쁜 걸음으로 엇갈려 오고가는 사람들의 물결, 승벽내기로 풍년할아버지를 만드느라고 아름이 번 눈덩이들을 굴리고있는 아이들, 가로등밑에서 속삭이는 청춘남녀들,

언제 곁에 왔는지도 모르게 그들을 부럽게 바라보는 나의 어깨우에 어머니는 다정하게 손길을 얹어주었다.

《부럽니?》

나는 이렇게 묻는 고마운 어머니의 옆모습을 측은한 눈길로 여겨보았다.

이제는 귀밑머리에 흰서리가 내불리고 살결 굵던 얼굴에 잔주름이 엉키기 시작한 어머니였다.

뜬김서린 창유리를 닦으며 출판, 놀이판이 벌어진 창밖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얼굴에도 기쁨대신 그늘이 드리워있었다.

우리 어머니라고 왜 남들처럼 아들딸들의 손목을 이끌고 축복의 꽃보라인양 소복소복 내리는 함박눈을 맞으며 명절을 즐기고싶지 않으랴.

생각할수록 아버지께 대한 불만과 함께 어머니가 측은해보였다.

꿈꿨던 청춘시절을 총포탄 비발치는 조국의 고지우에서 보낸 어머니였다.

과년해서야 가정을 이루었다지만 그때부터 탐사대원이었던 아버지는 거의 집에 붙어있는 날이 없었다.

워낙 시간이 없는 의사일을 하면서도 혼자서 우리를 키우고 혼자서 집일을 도맡아보다싶이한 어머니였다.

이따금 집에 들리곤하는 아버지가 오랜만에 한번 해보려는 집일마저도 어머니는 한사코 말리곤했다.

값비싼 청춘을 보람있게 마쳤으니 남은 여생을 마음놓고 즐겨야 할 어머니가 아닌가!

어머니는 줄곧 말이 없었다.

출판에 눈이 팔린채 오고가다가 자기들도 모르게 맞부딪치는 처녀총각을 보고도 웃지 않았다.

《어머니 너무 상심하지 말구 하루밤 더 기다려보자요. 한걸음 늦어져서 기차를 놓쳤을수도 있지 않아요.》

나는 마음편해보지 못한 자기생활의 지난날을 더듬고있는것만 같은 어머니를 위로해주고싶었다.

《아니다. 시간을 어겨서 못오실 아버지가 아니다. 언젠가도 전사시절의 아버지 친구가 말하지 않던? 목숨을 내걸고서라도 명령과 시간을 어긴 적 이 없던 아버지라고...》

어머니의 말은 옳았다.

아버지는 시간에 대한 관념이 철저한 사람이었다.

한번은 강너머 탐사단에서 조직한 회의에 참가하러 가다가 강상류에 있는 다리로 예돌면 시간이 늦어질것 같다면서 사품치는 강물에 뛰어들어 심장마비에 걸릴뻔한 일까지 있는 아버지였다.

그러니 어머니를 무엇으로 위로할수 있단말인가.

깊어가는 밤과 함께 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져가기만 했다.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그 하루동안에 어머니는 퍼그나 더 늙어보이는것 같았다.

어머니가 늘 좋아하는 《전호숙의 나의 노래》를 불러드릴까? 아니면 《충성의 한길을 가고 가리라》를 불러드릴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보기까지 했다.

이때 쪽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마당에 덮인 흰눈을 밟는 발자국소리가 사박사박 들려왔다.

순간 어머니는 가슴에 두손을 포개엿었다.

《아버지다.》

나는 한달음에 밖으로 달려나갔다.

솔직히 말해서 늦어진 아버지의 동가슴을 마구 두들겨주고싶은 심정이였다.

그러나 두툽한 솜동복에 털모자를 푹 눌러쓴 구레나룻이 텅수룩하고 눈이 억실억실한 허우대 큰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온 마을이 《우리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통신원아바이였다.

편지를 받아든 나는 앞에 통신원아바이만 없었더라도 아버지에게서 보내온 그 편지를 마구 구겨버렸을는지 모른다.

뒤따라 나온 남동생 철이가 나의 손에서 봉투를 빼앗아 어머니앞에서 뜯기 시작했다.

그것을 기대어린 눈길로 여겨보는 어머니의 표정은 복잡하였다.

마치 제비족지를 뿜아 펼치는 사람의 표정 같았다.

철이가 네겹으로 접은 편지를 펼치는 순간 책갈피속에 끼워 말리운듯한 자주색 꽃 한잎이 방바닥우에 홀날려 떨어졌다.

접중화꽃잎이였다.

《됐다 됐어 그럼 그렇겠지.》

어머니는 어린 처녀애처럼 환성을 지르며 누가 볼세라 그 꽃잎을 집어들었다.

우리들은 의혹에 찬 눈길로 어머니의 얼굴을 여겨보았다.

수집계 붉어지던 얼굴에 언제 불안과 수심이 어려있었던가싶게 기쁨이 피어나고 잔주름이 가셔졌다.

십년이나 더 늙어보이던 얼굴이 그 순간 이십년은 더 젊어지는것 같았다.

《그건 또 뭐냐?》

철이가 여전히 불부은 소리로 물었다.

《아버지가 또 큰일을 하신 모양이다. 뭐라고 썼는지 어서 편지나 읽어라.》 젊어진 어머니를 보자 불만으로 부풀었던 우리의 마음도 한결 가라앉았다.

우리는 편지를 소리내여 읽었다.

안해와 아이들에게 한 약속을 어긴 자기를 용서하라. 전사가 명령을 수행하지 못한채 무슨 면목으로 설명절이라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하루 이틀만 더 있으면 접중화꽃 피었던 잎사귀에 씨열매가 맺히듯 일생의 한매듭 잎사귀에 또 한개의 큰 열매가 맺히게 될것이니 그날을 기뻐해달라.

편지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게 이렇게 씩여져있었다.

우리는 다시 명절을 즐기지 못하는 아쉬움으로 심드렁해지기 시작했다.

행복에 겨워하듯 기뻐하는 사람은 어머니뿐이였다. 까닭은 편지속에서 나온 접중화꽃잎때문이었다.

나는 그런 어머니를 여러번 보았다.

책갈피속에서 말리운 한잎의 접중화꽃잎, 그 꽃잎이 무엇이길래 어머니는 만시를 만부러움을 잊고 그리도 기뻐하는것일까? 필경 아름답고 귀한 추억이 아니면 참을수 없는 기쁨을 되살려주는 사연이 있으리라.

《어머니! 어머니는 아버지 편지속에서 그 꽃잎을 볼 때마다 왜 그리도 좋아하나요?》

나는 시름도 부러움도 없이 이 세상에서 자기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인것처럼 만면이 환해서 아버지에게 회답을 쓰려고 책상에 마주앉은 어머니에게 물었다. 대낮처럼 밝게 장식된 창밖에선 여전히 함박눈이 내리고있었다.

이따금 소담한 눈송이들이 뜬김이 가시기 시작한 창턱우에 내려앉곤했다. 벌써 자정이 넘었건만 잠들줄 모르고 오고가며 웃고 떠들던 소리들도 잠시후부터는 가뭇없이 사라져갔다.

어머니는 책상우에 올려놓은 꽃잎을 여겨보며 붉고 탐스러운 접중화꽃처럼 아름답고 깨끗했던 시절을 추억속에 더듬고있는듯싶었다. 나는 기다리다못해 또다시 독촉했다.

《정 그 이야기가 듣고싶거덜랑 네 먼저 <전호숙의 나의 노래>나 불러주렴.》

《아이참, 그 노랜 또 왜요?》

《그 시절이 떠올라야 이야길해주시지.》

나는 꽤히 응하였다. 어머니에게서 행복했던 시절의 수정처럼 맑고 깨끗한 샘줄기만 터쳐놓을 수 있다면 무엇인들 가리라! 나는 조용히 사색에 잠긴 은근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

전호숙의 나의 노래 고향으로 울려가라  
우리 행복 삼키려는 원썩 미제 쳐부시고  
빛난 훈장 가슴팍에 내 집으로 돌아가면  
사랑하는 부모처자 두팔로써 안기리

.....

정들어 못견디게 그리운 고향을 생각하면서도  
공업이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품으로 돌아가지 않  
으려는 병사의 굳은 맹세가 가슴 한가득 느껴지  
는 노래였다.

《아버지도 이 노래를 무척 좋아하였단다.》

《그래요?》

《좋아하셨을뿐아니라 한평생 그런 신념으로 살  
아왔지. 그래서 오늘도 안오시는거란다.》

《어머닌 또 아버지편이야.》

나는 설에도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두둔하는  
어머니를 찬성할 수 없었다.

《너도 인젠 숙성한 처녀로 자랐으니 어찌보면  
제자랑같기도 한 이야기를 들려주자. 하지만 아  
버지가 알면 욱하지 않으실는지 모르겠다.》

함박눈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시던 어머니는 나  
를 던지시 마주보며 어줍은 표정을 짓고나서 이  
야기를 시작했다.

...마을이 불타고 학교가 무너지던 날,

남학생들은 분연히 전선으로 떠나갔다.

썰라복을 입은 녀학생들은 제각기 가까운 동료  
들의 부풀어오른 뺨은 가슴에 꽃송이들을 달아주  
었다. 뚜껑에 자기 이름을 새긴 만년필이며 고급  
노트를 안겨주는 처녀들도 있었다.

그런데 《시인》으로 알려진 한 남학생에게만은  
누구도 꽃송이를 달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후에  
야 그것을 발견한 순녀(어머니의 이름이었다)는  
자기 학급의 녀동무들이 그와 자기를 화해시키려  
고 일부러 꾸며낸 계교임을 알았다.

그들은 멀지 않은 한마을에서 살고, 한 학급에  
서 공부를 하면서도 벌써 일년나마 서로 말이 없  
었던것이다.

어느해 봄, 남학생이 교실앞 꽃밭기슭에 점중  
화를 심었는데 순녀가 그만 그 꽃밭을 다시 파엿  
고 채송화씨를 뿌려놓았던것이다. 그것은 물론  
남학생이 점중화씨를 먼저 뿌렸다는것을 모르고  
한 일이었다. 새싹이 움터나기 시작해서야 그  
일을 알게 된 남학생은 순녀를 찾아와 다짜고짜  
로 그의 숙제장을 마루바닥에 집어던졌다. 그바  
람에 책뚜껑이 떨어지고 책장이 찢어졌다. 처녀

는 억이 막혀 울었다. 동창들로부터 남다른 사이  
라고 놀림을 받던 그들의 사이는 그때부터 다시  
아물수 없는 사이로 되고말았던것이다. 처녀가  
모르고 한 일임을 안 남학생은 몇번이나 화해할  
기회를 노렸지만 한번 토라지면 좁체로 꼬인 속  
을 풀줄 모르는 처녀는 종시 그를 만나주지 않았  
다. 마주오는 그를 멀리에서 보기만해도 미리 숨  
어버리곤했다.

녀학생들에게서 꽃송이도 받아달지 못하고 대  
렬 한복판에 우뚝 서있는 남학생의 얼굴은 침울  
하였다.

어느때갈이면 청높고 류창한 즉흥시로 석별의  
정을 나누는 동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해주기도  
하고 전선으로 떠나는 친구들의 가슴에 불타는  
중오심을 불어넣어주기도 했을 그였지만 그는 결  
사 사람의 물음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처녀는 조국이 부르는 성스러운 길, 이제 헤어  
지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전선길을 떠나는  
마당에서까지 그를 더 이상 괴롭혀주고싶지 않았  
다.

어린시절의 추억이 되살아났다. 너무도 일찍  
어머니품을 잃은 순녀는 텅 빈 초마가리토방에  
나앉아 울음으로 해구멍을 막고 울음으로 동트는  
새벽을 맞곤했다. 탄부인 아버지는 새벽에 나가  
면 밤 늦게야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면 술에 취해  
서 자리에 쓰러지기 바쁘게 뚫어떨어지곤했다.  
처녀애의 울음을 달래주는 사람은 그보다 두살  
우인 개울건너집 총각애뿐이었다. 그는 탄광버럭  
더미에서 알탄을 주어다 팔곤했는데 그럴 때면  
개눈깔사탕을 한두알씩 사다주기도 하고 산에 풀  
나물을 뜯으러 갔다올 땐 싱아대며 병풍잎에 싼  
말근말근 익은 머루, 다래를 가져다주기도 했다.  
순녀는 그 총각애가 없으면 못살것만 같았다. 때  
로는 추운 겨울날 늦게까지 산에서 돌아오지 않  
는 총각애를 기다리다 못해 동구밖까지 마중나갔  
다가 언손을 호호 불며 운적도 한두번이 아니였  
다.

그럴 때면 총각애는 순녀의 언손을 자기 가슴  
에 품어 녹여주곤했다. 순녀의 손에 쥐여줄것이  
없을 땐 그가 청하는대로 이빠진 크림통을 얻어  
다가 밥가마, 국가마를 걸어놓고 열구씨로 <흰쌀밥  
>을 짓고 해묵은 풀잎으로 미역국을 끓이며 세간  
살이놀음도 놀아주곤했는데 그럴 때면 의례히 남  
학생은 <아버지>가 되어주고 순녀 자기는 <어머  
니>가 되곤하였다.

그리고 해방이 되어 월사금없는 학교가 마을에  
생겨났을 땐 얼마나 좋아했던가. 놀음대신 서로  
돕고 일깨워주며 공부에 정신이 팔려 키가 크고  
철이 든 그들은 문득 소꿉시절이 추억되어 얼굴  
을 붉히곤하면서도 그 추억을 탓함이 없이 언제  
나 살뜰히 대해주고 살뜰히 배려주곤하며 십리

먼 학교길을 오고갔다.

순녀는 병사복을 갈아입은 남학생이 자기에게 무엇인가 말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갑자기 무엇으로 살뜰하게 대해줄 수 있는 말인가?

그에게는 준비된 꽃송이도 없었고 만년필이나 수첩은 더구나 없었다. 그렇다고 잠자코 있을 수만 없는 그였다.

그는 더 자주 자기에게로 쏠리는 남학생의 기대 어린 눈길을 감추하였다.

마침내 한가지 생각이 떠오른 그는 깨진 기와장이며 벽돌장들이 덮어버린 교실앞 꽃밭자리로 달려가 폭격속에서 겨우 살아남은 접중화꽃 몇가지를 꺾어들고 돌아왔다. 숙제장두껍이 떨어지던 날 밤 화김에 심어놓았던 접중화였다.

남학생들은 어느새 발동을 건 트럭우에 올라있었다. 순녀는 그때까지 자기를 찾고있는 남학생에게 그것을 안겨주었다. 녀학생들이 박수를 쳐주었다.

순녀는 얼굴을 붉혔으나 남학생은 여간 기뻐하지 않았다.

《꽃다발을 안겨주어 고맙소.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기쁜소식을 전해줄테요.》

한해반만에 처음 들어보는 다정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순녀는 대답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탐스럽게 어깨를 덮고자란 술진 곱슬머리레가 산들바람에 나뭇기듯 춤을 추었다.

신입병사들을 태운 트럭은 떠나갔다.

순녀는 멀어져가는 트럭우에서 접중화꽃다발을 흔들며 좋아하는 병사의 밝아진 얼굴을 오래오래 바라보고 서있었다.

《그러니 아버지가 편지속에 보내온, 접중화꽃잎은 약속을 어긴데 대하여 화해를 바란다는 뜻이었군요?》

나는 저으기 실망해서 물을 청해마시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아니다 그래서가 아니다.》

어머니는 부정하였다. 다시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이듬해 봄, 처녀는 조직의 분공을 받고 병사의 집을 찾아갔다. 그동안 너무도 빨리 머리가 희어지고 허리가 굽어든 병사의 어머니는 아들이 가꾸던 울밑의 접중화꽃포기에 복을 돌구어주고 있었다.

《어머니! 아들이 왜 그리도 접중화꽃을 좋아했나요?》

멀어져가는 트럭우에서 접중화꽃다발을 흔들며 기뻐하던 병사의 모습이 떠오른 처녀는 물었다.

《그러게나 말이지.》

실하게 돌아난 접중화씨를 생각깊이 바라보던 어머니는 대답하였다.

《해방만세를 부르며 술대문을 세우던 날 평강은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저 바람세찬 동구밖 길가에 임자없이 피어나 버림받던 이 꽃을 울밑에 띄웁기면서 열세살 어린아들애에게 말하더구나. 해방된 나라의 참된 아들이 되고싶거덜랑 한생물이 접중화처럼 살라구. 우리 애가 이 꽃을 좋아하기 시작 한건 바로 그때부터란다.》

《접중화? 접중화?》 병사의 어머니 말을 듣고난 처녀는 오래오래 생각하였다. 접중화의 생리, 접중화의 특성에 대해서...

해박하기로 소문난 식물학선생의 설명을 듣고서야 그것을 안 처녀는 접중화를 그리도 좋아한 병사가 왜 자기에게 그리도 무리한 분풀이를 했던가를 비로소 알았다.

한번 심으면 땅속깊이 박은 뿌리에서 해마다 새 순이 돌아 오직 한줄기로 키높이 일매지게 자라는 꽃, 꽃피었던 잎귀마다에 틀림없이 씨열매를 익히면서 찬서리내리는 마가울까지 곱게 피어있군하는 꽃, 그렇다. 참된 조국의 아들이 되려거든 공부를 해도 일을 해도 걸음걸음 자옥마다에 나라 위한 위훈을 남기면서 일생을 빛나게 살아가라는 뜻이었구나!

처녀는 무너진 학교 꽃밭자리에서 깨진 기와장이며 벽돌장무지를 파헤치고 접중화뿌리를 찾아 산기슭 반토굴교실앞에, 자기 집 마당가에 옮겨심었다. 그날밤 전선의 병사에게 제잘못을 속죄하는 편지도 썼다. 굳은 신념의 싹을 파엿어버렸던 자기를 용서하라고, 왜 벌써 그 뜻을 말해주지 않았는가고... 자기도 그렇게 살고싶노라고...

그러나 애써 쓴 편지를 보낼 주소가 없었다. 그는 전선의 남동창들에게도 물어보고 소식을 알고있음직한 녀동창들에게도 물어보았으나 병사는 그때까지 누구에게도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었다.

처녀는 할수없이 또 병사의 어머니를 찾아갔다.

이제는 총각의 소식을 알아보려 다니기엔 쑥스러운 나이였건만 처녀는 그것도 무릅써야 했다.

그러나 허사였다. 병사는 어머니에게마저도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공없이 소식을 전하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떠났다는것이다.

반토굴교실 앞에, 자기 집 마당가에 옮겨심은 접중화뿌리에선 봄마다 새순이 돋고 자라 붉고 탐스러운 꽃송이가 피어나군했다. 꽃송이에서 풍기는 향수는 처녀로 하여금 더 자주 못건디게 그리운 병사의 얼굴을 그려보게 했다. 그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싸우고있는지? 내가 안타깝게 소식을 기다리고있는줄을 알고나 있는지?

처녀는 몇번이나 전선에 있는 사람은 전선에 가야 만날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군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세월이 병사로 하여금 자기를 영영 잊어버리게 한것만 같아 그 생각을 단념해버리군했

다.

하필이면 왜 좀더 뜨겁고 살뜰하게 바래주지 못했던가, 그는 작별의 그날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를 《맹충》이라고 욕하곤 했다.

어느날 철교북구전투장에서 돌아온 순녀는 책상우에서 자기를 기다리고있는 편지를 발견하고 그만 깜짝 놀랐다.

머리속에서 사라지지 않던 병사의 편지였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달래며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은 처녀는 접중화꽃잎을 발견하고 어쭈게 웃었다.

《아니 철없는 처녀에처럼 이건 또 무슨 장난이람.》 누가 볼세라 그 꽃잎을 일기장갈피속에 감춘 다음 사연을 읽어내려가는 처녀의 얼굴엔 웃음이 피어나는가 하면 심각한 빛이 어리기도 했다.

사연인즉 미처 공을 세우지 못해 소식이 늦어진 했지만 떠나는 날 접중화꽃다발을 안겨준 처녀를 한순간도 잊은적이 없다는것, 잊지 않기 위해서 그때 그 꽃다발에 피었던 꽃잎을 뜯어 복수기록장속에 끼워두었는데 편지속의 꽃잎도 그중의 하나라는것, 맛받아 육박해오는 적땅크의 배밀으로 수류탄뿜음을 안고 뛰어들 때도, 겹겹으로 둘러싼 적들의 포위를 뚫고 벼랑산을 톱아넘을 때도 언제나 접중화꽃다발을 생각했다는것, 한것은 그 꽃다발이 해방의 날 아버지가 들려준 말과 함께 고향 사람들과 동료들의 부락을 상기시켜주곤했기때문이라는것이였다.

처녀는 행복하였다. 그는 뜻없이 안겨준 자기의 접중화꽃다발이 병사의 장수힘이 되어 적땅크를 다섯대나 까부시고 불쏘는 화구를 막아 아군의 진격로를 개척한 위훈을 학우들과 마을사람들속에 소리높이 제일처럼 자랑하였다.

그러나 그는 벌써부터 써놓았던 편지를 병사에게 보내주지는 못했다. 회답을 기다린 병사의 심정을 몰라서가 아니였다. 그를 기쁘게 해줄만한 일을 한것이 없었던것이다. 이튿날 그는 전선으로 떠나갔다. 병사처럼 조국 위한 성전에 한몸바쳐 싸우고싶었던것이다.

그가 병사에게 접중화꽃잎을 넣은 편지를 띄운것은 불타는 야전병동에서 수십명이나 되는 부상병들의 생명을 구원해낸 그날이였다.

그때로부터 소식이 이어진 둘사이엔 때로는 자주 때로는 드물게 편지가 오고갔는데 그때마다 편지속엔 새로운 위훈에 대한 소식과 함께 서로의 복수기록장속에 고히 간직해두었던 접중화꽃잎이 들어있곤 했다.

《어머니, 인젠 그만하세요.》

나는 새날이 밝아오는줄도 모르고 막혔던 보물이 터진듯이 끝날줄 모르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중동무이했다.

그 귀중한 이야기를 더 듣고싶지 않아서가 아니였다.

스스로도 편지속의 접중화꽃잎을 볼 때마다 어머니가 왜 그리도 기뻐했는가를 추억의 갈피속에서 더듬어낼수 있었기때문이었다.

물론 이제는 추억이 아니라 추억의 희미한 그림자처럼 가뭇없이 사라져버린 일들이여서 다는 재생시킬수 없지만 멀지 않은 언젠가도 귀밑머리에 흰 서리가 내물리기 시작한 어머니가 저 내륙의 험한산상에서 보내온 아버지의 편지속에서 접중화꽃잎을 발견하고 어린애처럼 기뻐하는것을 나는 보았었다.

한번은 지금 온 나라의 관심속에 개발되고있는 XX광산을 발견했을 때였고 또 한번은 평양에 올라가서 세상사람들이 태양으로 우러러 받드는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았다는 소식이 적힌 편지를 보내온 때였다.

그러니 아버지는 만사람들이 행복을 즐기는 설명절인 래일도 또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에 보탬이 될 새 광맥줄기를 찾아 한평생을 인민을 위해 바쳐오시는 어버이수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리라. 그래서 어머니도 것처럼 기뻐하는것이리라.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회답을 쓰기 시작했다.

유치원 영예게시판에 사진이 나붙은 막내딸 옥금이에 대해서, 최우등성적증을 받아온 아들의 자랑, 그리고 자기가 말아보는 탐사마을병원이 2중천리마병원칭호를 받는데 대해서, 크고작은 자랑을 빠짐없이 썼다. 그다음 어머니는 귀중품함을 열더니 보물인 두꺼운 책갈피속에서 접중화꽃잎을 꺼내어 사연과 함께 봉투속에 넣는것이였다.

나는 어머니의 그 책갈피마다에 것처럼 많은 접중화꽃잎이 끼워져있을것을 그날 처음 보았다.

귀밑머리에 흰서리 내물리고 얼굴에 잔주름이 엉키기 시작했어도 언제나 청춘들처럼 로쇠를 모르고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에 보탬이 될 값있는 일을 하기 위해 일생을 살아가는데서 행복을 느끼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부러웠다.

새봄이 오면 정원엔 찬서리 내리는 마가을까지 급게 피어나며 씨를 여물구는 접중화가 또 피어나리라. 류달리 태양밝은 설날 아침에 나는 기뻐서 젊어질 아버지의 환한 얼굴을 그려보며 아버지에게 보내는 어머니의 편지를 체신소 앞벽에 걸려있는 우체통안에 넣어드렸다.



## 스승의 얼굴

한익훈

유학림 교수의 박사학위논문공개심사모임에는 학계의 권위있는 인물들이 많이 초빙되었다. 공업대학 강당으로 모여온 그들은 홀에 나가 회의 시간을 기다리며 담배를 태웠다.

담배연기가 푸름하게 서려도는 창문밖에서 부나비떼처럼 락엽들이 훑날리고있었다. 바람질이 세찬 늦가을 아침이었다.

때늦게 넓은 홀 입구로 보통키의 한 중년이 들어섰다. 후출근해진 회색코트, 손에 들린 러행용 가방 그리고 땀난 이마 한쪽을 덮으며 굵이쳐내린 윤택나는 곱슬머리... 언뜻 보아도 러로에 지치고 몹시 급해맞은 행색이다.

피로가 어려서 그런지 길쭉한 얼굴은 별로 날카로와보인다. 그래도 검고 큰 두눈은 순진하고 온화한 빛을 담고 그 누군가를 찾아 홀에서 휴식하고 있는 회의손님들을 일별하며 초조히 넘나들었다.

문득 연회색 대리석기둥에 허리를 붙이고 동그란 담배연기를 재치있게 뿜어올리던 키가 웅장한 사나이가 그의 조급한 시선을 붙잡았다.

《성주립이!》

그 사나이는 두팔을 짹 벌리고 지남석에나 끌린듯 급하게 달려왔다.

《최범규!》

순식간에 얼싸안은 두사람의 손과 손은 영영 풀려지지 않을것 같았다.

성주립 - 그는 지방과학원 분원에서 연구사로 사업하는 수학준박사이다.

최범규 - 그는 공업대학에서 교편을 잡고있는 수학부교수이다.

어제는 다정한 학우였고 오늘은 학계에서 가장 기대되는 젊은 학자들로 명망높은 두 벼의 상봉은 감격적인것이였다. 했으나 성주립은 이 시각 벼파의 상봉을 오래 끌수 없었다. 유학림교수를 빨리 만나야 하는것이다. 그래야 할 참으로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

《선생님이 어디 계신가?》

《2층 휴게실에 계시네. 어서 찾아가 축하해드리게. 나도 졸전에 만났었는데 대단히 흥분되어있더군. 아마 성주립이 찾아온걸 보면 선생님은 더없이 기뻐하실걸세.》

최범규는 짧은 상봉의 아쉬움도 잊고 혼연히 벼의 등을 떠밀었다.

성주립은 갑자기 온몸에 천근만근의 무게가 실리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최범규처럼 그도 축복

해주려고 교수를 찾는것이 아니였다...

성주립이 박사학위공개심사를 위한 유학림교수의 논문개요를 받은것은 지난달 초순이였다. 어찌면 제자가 스승의 논문심사에 관여하게 되었는데것이 믿기 어렵게 놀라운 일로 여겨졌다.

론문은 나날이 더 큰 고기배들을 무어내야 하는 우리 나라의 현실적요구에 비추어볼 때 실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항만구조물에서의 선대와 독크의 구조력학적문제를 새롭게 해명하고있었다.

내용의 논리가 정연하고 주장이 명백하였다. 남모르는 열정을 바쳐온 로교수의 고뇌가 갈피마다에서 값있게 번쩍었다.

그러나 새롭게 탐구된 리론의 정당성을 법칙으로 반증하는 구부림모멘트와 진단력을 계산하기 위한 미분방정식과 지반의 임의의 점에 대한 침하적분방정식을 비롯한 일련의 수학식은 선뜻 공감되지 않았다. 너무 복잡하고 선명치 않아보였다. 감히 훌륭한 리론을 어지럽히고있는 그 얼룩들을 말끔히 지워버리고싶었다.

하여 그는 스스로의 욕망을 안고 새로운 수학식을 탐구해보기 시작했다. 신통한 새 수식이 세워지지 않아 단념할 생각도 몇번이고 하였다. 때마다 스승의 수고로움에 대한 배신적인 행위로 여겨져 뱉서리치며 다시 달라붙었다.

량심의 충격은 끝내 좋은 열매를 맺어주었다. 스승의 논문에 유도된 수식을 몇분의 일로 축소할수 있으면서도 단순하고 명백한 새 수학식이 얻어 졌다. 스승과 사회를 위해서 보람있는 일을 해냈다는 남모르는 흥분이 환희롭게 가슴속을 울렁거리게 했다.

그는 당장 스승에게 보낼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 못가서 펜을 눕히고 잉크가 얼룩이진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불시에 불안한 생각이 갈마들었다. 새로 발견된 수학식은 결국 스승의 논문에 유도된 수학식을 부정하는것이였다. 애써 키운 제자가 스승의 존엄을 짓밟았다는 풍문이 학계를 떠들썩하게 할것 같았다. 믿는 도끼가 발등을 찍는다는 옛 속담이 심중한 의미를 띠고 생각되기도 하였다. 무엇인가 까닭없이 죄스러워지고 허전해지고 서글퍼졌다. 스승을 직접 만나 여쭙어보는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성주립이 유학림교수를 급하게 만나보려는 사연은 바로 이러했다. 그러니 벼이 말한 축복이란 의미가 여기엔 전혀 무관계한것이였다.

《땡... 땡... 땡...》

2층복도의 안침진 구석을 독차지한 대형시계가 여덟점을 응글게 때리고있었다.

성주립은 소스라쳐 놀라며 성급히 층계를 밟아 올랐다.

대뜸 2층 휴계실이 시야에 실리었다. 폭신한 긴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고 담배를 태우면서 몇몇 사람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이제 유학림교수의 박사학위논문공개심사를 주관하게 될 심사위원들, 그들에게서는 눈에 건 안경이며 목에 두른 굵직한 넥타이까지도 합부로 범접할수 없는 어마어마한 관록과 위엄을 내뿜는 듯 싶었다.

유학림교수는 두렵고 넉죽한 잎이 기름처럼 번들거리는 남방식물이 키를 솟군 진분홍의 커다란 화분을 등지고 침착하게 앉아있었다. 옷철이 반질 반질한 지팡이를 조그마한 주름투성이의 두손으로 꼭 누르고 그우에 뽀죽한 턱을 고인채 술많은 허연 눈썹이 드리운 우묵한 눈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덤덤히 듣고있는 교수의 모습은 몹시 수척해보였다.

성주립은 유학림교수한테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머리를 숙였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교수의 두눈이 엄숙하게 쏘프러지더니 이내 반가운 빛을 뽐냈다.

《성주립 동무로구만!... 오리라 믿었소. 어서 앉게.》

성주립의 팔을 당기어 옆자리에 이끌던 교수는 갑자기 어깨를 살구며 발작적인 기침을 낚았다. 오래전부터 가지고있던 천식증이 로년에 와서 더 심해진것이나 아닌지도 몰랐다.

뒤통수에 웅크로 남아있는 백설의 머리, 전에 없이 몸에 묻어다니는 지팡이, 기침에 시달려 힘겹게 오르내리는 좁은 어깨... 성주립은 언뜻 너무나도 사정없이 흘러가는 세월에 대한 야속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한참후에야 가까스로 기침을 멈춘 교수는 손수건을 꺼내서 입술을 닦고 눈물이 솟은 시선을 들었다.

《빈구석이 많은 논문을 받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는지 모르겠소.》

성주립은 교수가 자신의 내심을 환히 들여다보는 것 같아 몹시 당황해졌다.

《아닙니다,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망결에 덧붙였다. 《오늘 정말 기쁘시겠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고마우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대해같은 은덕으로 이 로쇠한 늙은이가 오늘 박사학위심의장에 나서는구려!》

교수는 눈가에 부채살같은 잔주름을 모으고 성주립을 찬찬히 건너다보았다.

《더 할 말이 없나?》

교수의 두눈은 이렇게 묻는듯싶었다.

성주립은 어쩐지 속이 불안하고 초조해졌다. 지향한 일이 막혀버린 때처럼 피로운 일은 없는 것이다.

성주립은 자신이 찾아온 목적의 백분의 일도 달성할수 없다는것을 의식했다. 70고령에 이르러 박사학위론문을 심의받는 교수의 양양된 심정을 어찌 감히 흐려놓을수 있단말인가.

그러구보니 찾아온 자신의 걸음이 그지없이 망랑했고 목적을 잃고 그냥 앉아있어야 하는 순간순간이 여간만 지겹지 않았다. 하기에 성주립은 회의시작을 재촉하는 종소리가 다급히 울리었을 때 순간이나마 그 종소리가 구원의 손길처럼 반갑게 여겨졌다.

× ×

강당안은 물을 뿌린듯 조용하였다.

사람들은 기침을 깃어도 손으로 입을 가리고 소리를 덜 내려고 애를 썼고 뒤늦게 자리를 찾아갈 때에도 될수록 발끝걸음을 사뿐사뿐 옮기었다.

드디어 학위학직수여위원회 위원들이 자리를 잡고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였다. 이어 맨 앞자리에 앉았던 유학림교수가 지팡이로 마루바닥을 툑툑 울리면서 연단으로 나갔다.

벗어진 높은 이마에 눈부신 불빛이 동그랗게 떨어져 번쩍거렸다. 년로에서 오는것인지 가방에서 문문을 꺼내여 연탁우에 펼치고 돌보기를 쓰고 하는 교수의 한동작한동작은 매우 굼뻤다. 지루하게 천천한 그의 움직임은 오히려 권위있는 로교수의 침착성과 위풍을 돋우어주는데 어울리는듯싶었다.

유학림교수는 수학적학분야에서 무시할수 없는 쟁쟁한 존재였다. 하나 그는 20여년전에 준박사학위론문을 통과시킨후 지금까지 제자들을 키우는 일에만 전념해왔다. 그의 손에서 키워난 제자들가운데는 벌써 학계를 놀래우며 등장한 이름있는 박사, 준박사들이 많았다.

친지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에게 박사학위론문을 제출할데 대하여 권고하였다. 교수는 그들의 진정을 고맙게 받아들이면서도 제가 키워낸 제자들이 주체과학발전에 큰 기여를 하면 그것 역시 자신의 발전이고 성과라고 대답하곤했다.

교수는 자신이 준비하던 탐구된 문제를 여러번이나 제자들의 졸업논문작성에 스스로없이 내여 주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그것은 사실이였다. 그가 고령에 이르도록 박사학위론문을 준비하지 않은것은 친지들속에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되어

왔었다. 그랬던 교수가 70고령에 이르러 소문도 없이 항만구조물분야에서 절박한 해명을 바라던 구조력학적문제를 새롭게 내놓은것이다.

유학림교수는 논문의 간단한 개요를 피력하고 나서 커다란 칠판앞으로 다가가 마주섰다. 잠시 생각에 잠겨져있는듯싶더니 오른손 팔소매를 천천히 걷어붙이고 백묵을 들었다. 씹없이 칠판을 두드리는 백묵소리가 봄날의 락수물소리처럼 정숙한 강당안에 다감한 정서를 불러일으켰다.

성주립은 간절해지는 마음으로 교수의 조그마한 손끝을 지켜보았다. 달리 되었으면... 달리 될 수도 있다... 달리 되어야 한다... 조금한 기대속에 가슴은 몹시도 불안하게 뒤설레었다.

어느새 복잡하고 까다로운 수식이 칠판 하나를 모조리 삼켜버렸다. 앞자리에 앉았던 두사람이 눈치있게 새 칠판 하나를 맞들고 들어왔다. 유학림교수는 그새 칠판도 절반남짓이 복잡한 방정식들로 촘촘히 채우고서야 백묵가루가 하얗게 묻은 손을 가볍게 털었다.

만장의 박수가 전례를 깨고 일었다. 사람들은 토교수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것이였다.

그러나 성주립은 기대한 념원을 성취하지 못한 실망감으로 하여 마음이 무거워졌다. 조금도 변치 않은 그 얼룩의 수학식들이 그대로 칠판가득히 실리지 않았는가.

한사람의 수학교수와 또 한사람의 력학박사(그는 유학림교수의 제자였다.)가 연락으로 나가 열렬한 지지토론을 하였다. 의장은 회의참가자들에게 반대의견도 기탄없이 제기할 언권을 부여하였다.

그 누구도 의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의장은 득의만면하여 안경을 건 얼굴을 연신 끄덕이였다.

성주립은 운문의 피가 머리로 솟구치는것 같았다. 그 훌륭한 논문이 미흡한 약점을 가지지 못한채 세상에 선포되어야 한단말인가?...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순간, 교수한테 미리 편지를 띄우지 못한 후회와 찾아갔으나 한마디의 의견도 여쭙지 못하고 돌아선 일이 가슴을 아프게 허비였다. 했으나 벌써 후회는 때늦은것이였다. 양보할수 없는 불퇴의 선에 이른 자신이였다.

의장의 입에서 《좋습니다. 의견이 없다면...》하는 말이 떨어질무렵에 성주립은 제스스로도 믿어지지 않는 힘에 떠받들리어 튕겨나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니, 저...》

일시에 온 강당의 시선들이 번뜩이며 그에게로 날아들었다. 이마가 뺏뺏 달아오르고 가슴이 활랑거렸다. 무엇때문에 급하게 일어섰던지 그자신도 얼른 생각나지 않았다.

돌맞은 수면처럼 장내는 술렁거렸다. 그것은 점점 커지며 성주립의 머리를 뒤죽박죽으로 휘저어 놓았다.

《좋습니다. 의견이 있다면 어서 나오십시오.》

의장은 손바닥을 땀시있게 펼쳐보이며 연락쪽으로 눈짓했다.

어떻게해서 연락쪽으로 시선을 보내던 성주립은 그만 자리에 주저앉을번했다. 허연 눈섭밑에서 번쩍이는 충혈진 유학림교수의 눈길과 부딪친 것이였다. 그 순간에야 성주립은 자신이 지나치게 흥분되어있다는것을 의식했다.

《아니... 됐습니다.》

그는 헤덤비며 일어설 때처럼 급하게 자리에 털썩 앉아버렸다. 장내에 가벼운 웃음이 일다가 이내 사그라졌다.

성주립은 앞사람의 어깨너머로 한숨을 내뿜며 불안한 시선을 들다가 흠칠 놀랐다. 또다시 유학림교수의 시선이 그의 눈길을 붙들었다. 찌르는듯 예리한 그 눈길에서는 절절한 질책의 불꽃이 튀기고있었다. 내심의 세계를 속속들이 꿰뚫어보는데싶어 성주립은 숫제 머리를 떨구어버렸다.

다행스럽게도 의장이 휴회를 선언하였다.

×

넓은 홀은 담배연기로 흐려지고있었다. 성주립은 외진 구석의 긴의자 한쪽 모퉁이에 머리를 푹 떨군채 앉아있었다.

좀전의 흥분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 일어섰다가 앉아버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그 누구나 순간의 착각으로 여길것이다. 거품처럼 일었다가 사그라진 웃음의 파문이 그것을 증명한다.

옆에 앉았던 최범규는 휴회가 선언되자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소리내며 웃었다.

《이사람, 졸았됐나? 왜 그리 웃겨.》

성주립은 멧적은 행동까지 초래하게 된 말못할 사연의 전말에 대해서 벗에게 솔직히 고백하였다. 졸지 않았다는것을 리해시키려는것이 아니였다. 행하지 못한 사연을 그대로 가슴에 묻어두기에는 어떤지 불안하고 피로왔다.

최범규는 그의 손을 꼭 부여잡았다.

《그랬됐구만, 미리 선생님께 말씀드렸을걸 그러지 않았나?... 그러나 스승을 위해서 참아낸것은 잘한 일 같네.》

만약 자신이 아까 일어선대로 행동했다면 친근한 벗이 무엇이라고 말했을것인가는 명백하였다. 자기의 앞일을 퇴위준 은사에 대한 태도가 그제 다냐고 준렬히 질책했을것이다. 그리고 귀중한 우정에 돌이킬수 없는 금이 가게 되었을는지도 모른다.

아침에 최범규는 이렇게 말했다.

《아마 성주립이 찾아온걸 보면 선생님은 더없

이 기뻐하실걸세.》

그는 정당하게 말한것 같다. 정녕 오늘의 자기를 위해 얼마나 진정을 기울여온 유학림교수였던가!

문득 발작적인 기침이 터지는바람에 눈물이 그렇게진 움푹한 눈으로 근엄하게 쏘아보는 유학림교수의 모습이 떠올랐다. 까딱않는 그 날카로운 시선에 성주립은 자기 몸 어느 한부분에 구멍이 뚫리는것 같았다.

이것은 순간에 떠오른 환각이 아니라 잊혀질수 없는 대학졸업전야의 어느 한 겨울날에 새겨진 유학림교수의 고결한 모습이었다.

...아늑한 방안에 두사람이 마주앉아있었다. 좁은 어깨에서 털외투가 미끄러져내릴세라 추슬러올려 목에 꼭 감싸쥐고 논문의 갈피갈피를 유심히 뜯어보는 늙은이는 며칠전부터 감기에 걸려 출근하지 못하고있는 유학림교수였고 그 맞은편에 조각처럼 꼳꼳이 앉아있는 학생은 극도의 긴장과 조급성에 사로잡힌 성주립이었다.

초조한 시간은 너무나도 더디게 흘러가고있었다.

론문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나서 유학림교수는 갑자기 기침을 짓었다. 오래전부터 신고하는 천식증이 또 발작한 모양이었다.

성주립은 교수가 흥분했음을 알았다. 대체로 교수는 흥분하면 이렇게 천식증이 발작하는것이였다.

세차게 오르내리는 좁은 어깨우에서 털외투가 미끄러져내렸으나 교수는 의식하지 못하는것 같았다. 한동안이나 기침으로 고역을 겪고난 교수는 눈물이 그렇게진 시선을 들어 성주립을 건너보았다. 깊은 눈확에 그들을 던지며 앞으로 뻗친 눈섭이 꿈틀거리였다. 성주립은 상서롭지 못한 예감을 안으며 눈길을 떨구었다.

《나는 동무의 논문이 마음에 들지 않소.》

교수는 나직이 말했으나 성주립은 와들 놀랐다.

언제인가 본문에 취급할 내용분야를 토론할 때도교원인 유학림교수는 한번 해볼만하다고 하였고 논문초안을 본 동무들은 진심으로 부러워하기까지 했다. 하여 성주립은 내심 건딜수 없는 치하와 격려의 희한한 순간을 은근히 기대했던것이다.

《동무의 논문은 이미 남들이 탐구한 문제의 범위를 크게 벗어못났소. 백보 양보해서 생각해봐도 과학의 첫걸음을 떼는 사람에게 있어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요.》

조용히 뇌이는 교수의 말마디들은 차갑고 뾰죽한 송곳처럼 성주립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때늦은 후회의 야릇하고 불안한 감정이 지긋게 물밀어들어 성주립은 머리를 들지 못한채 교수의

방에서 물러났다. 다시 교수의 저택으로 찾아들 날이 있을것 같지 않았다. 정녕 다시 올수 없다는것은 건딜수 없이 서글픈 일이었다.

허둥지둥 대학 기숙사에 돌아온 그는 온밤 한쪽벽을 마주하고 누워 눈을 붙이지 못했다. 절망감에 모대기며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새에 함박눈이 펄펄 쏟아지는 새벽하늘이 신비롭게 창문에 드리워졌다.

성주립은 잠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호실을 나와 계단을 내리며 기숙사문밖에 나서니 눈내리는 새벽의 맑고 찬 공기가 흐리터분하던 머리를 개운하게 가져주었다.

《주립학생!》

등뒤에서 낮익은 음성이 조용히 울리었다.

돌아선 성주립은 아연해져서 《아!》 하고 탄성을 지르고는 그 자리에 못박혀버렸다.

현관의 희미한 불빛아래에 병으로 외출이 금지된 유학림교수가 두발을 눈속에 묻은채 서있는것이였다. 목에 두른 수건이며 덮개를 내린 털모자, 깃을 올린 외투의 어깨며 할것없이 하얀 눈을 들쓰고있었다. 오래동안 와있은것이 분명하였다.

《선생님!》

성주립은 웬일인지 목이 짹 잠겨졌다.

교수는 성주립의 두어깨를 짚고 그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눈에 피발이 섰구만.》

성주립은 울먹이며 부르짖었다.

《선생님, 전 그 논문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음?!... 음.》

교수는 생각깊은 얼굴을 끄덕이였다.

《오늘 우리 집에 와줄수 없겠소?》

성주립은 갈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갔다.

유학림교수는 성주립이 쓸 논문의 새로운 내용을 토론해주었다. 그것은 성주립을 기쁘게 했다.

론문은 비상하다고 할만치 성공적인 결속을 보았다. 대학문을 나서면서 성주립은 그 논문의 덕분으로 수학준박사학위를 받았던것이다...

최범규가 떠들썩하며 달려드는바람에 성주립의 생각은 가뭇없이 흐트러졌다.

《우주의 한끝에 이렇게 박혀있었으니 유학림교수가 못찾을수밖에. 아까 동무가 일어선것을 상상치 않게 여기시더군. 그래서 솔직히 털어놓고 말았네.》

《...?!》

성주립은 놀라운 시선으로 벗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선생님이 얼마나 놀라와하셨는지 동무는 상상도 하지 못할걸세. 새로운 발견처럼 대견해하셨어.》

그리고 최범규는 성수가 나서 이쪽의 손을 잡

아 일으켰다. 《어서 가보게. 회의가 다시 시작되기 전에 꼭 찾아달라더군. 1층 휴게실에 혼자 계시.》

성주립은 기뻐다. 꿈같은 일이었다. 마음을 옥죄이던 불안과 피로움이 일시에 덜어지고보니 웬 까닭인지 눈시울이 후두워졌다. 그는 만시름을 털어버린 가벼운 걸음으로 유학림교수를 찾아갔다.

휴게실문은 반쯤 열려있었다. 발길한 꽃들이 오구구 뭉쳐 매달린 화분의 꽃가지에서 떡잎을 따주고있는 교수의 침착한 손길이 들여다보였다. 성주립은 가볍게 문을 두드리고 방에 들어섰다. 《왔구만, 어서 앉게.》

좁안에 든 떡잎들을 재털이에 털어버리고 교수는 눈길로 의자를 가리켰다.

성주립은 조심스럽게 교수의 건너편 긴의자 한 끝에 몸을 물었다.

《임자가 발견한 새 수학식들에 대해서 들었소. 최범규동무의 말에 의하면 임자가 아까 그래서 일어섰더군요.》

저력있는 어조로 마디마디를 힘들게 떼던 교수는 웬일인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엄숙한 음성과 무거운 한숨에서 성주립은 교수가 못마땅해한다는것을 감촉하였다. 좀전만 해도 그 어떤 환희로운 순간을 기대하였던 자신의 꿈은 어리석은것이였다.

웬일인지 강당에서 마주섰던 교수의 쏘는듯한 시선이 눈앞에 번쩍 다가들었다. 속이 철렁하였다. 끝내 무사치 못하겠구나!... 불안한 예감이 와락 가슴속을 휘저었다. 스승에게 도전한 제자, 스승의 가슴에 가혹한 심적타격을 안긴 제자... 당장 학계가 떠들썩할것이다. 돌이킬수 없는 이 엄청난 사태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견디어낼지 알수가 없었다. 심심히 우려한 그 순간이 끝내 이렇게 닥쳐올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가슴을 옥죄이는 침묵이 한동안 답답하게 흘러가는 가운데 문득 교수가 혼자말처럼 조용히 뇌였다.

《이 순간에 어떤 일인지 난 먼 어제날의 일이 떠오르네. 눈이 몹시 내리는 어느 겨울날아침에 임자는 내앞에서 애를 써서 작성한 졸업론문을 포기 해버리겠다고 부르짖었지. 그 량심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준 충격은 자못 큰것이였네.》

무엇때문에 교수가 마음피로운 이 순간 먼 어제날의 일을 추억하는것인지 그 까닭은 알수 없었다. 하지만 교수의 마음 한구석에도 어느 겨울날 아침 일이 감회로운 추억으로 남아있다는것이 성주립에게는 어쩐지 고맙게 여겨졌고 팽팽히 긴장되였던 마음이 어지간히 느긋해지기도 했다.

눈내리는 새벽하늘이 신비롭게 걸려있는 창문, 휘벗한 현관등의 불빛, 그아래에 두발을 눈속에

깊이 묻고 서있는 병약한 교수의 모습... 잊을수 없는 추억의 다감한 토막들이 언뜻언뜻 눈앞을 스쳐지나가면서 가슴을 뿌듯하게 하였다.

순간 성주립은 아직까지 교수에게 간절히 하고 싶었던 말을 가슴속에 그냥 묻어두어온 자신을 놀랍게 의식했다. 사실 그는 학계에 나선 먼 후 날에야 자신의 졸업론문주제가 스승이 오래동안 탐구해오던것이였음을 알았다. 어떻게 감사한 마음을 표했으면 좋을지 알수가 없었다.

성주립은 그 일을 뜨겁게 상기하며 진심으로 스승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교수는 눈살을 찌프리며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명예가 누구에게 차례지는가 하는것이 중요한게 아닐세. 주체과학연구사업에서 누구든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렸다면 우리 과학자모두의 명예로 되는걸세.

그때 난 자기의 보람이 깃든 논문을 대담하게 포기해버린 임자가 못내 미더워서 그 논문주제를 선뜻 내주었뎡데. 부질없는 일이 아니였어. 임자는 끝내 해냈거던.》

교수의 말은 의미심장하게 성주립의 가슴속을 파고들었다.

서운해하는 표정으로 교수는 말을 이었다.

《그러나 임잔 과학앞에 확실히 성실치 못한것 같네.》

성주립의 신경은 다시 바늘끝처럼 날카로와졌다.

《훌륭한 새 수학식을 발견해놓고도 체면에 잡혀 앉아버리다니... 이런 분한 일이 어디 있나말 일세.

난 임자네들이야말로 과학앞에 성실하리라고 믿었뎡네. 굳이 믿었지. 그런데 오늘 보니 아니거던... 내가 임자를 찾은건 바로 이때문일세.》

교수는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탁상우를 신경질적으로 두드리었다.

(아니, 그럼?!...)

너무나도 돌변한 현실이 꿈처럼 믿어지지 않아 성주립은 어리둥절해졌다.

교수의 불만은 결국 자신이 일어난대로 행동하지 않은데 있는것이 아닌가. 변덕스런 소낙비가 한차례 세판게 쏟아진 뒤처럼 가슴속이 허전해왔다.

교수는 이윽히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다가 흠칠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시간이란 참... 용서하게. 회의가 다시 열리기 전에 학위학직수여위원회 위원들을 좀 만나야 하겠기에...》

그리고 교수는 지팡이를 찾아들고 원탁이 놓여있는 창문가로 걸어갔다. 원탁우에는 교수의 접이 가방과 문서철들이 있어있었다.

무슨 일로 학위학직수여위원회 위원들을 찾아 간다는것인가?... 접이가방속에 문서철들을 침착히 주어넣고있는 교수의 허리굽은 모습을 지켜보느라니 성주립은 불안감이 휩싸여들었다.

교수가 등지고 선 창문밖에서는 세찬 늦가을바람이 몰아치고있었다. 락엽들이 휘뿌연 허공에서 어지럽게 흩날린다. 그 사이로 참새 한마리가 내던진 돌덩이처럼 무겁게 날아간다. 늦가을은 이리도 푸접없고 쓸쓸한 계절인가. 성주립은 자신의 마음이 한갓 자연의 변덕에 휩쓸려 때없이 허전해지고 피로와지는것이 아님을 알았다. 진정 일이 심상치 않았다. 인생의 늦가을에 이른 로 교수가 행여 차례진 명예를 너무도 선선히 물리쳐버리려는것이 아닌지도 모른다. 아니, 유학림교수는 그런 용단을 내릴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수가 돌아서서 지팽이를 내짚는 찰나 성주립은 덤벼치며 무작정 교수의 앞을 막아섰다.

《선생님, 꼭 가셔야 하겠습니까?!》

교수의 얼굴에는 태연한 웃음이 피어올랐다.

《가야 하네. 논문은 웅당 재검토되어야 하거던. 임자가 발견한 새 수학식들은 논문을 더 심화시킬수 있는 유리한 공간을 마련해준 셈일세.

겸해서 말하네만 평생 과학앞에서는 우리모두가 언제나 성실해야 한다는거네. 때로 마음피로운 일에 맞닥들더라도 과학자적량심을 잊어서는 안되는것일세.

량심은 곧 진리고 진리의 힘은 가장 위력한것이네. 그 힘이 아직 임자에겐 부족한것 같아. 임자는 일어섰다가 앉아버렸거던.

이 늙은이의 체면을 깎아내리는것이 그렇게도 두려웠단말인가, 예끼 이사람》

교수는 불시에 몹시 즐거워져서 소리내어 웃으며 성주립의 어깨를 칠씩 두드리었다.

《이런 훌륭한 새 발견으로 나를 깨우쳐준다면

그거야 천백번 자랑스러운 일이지. 자, 그럼.》

교수는 성주립의 어깨를 다정히 짊어주고 걸음을 옮겼다.

성주립은 어쩐지 목안이 콕 잡겨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스승의 걸음을 멈춰세우지 못하는 자신이 조금도 놀랍지 않았다. 막아나서기에는 너무나도 높고 숭고한 세계가 한가슴을 울리며 뜨겁게 소용돌이쳤다.

자신의 존엄에 가슴아픈 손상을 입은 순간에도 제자의 성과를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티끌만한 미련도 없이 논문의 보류를 제기하려고 성급히 떠나가는 유학림교수,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교수는 제자를 참다운 길로 이끌어주고 있었다.

이 순간 성주립의 가슴속에서는 여전하구나! 하는 경탄의 목소리가 세차게 울리었다. 진정 교수의 모습은 지팽이에 몸을 의지한 병약한 늙은이가 아니라 그 어떤 이름할수 없는 웅심깊은 세계를 간직한 거인의 모습으로 숭고하게 안겨오는 것이었다.

교수는 잣게 지팽이를 내짚으며 2층 층계를 오른다. 높고 긴 층계에 반나마 가리운 창문너머로 늙은 느티나무가지들이 엇비스듬히 내다보였다.

세찬 바람질에 옷초리들이 간단없이 흔들리고 사선으로 흩날리는 락엽들이 창유리를 한가득 채워버린다. 그런 한순간이 지나고 잠시 바람이 잠자면 묵은 잎들을 시원히 털어버린 느티나무가지들이 사슴빨같이 역세여보이고 자랑스럽게 여겨진다. 한겨울을 이겨내고 새봄이 오면 저 선명한 가지마다에 깨끗하고 싱싱한 잎들이 새파랗게 자라서 끝없이 설레일것이다...

어느덧 유학림교수의 허리굽은 모습은 층계에서 가뭇없이 사라져버렸다. 대리석바닥을 울리는 지팽이소리만이 성주립의 마음속을 쿵쿵 울리며 푹푹히 들려왔다.

## 가사

# 주체의 기치높이 3대혁명 다그쳐가자

김정호

힘찬 진군의 발구름  
하늘땅 올려라 심장 불탄다  
조국강산을 빛내이며  
자연도 사회도 개조해간다

아 수령님의 손길따라  
주체의 기치 높이 3대혁명 다그쳐가자

용맹떨치며 앞으로

승리의령마루 우릴 부른다  
영웅조선의 기상을 안고  
총진군 대오는 굽이쳐간다

후렴

폭풍 헤쳐온 천리마  
속도전 불바람 일으켜간다  
우리 가는 길에 영광 빛나라  
찬란한 미래를 앞당겨가자

후렴

# 황금산기슭에서

유국진

바로 이 길이였구나

전쟁이 승리한 이듬해 여름

우리 수령님

몸소 헤치시며 열어주신

황금산 기슭의 초행길은

바라보니

산열매 알알이 주렁저

설레이는 저 높은 산발들은

황금빛을 뿌리며

그날의 그 사연 속삭이는가

산이 높아 못산다고

세월의 버림을 받아오던고장

가난의 흔적을 채 벗지 못한

두메산촌 창성의 약수골

그래서 산촌길을 가시여도

우리 수령님

제일먼저 찾아주신 창성땅

외로운 막바지 이름없던 약수골

수령님께서 먼길을 오셨다고

인사를 드리는 발벗은 아이들을

자애로운 한품에 안으시고

말없이 마당가를 거니실 때

남창천 여울목도 흐느끼며 흘렀지

산골마을 생활을 두시고

그리도 걱정하시며

지새이신 그 이른새벽

몸소 험한 산발에 오르시여

산세를 일일이 헤아려보신 아버지수령님

그 어디나 주렁진 머루, 다래, 산열매...

집집승먹이풀도 넘쳐나니

이 산들이 전부 돈이라고

농민들과 기쁨도 함께 나누시며

황금산의 새 역사를 펼쳐주신

위대한 아버지사랑이여

그 사랑 받아안고

산마다 골마다 주렁진

사랑의 열매

시원한 단물이 되고

바라보면

문지령 비레봉 저 산정 넘어

아득히 뻗어간 조국의 산발들

창성의 산발들이 련련히 이어져

내 조국땅은 그 어디에나

풍요한 강산으로 빛을 뿌리누나

아 축복받은고장이여

창성이여

너는 우리 수령님의 손길이 안아올린

보화의 메부리

너는 이 나라 모든 산발들을 거느린

황금산의 주봉

창성이여

위대한 전변의 역사를 빛내며

길이 빛나라

이 나라 강산을 행복의 락원으로

문명의 상상봉에 안아올린

사랑과 은덕의 대기념비로!

# 창성의 메아리

-창성련석회의 20돐을 맞으며-

최정용

산은 산마다  
무르익은 산파일  
끝은 끝마다  
취할듯 풍겨오는 단향기

강냉이숲 설레는  
다락발을 굽이 돌아  
산정에 오르니  
이 산 저 산 메아리쳐오누나

산열매 따들이는 처녀들의 노래소리  
황금열매 싣고 령을 내리는  
뜨락또르의 은은한 동음소리...

아, 가슴에 젖어와라  
계곡을 울리는 맑은 물소리에도  
수령님 걸으시던 그 나날의 발자국소리  
빨강게 타오르는 나무숲에서도  
황금산을 불러주시던 자애깊은 그 손길

저기 깎아지른 벼랑을 덮으며  
퍼져오르는 머루, 다래숲은  
수령님 앞장서 헤치시던  
그 덤불숲이 아닌가  
진정 그 얼마였던가  
세상에 버림받던 이 산촌을  
락원으로 꽃피우시려 몸소 걸으신 산길은  
산골사람들은 산을 잘 리용해야 한다고  
일깨워주시며 지새이신 밤은...

못잇을 사랑의 그 해빛을 안고  
나무도  
열매도  
산도 보화의 이름으로 빛을 뿌리고  
그 사랑의 해빛아래  
쉽없이 울리는 지방공장의 기계소리  
령 넘어 흘러오는 꽃배스의 경적소리  
기쁨의 노래되어 울리는 창성!

산이 높고 골이 깊어  
못사는줄 알았더니  
수령님 뜻으로  
황금산 보화산은 높이 솟아  
복을 안고 살아가는 창성이여

여기 태어나는 아이들의 고향  
황금산이라 부르며  
자라는 새세대의 일터를  
황금산에 펼쳐주며  
어버이수령님 은혜로운 사랑으로  
나날이 높아가는 행복의 음향이여

아, 산에 산마다  
끝에 끝마다  
노래처럼 흥겨운 산촌의 메아리  
공산주의 밝은 미래도 여기서 바라보며  
세세년년 온 강산에 울려 퍼지리라  
영원한 창성의 메아리여!



## 수령님의 푸른 수첩

송명근

함박눈 내렸네 송이송이 소리없이  
수령님은 서계셨네 눈덮인 논둑길에  
분조장 처녀가 삼가 올리는  
그 대답, 그 수자  
활달한 글씨로 적어넣으셨네  
푸른 수첩에

해보겠단말이지, 정당 열두툼이라...  
대견하시여, 기특하시여  
만년필 꺼내들고 계산도 해보시며  
이 새 수자속에  
청년분조 새세대의 모습을 보고싶다고  
차를 타시려다 다시 더 한번  
웃으시며 들어보이셨네, 푸른 수첩

향긋한 꽃바람이 들에 실려도  
수령님 어깨우에, 수첩우에 내리던  
마음속엔 녹지 않는 그날의 눈송이...  
다정히 등을 두드려주시던  
그 손길의 따스한 온기...

지금은 그 어느 푸른 들길에서  
그 수첩 펼쳐보실가  
온 나라를 더 잘 먹이고 더 잘 입히실  
하많은 생각속에  
이른새벽 정원을 거니시며 펼치실가...  
처녀의 마음속 갈피갈피에 이어진

불길이 탄다  
불길이 밤을 태운다  
입김으로 불을 지피는  
청년분조장 처녀는 열아홉  
애어린 량볼도  
번지는 불빛에 빨갭게 익는다

금방 낸 뽕상모 어린 잎우에

아, 수령님의 푸른 수첩  
온 나라의 하늘을 번쩍 들어올릴  
풍년날가리!  
위대한 수령님 구상속에  
처녀가 올린 대답도 아직은 수자로 남아있어...

교실의 흑판앞에 얼굴 붉히며  
틀리면 또다시 썼다 지우던  
수학문제풀이의 그런 수자가 아니여라  
그것은 나라의 쌀독에 채워질  
그것은 지울수도 다시 고칠수도 없는  
청년분조원의 량심!

아! 그래서 처녀는  
이랑을 타고 가지 않아라  
처녀의 온 대지이며 포전인 그 수첩우에  
푸르른 벼포기를 가꾸고  
그것을 또 풍년이삭의 설레임으로 안아오고  
있어라

송이송이 함박눈 내려왔던 수첩에  
처녀의 진정으로 새겨진 그 수자!  
대지우에 금물결로 옮기기전에는  
지워질수 없어라 가슴속에서

아, 꿈결에도 펼쳐보는  
수령님의 푸른 수첩!

## 불길

때아닌 찬서리 덮쳐든 이 밤  
넓으나넓은 벌 천만포기  
한가슴으론 다 덮을수 없고  
처녀는 안타까와  
처녀는 안타까와

두렁따라 피워놓는 모닥불이  
허허 논벌을 어이 다 덥힐가마는

별에 타는 모닥불 모닥불에선  
처녀의 마음이 함께 탄다  
이 별에 내린 찬서리에  
실한 애기도 상할가봐  
당겨오는 풍년계절 늦어질가봐

그 마음 불씨가 되어  
청년분조원들 저저마다  
논배미마다  
지퍼올리는 불길, 불길...

논물에 꽃은 온도계야  
어서 또 한 눈금 오르려마  
늘어진 벼잎들아  
어서 논물을 차고 솟구쳐다오  
포기포기 안아 쓰다듬는 간절한 마음

저도 모르게 뺨으로 자꾸만 흐르는  
짹짹한 눈물을 입술로 감쌀며  
지피는 불길이

뺨우에 빨간 구슬알을 굴릴 때  
아는가 처녀야  
그 귀한 구슬들이  
알알이 풍년나락으로 맺힐것을  
온 나라의 기쁨으로 주렁질것을

온도계 눈금이 떨어지면  
수령님께 올릴 그 대답 그 수자가 떨어질가봐  
아, 울고싶도록 안타까운 마음이  
불! 불길로 논벌에 옮겨졌구나  
열아홉 처녀의 작은 가슴에 안겨진  
위대한 사랑의 숨결이  
온 대지를 덮히고 남으리니...

묻지를 말자  
논들을 안고도는 물길을 따라  
뽕우에 열풍을 따라  
오, 간절한 그 마음은  
어디로, 그 어디로 흘러가는가!

## 가슴 울렁이며 듣는 목소리

하나, 둘... 하늘의 별들이  
논물우에 내리여 꼬리를 짓고  
처녀는 홀린듯  
한밤을 논둑에 나앉았네  
벼포기와 속삭이네

천가지 만가지 아지치는 소리에  
잠 못드는 마음을 네가 알지, 벼포기야  
문득 가슴우에 손을 얹는  
내 마음도 네가 알지

순임이도 만날겸  
풍년가을엔 꼭 오시겠다고  
우리 약속하자고 하셨지  
아버이수령님  
수백의 청년분조 수만농군중에  
내 이름도 기억해두셨지...

글쎄  
이게 어떤 약속이나  
이게 어떤 믿음이나

내 기쁨아, 내 희망아  
우썸 또 한잎 빼어무는 벼포기야

아지치는 네 소리에 실려가는 생각의 시작은  
아지치는 네 소리에 피어나는 마음의 끝은  
수령님 만나뵈을  
행복한 약속의 그 지점에 닿아있어

잠 아니 오는 밤에도  
꿈이 아롱지는 밤...  
논고에 내린 별이 꼬리감출 때까지  
포기포기 아지치는 소리는  
천만포기 속삭이는 소리는

아, 아버지수령님  
누우런 이삭의 바다  
이삭의 물결 헤쳐오시는 소리!  
마주 걸어오시며  
순임이- 하고 불러주시는  
언제나 가슴 울렁이며 듣는 목소리!

## 처녀는 간다

왜 걸음 멈추었느냐 분조장처녀야

송이송이 흰눈 맞으시며

푸른 수첩 펴드시고

수령님 서계시던 그 두렁길우에

흐늘어진 벼이삭 뺨에 비비며

수령님 오신다고

수령님 오신다고

머리수건 벗어들고

언뜻, 비탈길 에돌아

온 마을이 달려가는데...

수령님 어서 보시라고

포전마다 파도쳐 일어서는 벼바다

넘칠듯 설레며

저 언덕길로 밀려오르는데

처녀야 너만이 이삭을 안고 섰구나

어서 아뢰야지

찬서리 내리면 네 숨결 온기로 보태어

바람 불면 네 가슴 나래로 덮어

가꿔낸 만풍년별이

네 마련한 대답이 아니냐

-수령님, 대풍입니다!

그토록 드리고싶던 그 한마디!

논두렁의 새벽이슬 구울리며

제일먼저 찍혀지던 작은 발자욱

달빛 안고 돌아오는 길엔

언제나 마지막으로 찍혀지던 네 발자욱

남모르는 그 마음이 교이고 넘쳐...

벼 한포기도 다 못쥐는 네 작은 손이

수령님의 크나큰 기쁨을 가꿔냈는데...

분조를 이끌어 분조의 앞장에서

온 한해 두주먹 부르짖고 달려온 너

이 시각만은

왜 선듯 나서지 못하느냐

청년분조 스무식구 다 앞세워놓고...

그리웁던 마음만 벌써 그이 품에 안기고...

오! 어버이수령님

알수를 세이시며 뿔아드신 벼이삭이

이 순간

저리도 환한 미소앞에선

아직도 가벼워...

수령님께 드릴 한마디 대답만은

처녀의 마음속에 여물지 못한것이였구나

아아, 네스스로 걸음을 멈춰세운

이 짧은 순간에

또 한치

네 마음도 키도 우뚝 자라는듯

.....

처녀는 걸음을 내어짚는다

못잇던 수령님 푸른 수첩에

더 높은 수자를 약속해드리고 싶어

처녀는 간다

한자욱... 또 한자욱...

스스로 정한 그 높이로 오르는 자욱

대지에 새긴다

# 전위의 길

변홍영

봄이 설레는 땅  
한껏 부푸는 마음 안고  
그는 걸어간다

쇠내에 절은 그 가슴에  
3대혁명의 해발을 안고 온  
혁명의 전위  
물씬 풍겨오는 흠내에 취한듯  
한줌 흙을 쥐여보기도 하고

기대소리 정다운  
공장길을 걷던 그 아침처럼  
갓낸 모들이 살랑대는 푸르른 들가  
반기듯 울려오는 발동소리에  
조용이 미소를 짓기도 하며  
그는 들길을 걸어간다

그 어느 발머리  
그 어느 두렁길에 들어서도  
수령님 오시여  
해빛으로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가꾸신 땅

일년 사시절 벌에 계시여  
우리 수령님  
찬이슬 찬비를 헤치시며  
그토록 마음 쓰시는 전선이기에

계급의 사명을 깨우치며  
우리 당이 불러준 이 초소  
시대앞에 전위로 세워  
당이 맡겨준 혁명의 한구역

크나큰 그 믿음을 새길수록  
삶의 희열이 차오르는 가슴으로  
그는 바라본다  
이제 벅찬 나날을 펼쳐갈 푸른 들판을

이고장에 짐을 푼 첫날  
갈아엮은 이랑을 밟던 저 논판에

어느새 모살이한 벼포기들이 설레이고  
첫대면에 허물없이 가슴터놓던 농장원들  
저기 푸른 이랑우에 기계를 몰아가거니

땅처럼 소박하고  
말없는 진정을 바쳐가는 저 사람들  
그들과 고락을 함께 할 투쟁의 나날은  
얼마나 풍요한 나락을 안고 솟아오를것이나

아, 더 좋은 래일의 지평선으로  
아득히 굽이쳐간 이랑들우에  
주체농법의 알찬 열매들은 주렁지고  
천년을 만년을 살표은 이고장에  
3대혁명이 만발한 락원의 봄은 일어서리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해빛 찬란한 그 앞날을 향해  
소조원은 걸어간다  
하늘가에 솟구쳐오른 종다리처럼  
가슴에 뛰노는 환희  
걸음걸음 뜨거운 생각을 안고

그는 간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치의 드림도 없는  
로동계급의 억센 의지와  
철의 신념을 안고 온 전위

계급의 큰 호흡과 숨결이 넘치는  
하나의 지붕아래  
우리 농촌의 새 모습을 일으켜세우기 위해  
세폭의 붉은 기치를 들고 나아가는  
전위의 길

아, 당이 가리킨 이 길우에  
한생을 바쳐 아쉬움 없을  
성스러운 위업이 있고  
수령님의 전사로 살아 빛내여갈  
가장 값높은 삶이 있어라

# 들길

량덕모

가슴헤쳐 소리치고싶구나  
푸른 벌의 상쾌한 이 아침  
농사군의 바지가랭이를 적시던 새벽이슬  
김매는 기계라고 헤치는 기쁨이여!

구내길처럼 트이지 못한 들길이어도  
3대혁명소조원 나는 좋다!  
내 이슬틴 기계자욱따라  
떠들며 나오는 농장원들을  
푸른 벌 한복판에서 맞을 때가

이 길에 나서면 세차지는 심장의 박동  
들바람에 실려오는 뜻깊은 음성이어  
이슬찬 어느해 새벽이던가  
이 들길 걸으시며  
쌀을 험히 생산해야  
먹는 사람 마음도 편하시던 우리 수령님

집채같은 쇠덩이도 스위치로 다루는  
우리 공장에 오시여  
그리고 만족해하시던 수령님 영상  
이 들길에서 다시 뵈웁는다면  
돌리던 기대를 넘겨주고 달려온  
내 기쁨 하늘가에 닿으리라

한지붕아래서 쇠내 기름내맡던 친구들  
하나같은 당부의 눈길 쏘려오는 길  
그들의 목소리, 걸음새를  
내가 다 안고 걷는 길

이 길이어라  
기술혁신 밤을 밝히는  
운전공처녀들 지혜를 틔워주었더니  
새로 고친 모내는기계 물고나오며  
나부터 소리쳐 부르던 길

아, 들길이어도 그저 길이 아니여라  
공장구내와 농장벌을  
어깨나란히 이어놓으려  
소조원이 앞서 열어가야 할 길

그래서 새벽잠 깨여 나갈 때도  
마음속 생각의 시작은  
이 벌에 더 높이 울릴 기계소리  
저녁노을 밝으며 돌아올 때도  
기계로 농사 다 지은 풍년벌  
수령님께 보여드리꽃은 생각뿐

무엇을 아끼랴 이 들길에서  
식지 않은 로속에 다투어 뛰어들던  
로동계급 정신이 내려치게 하리라  
듣지 못하면 잠들수 없는 기계소리  
저 마지막 논이랑까지 뒤덮게 하리라!

오, 수령님 바라심대로 쌀폭포 쏟아질  
그날을 당겨오는 들길  
농사군의 몸을 적실 땀과 이슬  
3대혁명 불바람속에 우렁찰  
기계의 동음으로 날려보내리라!

## 작은 마을

손권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 북변의 계절은 달력에서의 절기보다 훨씬 이른듯싶었다.

기차에서 내려 하루밤 신세진 읍려관을 나설 때만 하여도 수정강류역의 늦가을풍경을 한껏 관망해보리하던 유진의 기대는 가뭇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하류의 북적 끓고있는 부두에 장쾌한 고동소리를 남기고 출발한 려객선이 뜻밖에도 중도에 이르러 눈발속에 묻히고만것이다.

뿌연 공간가득히 사선으로 퍼붓는 눈발때문에 가뜩이나 흐름을 거슬러오르는 배의 기관소리마저 숨가쁘게 들려와 유진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다. 이런 번덕스러운 날씨를 미리 내다보고 여행을 미루었는지 길손은 객석의 반도 되나마나하였다. 선실안에 갇힌 그들은 널찍이 잡은 자리에 올려놓은 짐들에 기댄채 지루한 여행의 무료를 묵새기듯 덤덤히 앉아있었다. 어찌보면 그들은 저마다 깊은 생각에 골몰해있는듯이 보였다. 그 사람들속에 유독 유진만이 창밖의 흐릿한 풍경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멋부리기 좋아하는 한창나이의 두 청년이 짧은 솜의투의 목깃을 세운채 이 때아닌 강설의 정서를 독차지하기라도 한듯 아까부터 배전을 거닐며 무슨 이야기인지 신이 나서 나누고있었다. 마침 유진이 내다보는 창밖 란간에 와서 기대는바람에 아래로 넓게 퍼진 네개의 바지가랭이가 펄럭이며 눈앞을 가로막았다. 때아닌 방해로 당한 유진은 입맛이 쓴듯 돌아앉고말았다.

비록 늦가을이기는 하지만 기쁨속에 떠난 이번 여행길의 흥취를 한껏 맛보고싶어 일부러 배편을 택한 유진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침까지 멀쩡하던 하늘에 강설이 뽀얗게 뒤덮을건 뭐란말인가. 그랬으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그는 찌프렸던 눈을 들어 다시금 건너편 창밖으로 눈길을 던졌다.

상류로 오를수록 마을은 드물게 나타났다. 오직 강안을 따라 뻗어있는 실오리같은 전선줄들만이 어딘가 그 아근에 사람사는 마을이 있다는 표식처럼 두간두간 눈에 띄울뿐이다. 한데 사람이 남긴 그 자취는 태고연한 대자연속에 간신히 존재를 유지하고있는듯이 보였다. 그래서인지 런던아 막아서는 강굽이를 돌아 려객선이 상류로 톱아오를수록 유진에게는 어쩐지 지금 자기가 찾아가는 림토마을 역시 사람의 기맥과는 멀리 떨어진 한적한곳에 자리잡고있는것처럼 느껴졌다. 아

마 번덕스런 날씨만 아니던들 그의 기분을 이렇게 울적하게 만들지는 않았을지 모른다. 바로 유진의 이번 출장부터가 번덕스런 이상기후때문에 제기된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이상기후의 척후대가 일부러 자기에게 달려들어 꼴탕을 먹이려고 계정을 부리는것만 같았다.

동물학연구사인 유진은 우리 나라의 서북단류를 적시며 흐르는 수정강상류의 상평지구에 자리 잡고있는 자연보호구를 찾아가는길이었다. 그 자연보호구로 말하면 최근에 새로 설치된것으로서 우리 나라 서북지구의 동물들이 집결되어있는 유망한 대상지였다. 그런데 이상기후의 번덕으로 몇십년만에 처음보는 강추위를 몰아올것이 예견되어 자연동물들을 그 피해에서 보호할 대책을 세워야 했다.

동물들에게 있어서 겨울철처럼 지겨운 계절은 없다. 몇해전 어느 한 북부지구에서는 청서며 메토끼들이 적지 않게 얼어죽어 피해를 보았었다. 특히 청서는 먹이조건이 불리해지자 무리로 넓은 강을 헤엄쳐건넌것다가 그 대부분이 되돌아오지 못하였다.

예견되는 강추위와 관련하여 그와 같은 현상이 더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논의를 거듭하던 어느날 유진은 수정강의 물고기분포정형을 조사하던 한 연구사로부터 뜻밖의 편지를 받게 되었다.

그것은 림토마을 안개더기에서 무리지어흐르는 들쭈뼌을 발견하였다는 통보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안개더기는 하나의 들쭈뼌목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는것이다. 바로 림토마을목장 너기사가 그 들쭈뼌을 관리하고있는데 아쉽게도 그가 출장중이여서 만나지 못했다는것이였다. 그러니 8년전에 이곳 현지에서 연구론문을 쓴 유진이 (그 논문이 큰 은을 낸것만큼) 직접 내려와서 그 너기사를 만나는것이 어떤가 하는 자기의 생각을 덧붙였다.

유진에게 있어서 그것은 너무도 뜻밖의 소식이었다. 생각지도 않던곳에서 뜻밖에 날아든 기쁜 소식으로 하여 그의 심장은 터지는듯하였다.

림토마을! 이 네 글자는 유진의 머리속에서 가뭇없이 사라질뻔했던 추억을 불러일으키며 갑자기 소중한 그 무엇이 가슴에 되살아올랐다.

수림속에 묻혀 인적이 있는듯마는듯한 림토마을, 그 외판마을의 다락처럼 펼쳐져있는 안개더

기에 들쭉때가 무리지어 흐르다니!

림토마울은 8년전 대학을 졸업한 유진이 첫 연구의 나날을 보냈고장이었다. 그곳은 그로 하여금 과학자로서의 첫 자옥을 당당히 때도록 디딤돌을 마련해준 인연깊은곳이었다.

유진은 림토마울에 들리기로 결심을 하였다.

어쩌면 이번 기회에 또다시 학계를 뒤흔들어놓을 수 있는 가치있는 론문을 쓸 수 있으리라는 은근한 기대와 희망이 가슴속에서 부풀어올랐다.

때마침 연구소에서는 유진을 상평지구로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가던길에 림토마울에 들리도록 출장임무를 주었다.

문득 선실밖의 두 청년이 주고받는 말소리가 그의 생각을 깨쳤다...

《우리가 이 배를 타고 림토마울에 들리게 아마 작년 이맘때였던가?...》

《그래, 그때 박기사가아주머니가 부두에까지 마중 나왔었지, 오늘두 부두에 나와 기다릴는지 모르지...》

그들이 자리를 옮기는바람에 다음 말소리는 더 들려오지 않았다. 비로소 유진은 그들에게 이 배길이 처음이 아님을 깨달았다. 더우기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짹짹막막한 말마디들을 통하여 유진은 그 외진 마을에 인연을 가진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것을 알 수 있었다.

불현듯 한 처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옥림이라는 처녀였다. 뇌리에 상기해본지 오랜 모습이였다.

그윽히 명상에 잠긴듯한, 그러면서도 항상 무엇인가 묻는듯불라는듯하던 그 눈길, 그것이 무엇이라는것을 예감하였을 때 그는 이미 려장을 꾸려가지고 아무 미련도 없이 그 마을을 떠났었다.

꿀물을 타들고 달려왔던 땀에 뜬 그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했다. 정말 잊을수 없는 처녀였다.

그런데 그는 5년전에 시집을 갔다고 했지... 남편을 따라 어딘가로 이사를 간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있는지?

그러나 그의 모습은 강물위에 떨어진 눈송이들이 녹아버리듯 사라져버리고 다만 거칠은 복방의 자연을 이겨내고 번성해진 들쭉때가 지긋게 눈앞을 가로막으며 그 어떤 창조적공상속으로 그를 끌어들이는것이였다.

문득 그 누군가의 투박한 손이 그의 무릎을 건드리는바람에 그는 상념에서 깨어났다.

약간 허리를 굽힐사하고 마주앉아있던 두툼한 방한화를 신은 농장원인듯한 중늙은이가 그를 바라보고있었다.

《여보시오. 오늘 방송을 못들었수? 눈이 얼마 동안 내리겠다고 했는지?...》

유진은 그 농장원의 류별나게 두툼한 입술이

벌려진채 굳어지는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하였다.

《이거 잔치날 금수령이 막히문 야단아니웬까. 눈속에서 얼게 댔은즉...》

유진의 응대를 못받은 그는 푸념비슷이 혼자말을 늘어놓았다.

《아바이, 거 잔치날을 잘못 받았수다레...》

색바랜 솜동복을 입은 중년이 우스개소리로 받으며 능청스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눈이 이렇게 갑자기 올줄은 미처...》

농장원은 마침 구원자를 만난듯이 솜동복차림의 중년을 향해 실토정하듯 말을 이었다.

《글쎄 우리 둘째딸이 저 림토마울로 시집을 가지요. 우리 딸이 수의산지라 림토마울 너기사가 그 이름이 뭐라고 하던지... 글쎄 좌우간 그 기사가 우리 딸하구 자기네 목장 총각하구 약혼을 시켰지요. 그런데 내 이거 일사를 그르치지 않는지 모르겠수다...》

그제는 솜동복중년의 얼굴에도 동정의 빛이 깊게 어리더니 담배갑을 꺼내여 농장원에게 권하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거 정말 사정이 딱하게 됐구먼요!》

어느덧 려객선은 이 배길의 중간부두의 하나인 림토마울을 가까이하고있었다.

배가 몇자 유진은 려행용 가방을 들고 서둘러 배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여, 여기서 내리는 사람도 있구만.》

《누굴가...?》

《글쎄 그저 나들이오는 손님일지도 모르지.》

《저 사람 대신에 박기사가 이 부두에서 내린다면 좋았겠는걸...》

유진은 등뒤에 들려오는 이런 소리를 들으며 배사다리를 내렸다.

물에 내려선 그는 흰눈이 덮인 강변을 잠시 둘러보았다.

이렇다 할 대합실도 부두관리원도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중간부두였다. 산뜻한 선원복을 차려입은 부두사령원이 각듯이 경례를 불이며 떠나는 려객선을 정중하게 배래우던 하류의 큰 부두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언뜻 강언덕에 외로이 서있는 《집》이 유진의 눈에 비쳐들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엷은 미소가 어렸다. 거기에서 잠간 숨을 돌리고 갈수 있으리라는데서 오는 안도의 미소였다.

목직한 가방을 든채 그 《집》을 향해 눈길을 뒤흔아오르던 그는 그만 발걸음을 멈추고말았다. 옛정자처럼 네기둥이 추녀를 한껏 들어올린 기와지붕을 떠받들고있는 부두대기실이었다.

한여름이라면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여기 앉아 배를 기다린다면 얼마나 안성맞춤일것인가. 그러나 지금은 오직 흰눈이 덮여있지 않은 그 거

무스름한 널의자마저도 친근한 마음을 안고 찾아온 옛손님을 몰라보는것만 같았다. 그래서인지 그 의자우에 앉아 옛자취를 더듬으며 회고에 잠겨보려던 희망마저 가뭇없이 사라져 유진은 짐을 든채 거기를 떠나고말았다.

X

유진이 목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눈이 멎은 뒤였다. 대기의 싸늘한 빛도 너무룩해지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소음마저 눈속에 스며드는 모양 모든것이 푸근하게만 느껴지는 풍경이다. 그러나 그앞에 펼쳐진 목장전경은 판판이었다.

끝안을 가득 메운 돼지우리며 양우리, 오리우리들에서 귀가 멍멍할 지경으로 울려나오는 소리와 뛰어다니며 들레는 관리공들의 웨침소리때문에 정신을 차릴수가 없었다. 숨이불처럼 덮인 눈도 그 소리를 찾아들게 만들기에는 너무나 무력한듯하였다.

어리둥절한 기분으로 목장장실이라는 패쪽이 붙은 사무실앞으로 다가가던 그는 저도 모르게 주춤 서버리고말았다. 무엇인가 방 안에서 웅웅하는 소리들이 흘러나왔다.

(회의중인가?)

잠시후에야 그 소리들이 점점 뚜렷해졌다.

《우유생산량이 전해보다 1. 2배면 대단하지, 그 래 그게 적단말이요? 흥, 우유가 땅우에서 샘처럼 솟아오른다고 생각하는게 아니요?》

《우리는 금년에 꼴을 20톤을 냈네.》

《젠장, 눈만 안왔더라면... 에익!》

《빨리 우유를 탁아소에 보내야겠어요.》

《제길, 걱정 마오. 쉬지는 않을테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기사언니가 알면 또...》

《인공부화기가 오늘 도착하겠는데 이렇게 갑자기 눈이 내리니 어떡한다?》

《그때문에 언니가 금수령엘 갔어요.》

《뭐? 그걸 왜 이제야 말하는거야 멍추같으니!

빨리 사람들을 모이게 하라구!》

그 말이 떨어지자 문이 필쩍 열리며 총알처럼 한 처녀가 달려나왔다. 유진은 열결에 옆으로 비켜섰다. 하마트면 튀어나오는 처녀와 마주칠번하였다. 당황한 처녀는 빠금히 유진을 바라보더니 손으로 입을 가리운채 캐득거리며 내뺐다. 마치 고무공이 굴러가는것 같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였다. 방안의 형편이 마구 들어가 물어볼 경황이 아닌것 같았다. 그 옆방으로 다가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대답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그는 문을 열고 방안을 기웃이 들여다보았다.

빨간 나이론세타를 입은 얼굴이 발기우리한 처녀가 난로옆에 놓여있는 책상에 마주앉아서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계산하고있었다. 회계원인 모양이었다. 그런데 그옆에는 빨간 열매가 흰종이우에 놓여있었다. 찹쌀이었다. 처녀는 흥얼흥얼 코

노래를 부르며 계산을 하다 말고 만년필을 낀 손가락끝으로 찹쌀이 한알을 집어서는 조그맣게 벌린 입에다 냉큼집어넣는것이였다.

유진은 그 모양이 우스워 빙긋이 미소를 머금고 바라보았다.

《들어갈만합니까?》

《언젠 허락받고 들어온것처럼 그러시네...》

처녀는 얼굴도 들지 않은채 콧 찌르듯 내쫓았다.

《허허...》

그는 당황하여 잠시 머뭇거리다가 문안으로 들어서며 조용한 음성으로 다시 말했다.

《목장너기사를 좀 만나려고 하는데...》

처녀는 그제야 얼핏 얼굴을 들었다. 그 순간 처녀의 입에서 《어마나!》 하고 놀라움이 비낀 외마디소리가 튀어나왔다. 처녀는 숫제 찹쌀이처럼 빨개진 얼굴을 든채 한동안 유진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호호》 하고 제풀에 웃어버린다.

처녀의 붉어진 얼굴을 바라보던 유진은 눈앞이 번쩍했다. 머나먼 그 시절의 옥림이를 되살려주었다. 옥림이?!

한동안 처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그는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 착각이였다. 5년전에 시집을 간 그가 앞에 앉아있을리가 없다.

《정말 미안해요. 전 우리 3작업반장동무인줄 알고...》

유진은 자기소개를 서두르지 않았다. 다만 자기가 평양에서 왔다는것과 목장의 너기사를 만나야 할 필요를 이야기했다.

《저... 여기 좀 앉으세요. 옥림언니는 제가 곧 찾아드리겠어요.》

처녀는 다시금 호기심어린 눈길로 그를 바라보더니 조금 기다리라는듯 의자를 들어 난로옆에 놓고는 방긋이 웃어보이며 금시 달려나갈듯 문을 열었다.

유진은 놀라운 눈길로 처녀를 바라보았다.

옥림이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가? 언젠가 인편에 들은 소문에 의하면 그는 남편을 따라 어디론가 이사를 간다고 했는데...

《가만 처녀동무... 내가 만나야 할 너기사가 옥림이라는 동무요?》

《네... 왜 그러세요?》

처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지 까만 눈섭을 치켜들고 의문이 실린 눈길로 유진을 쳐다보았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요.》

《좀 기다리세요. 제가 인차...》

의자를 가리켜보인 처녀는 문을 열고 달려나갔다.

유진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물기를 머금은 빨간 찹쌀이가 싱싱한 빛을 뽐으며 라크칠을 한 책



상우에 놓여있다.

《흠...》

그의 얼굴에는 알릴듯말듯 야릇한 표정이 비쳤다.

잠시후 쿵쿵 발자국소리가 울리더니 문이 열리고 처녀가 다시 나타났다.

《아이, 어쩔가. 언닌 지금 없어요.》

유진은 난처한 빛으로 처녀를 바라보았다.

《혹시 집에 가보시면...》

《집에?...》

《절 따라오세요.》

유진은 군말 없이 몸을 일으켰다.

그들은 마을길을 걸었다.

마을에서 외파로 떨어진 집을 가리키던 처녀는 주춤 걸음을 멈추고 집쪽을 바라보더니 나직이 한숨을 쉬는것이였다.

《언니는 집에도 없어요.》

《가보지도 않고 그걸 어떻게 아오?》

처녀는 아무 대꾸 없이 집쪽을 향해 그냥 발걸음을 옮겼다.

유진은 영문을 알수 없었으나 더 묻지 않고 처녀의 뒤를 따랐다. 처녀는 주인을 찾지도 않고 사립문을 열고 거침없이 들어가는것이였다. 보매 처녀는 이 집을 자기 집 드나들듯하는 모양이였다.

정지문을 열어보던 처녀의 얼굴이 금시 흐려졌다.

《글쎄, 내 그럴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혼자말을 외운 처녀는 부엌옆과 잇달린 창고로 다가가 장작가치를 들고 나타났다.

《저... 미안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불이 죽었군요.》

처녀는 마당 한가운데 거의 눈에 묻히다싶이한 도끼모태의 눈을 치우고 장작가치를 올려놓았다.

유진은 급히 처녀에게서 도끼자루를 알아취려하였다. 처녀도 순순히 놓으려 하지 않았다.

《가만, 이런 일엔 내가 동무보다 나을게요.》

《하지만 생판 모르는 손님에게 어떻게...》

눈을 동그랗게 치켜뜨고 바라보는 처녀의 놀란 표정에는 개의치 않고 도끼를 빼앗아든 그는 말없이 장작가치를 자름자름하게 패기 시작했다.

얼마후 불은 지펴졌다.

《선생님, 미안해요.》

처녀의 얼굴에 송구스러운 빛이 어리더니 이어 밝은 표정을 지으며 꾸념을 터뜨렸다.

《언닌 참 한심해요. 글쎄 이렇게 불을 죽여놓은것도 모르고 눈이 온걸 기뻐했거던요.》

《허허... 눈이 온걸 기뻐하다니?》

유진은 입가에 허거픈 미소를 그리며 새삼스레 마당안을 더듬었다. 퇴마루절반이 고스란히 눈

에 쌓여 싸늘한 빛을 뿌리고있었는데 퇴마루우에는 진흙물이 오른 방한화 한켠레가 눈을 푹 찌문앞에 놓여있었다. 그는 어쩐지 그 방한화에서 어설픈 이 집살림이 비쳐보이는것만 같아 눈길을 돌렸다.

《동무는 기사동무가 집에 없다는걸 어떻게 알았소?...》

《저 굴뚝을 보고 알았지요.》

《굴뚝?...》

《네, 저 굴뚝에 아침에 내린 눈이 그대로 쌓여있었으니까요. 언니는 자주 집을 비워놓고 다니군 하지요.》

유진은 마당안에다 갓 찍어놓은 구멍탄이며 너자의 어설픈 손길이 가닿은 창고지붕이며 널바자를 다시금 더듬었다. 그 모든것은 한때 이 처녀처럼 생신했던 옥림의 얼굴에서 천진한 활기를 걷어갔을것 같은 생각이 짙게 갈마들었다.

《정말 언니는 어딜 갔을가?》

두손을 외투주머니에 지르고 눈을 깜박거리며 잠시 생각을 굴리던 처녀는 《아이, 내 정신!》하고 탄성을 질렀다.

그의 손끝에 빨간 찰팡이 한알이 묻어나왔다.

《내가 왜 찰팡이생각을 못했을까? 선생님, 가자요.》

어느새 사립문을 열고 뛰어나간 처녀는 유진을 얼핏 돌아보며 재촉했다.

《선생님, 빨리 오세요. 잘못하다간 언니를 못만나요.》

그는 조금전에 가졌던 어수선한 마음을 처녀가 모두 걷어안고 달려나간듯싶어 미소를 머금고 처녀의 뒤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재빠른 걸음으로 따라서기 시작했다.

갈림길같은곳에 서서 이윽히 그를 기다리며 서있던 처녀가 가까이 다가간 그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선생님, 이쪽으로 가셔야 해요. 출입문은 이쪽에 있어요.》

(출입문?)

유진은 의문이 실린 눈으로 처녀가 가리키는쪽을 바라보았다.

정말 출입문이라고 생각되는 자그마한 문이 민출하게 자란 나무그루사이에 달려있었다.

출입문을 열던 처녀의 입에서 한성에 가까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내 짐작이 맞았어요. 언니의 발자국이예요. 틀림이 없어요!》

처녀는 마치 그것을 누가 부정하기라도 한듯 열기뻐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처녀의 말대로 솟눈길을 헤치며 숲속을 꿰질러간 발자국이 두줄로 또렷이 찍혀있었다.

《언닌 꼭 초막에 있을거예요.》

유진은 오금을 박아 말하는 처녀를 미소를 머금고 바라보았다.

《동무, 내가 언제 없다고 했던가?》

《췌 조용하세요. 여기서는 떠드는것도 금지되어 있어요.》

《그건 또 무슨 질서요?》

《우습지요? 옥림언니가 세운 질서랍니다.》

처녀는 방금전에 제임으로 조용하라고 한 말을 잊은듯이 깔깔거리며 웃었다.

이때 관목숲속에서 갑자기 몇마리의 들썰이 텃겨울라 눈송이들을 흐트러뜨렸다.

《아이, 깜짝이야...》 처녀는 또 깔깔거리며 웃었다. 유진이라도 처녀의 웃음소리에 기본이 밝아져 빙긋이 웃으며 웃는길을 헤쳤다.

문득 뒤를 따르던 처녀가 다급히 소리쳤다.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아니 왜 또 그러요? 이쪽도 통행금지요?》

유진은 어리둥절한 눈길로 처녀를 돌아보며 물었다.

《아니 그렇게 아니라 그쪽엔 물웅덩이들이 있어요.》

《물웅덩이?》

《네, 자칫하다간 살얼음에 빠질수 있어요.》

유진은 영문을 알수 없었다. 8년전에 이곳을 메주밭듯하며 다닌 그였다.

그런데 언제 이곳에 물웅덩이가 생겼단말인가?

의문이 실린 유진의 얼굴을 띠여본 처녀는 눈을 내리깔며 말을 이었다.

《이 안개더기는 원래 물이 발라요. 언니는 그 때문에 퍼그나 애를 먹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여기에 누렁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지요. 언니 말이 그것들이 물과 소금기가 있는 땅을 찾아다니는거라더군요. 그 누렁이들을 본 언니는 결정적으로 물줄기를 찾아야겠다구 하더니 며칠동안 안개더기 여기저기를 파보았어요. 그러다가 겨우 샘줄기 하나를 발견하였는데 너무도 물량이 적었어요. 언니는 생각하던끝에 이렇게 여러개의 물웅덩이를 파놓고 물을 잡아넣었어요. 굴포식으로말이에요.》

처녀는 자기 말이 우스웠는지 방긋이 웃었다.

《물론 땅속에 소금도 묻어주었지요. 그렇게 되면 다른 동물들뿐만아니라 깊은 산속에서 사는 누렁이들도 이 안개더기에 정을 붙이게 될거라구 하더군요.》

나직나직 울리는 처녀의 말을 들으며 유진은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췌눈길을 한걸음한걸음 헤쳤다. 마침내 그앞에 물웅덩이가 나타났다. 돌로 둘러싸은 그리 크지 않은 웅덩이에 고인 물우에서는 후더운 숨결처럼 얇은 김이 피어오르고있었다. 그렇게 췌아뵈던 눈도 차마 깨끗한 웅덩이만은 메우기 저어한듯 가녀에만 하얗게 쌓여있었다.

그래서인지 웅덩이에 피어있는 물은 거뭇게 보였다.

한동안 그 웅덩이의 맑은 물을 들여다보니 어쩔지 자기자신도 갈증을 달래려고 이곳을 찾아온 듯 싶었다.

아래를 따라가며 돌을 깔아놓은 세개의 웅덩이들이 그 무슨 동그란 쇠고리처럼 이어져있었다.

유진은 아무 말없이 그 물웅덩이를 에돌아 두 줄로 뻗어간 발자국을 따라 걸었다. 그 발자국을 따라 좀 후미진곳에 흰눈에 놀리운듯 나지막한 초막이 한채 서있었다.

처녀가 먼저 초막을 향해 살금살금 다가갔다.

아마 기사를 깜짝 놀라게 할 잡도리인것 같았다.

처녀는 출입문을 에돌아 자그마하게 매달린 뽕창문에 다가서서 방긋이 미소를 머금으며 유진을 돌아봤다.

잠시 귀를 기울이고 서있던 처녀는 《언니!》하고 소리치며 갑자기 뽕창문을 열어제꼈다.

그 순간 처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초막안을 멍하니 지켜보는 놀라움으로 동그랗게 치켜튼 처녀의 눈이 유진에게는 어쩔지 그 뽕창문보다 더 커보였다.

처녀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초막문을 열었다. 순간 문밖에서 떨어진 종이쪽지가 처녀를 구원해주었다.

《언니가 쓴거예요.》

유진은 그 쪽지를 받아들었다.

《금숙이, 1호구역을 좀 돌아봐줘. 짚팡이알을 풍막안에 떨구었어. 옥림.》

유진은 쪽지를 든채 놀라움이 비낀 눈길로 처녀를 바라보았으나 마치 처녀는 숨돌릴 틈을 주지 않으려는듯 계속 그를 미지의 세계에로 이끌었다.

그들 량옆으로 마가목이며 짚팡이이며 짚레꽃덤불이 빼곡이 펼쳐져있었다. 그전에는 볼수 없던 떨기나무숲이었다. 그 떨기나무숲속에서 인기척에 놀란 꿩들이 연신 날아오르곤하였다.

《여기서부터 1호구역이에요.》

그의 상념을 깨뜨리기 저어하듯 처녀가 나직이 속삭였다.

얼마안지나서 눈앞에 여러개의 풍막이 땅속에서 솟아오른듯 불쑥 나타났다. 그것은 마치 떨기나무숲이 우산을 받치고 서있는듯한 모습이었다.

그는 한동안 눈속에 두발을 꼭 박고 서서 풍막을 바라보았다.

유진은 그가 어떤 일들을 해놓았는가 하는것이 점점 더 명백해질수록 8년전에 자기가 종이장에 썼던 들썰들의 집단사육에 대한 론문의 실현을 눈앞에 보게 된 기쁨보다도 옥림이로 하여금 이 외진 산골을 못뜨게 밭목을 붙잡은것이 이 들썰이 아닌가 하는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는것을 어

쩔수 없었다.

풍막안을 살펴보면 처녀가 문득 환성을 질렀다.

《아이 한알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네... 글썄 내가 얼마나 멍꽂인지 몰라요. 오늘아침 언니가 나에게 찹쌀이열매를 한줌 쥐여주면서 풍막안에 찹쌀이를 펴귀보아야 하겠다는 소리를 듣고도... 안개더기에 갔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처녀의 목소리가 꿈속에서처럼 들려왔다.

《언니는 들썩들이 풍막안에 자유롭게 드나들기만 하면 래년부터 본격적으로 떨기나무숲우에 풍막을 치겠대요. 그래야 나무열매들을 한알도 눈속에 묻히지 않고 들썩의 먹이로 리용할수 있다는거지요.》

처녀는 유진을 힐끗 돌아보고나서 말을 이었다.

《이 숲에 마가목이랑 찹쌀이랑 떠옴겨심을 때였어요. 그날은 비가 왔어요. 저는 안개더기에 들썩때가 차고넘칠 일을 생각하니 너무 기뻐서 비에 옷이 젖는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언니는 가을비를 그렇게 맞으면 감기에 걸린다고 하면서 8년전에 한 연구사가 우리 마을에 와서 연구사업을 한적이 있는데 감기를 만나 여간 애를 먹지 않았다는거예요. 후에 그 연구사가 들썩사육에 대한 논문도 썼대요. 그래서 내가 그 연구사가 왜 한번 림토마을에 와보지 않는가고 물었지요. 언니는 아마 다른 연구사업에 몹시 바쁘게라고 그저 웃더군요. 어쨌든 언니는 그 연구사의 논문에 기초해서 이 안개더기저지예까지 들썩을 끌어올 엄두를 냈었는데 껍 애를 먹고있었대요. 한번은 제가 편지라도 띄워 그 연구사가 오도록 하자고 했더니 그때도 역시 바쁜 사람에게 이 산골까지 오라가라 수고를 끼치겠는가고 하더군요. 난 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바빠서 못오는게 아니라 감기에 걸려 혼이 났었으니까 그래서 못오는거예요. 그러니 올 필요가 없는게 아니예요?> 하고말이에요.》

처녀는 눈을 찔프리고 어딘가 마을쪽에 시선을 던진채 나직이 한숨을 쉬었다.

유진은 처녀의 눈길을 피하여 초점없는 시선을 마을쪽에 던졌다.

연구사가 한 논문의 자그마한 성과로써 과학자의 첫 디딤돌을 마련하려고 몸부림치고있을 때 옥림은 대답하게 들썩을 안개더기로 끌어내릴 꿈을 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8년세월을 고스란히 바쳐온것이 아닌가.

그에게는 어쩐지 눈이 온것을 옥림이가 그토록 기뻐했다는 처녀의 말이 그 어떤 심각한 의미로 되새겨졌다.

그럴수록 지금 눈에 묻혀버린 이 안개더기에서

새삼스레 자기가 다니던 지난날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추억에 잠겨보리라던 출장을 떠날 때의 흥분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하는 점직한 생각에 사로 잡히게 되는것이였다.

어쩌면 그렇게도 아름답게만 추억되리라던 그때의 일들이 괴로움을 자아내는것일가.

8년전, 그때는 이른봄이였다.

꽃샘을 하는무렵이어서인지 북방의 바람은 아직 차거웠다. 림토마을은 지도에도 표시되어있지 않았다. 그는 읍에서 내리자마자 무작정 산밭을 타고넘었다. 따듯한 해빛아래 누워있는 비탈밭들이 아득히 내려다보였다. 자동차의 경적소리며 기계소리며 통털어 인간세계의 소란스러운 소음을 벗어난 그에게는 순결무구한 자연의 음향만이 들려오는 숲이 몹시도 친근하고 살뜰하게 느껴졌다.

문득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푸른 하늘아래 양떼 흐르고  
맑은 시내 돌돌 흐르는곳  
길가던 총각 처녀에게 물었네  
여기가 어느곳이나  
방긋 웃으며 처녀는 대답했네  
여기는 내 고향, 아- 내 고향

그는 미소를 머금고 노래소리가 울려오는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숲속에서 빨간 머리수건이 얼쩡거리더니 류달리 살결이 하얗고 맑은 처녀의 얼굴이 드러났다.

처녀의 손에는 꺾어든 흰 버들장아치가 쥐여져 있었다. 처녀는 미소를 머금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다가 흘깃 숲속에 시선을 던지더니 입을 오무리고 회파람을 불었다. 새소리를 흉내내는 모양이었는데 어찌나 그것이 신통했던지 유진은 저도 모르게 빙긋 웃음을 지었다.

《후여- 호호, 고놈 꿈쩍도 안하네-》

유진은 마음이 즐거웠다. 어쩐지 이 순결무구한 자연도 처녀의 류달리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하여 더욱 청신해보이는듯하였다. 그래서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나직이 불렀다.

《동무!》

순간 처녀의 빨간 머리수건이 숲속으로 얼핏 사라져버렸다. 그리고는 한동안 기척이 없다. 유진은 처녀가 사라진 숲속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잠시후 유진앞에 얼굴이 붉게 상기된 처녀의 모습이 나타났다. 갑자기 인척기 없는 령길에 나타난 사람을 두고 처녀는 무척 놀란 모양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놀랄건 없소... 난 림토마을을 찾아오는 사람이요.》

처녀는 한동안 미심쩍은 눈길로 바라보다가 몸을 책 돌리더니 꺾어든 꽃을 안고 아무 말 없이 앉아서 곁었다. 따라오라는 뜻인것 같았다.

림토마루에 자리잡은 다음날부터 유진은 곧 연구사업에 착수하였다. 안개더기를 기지로 정한 그는 깊은 골짜기에 초막을 짓기 시작하였다. 처녀가 찾아와 그의 일손을 말없이 거들어주었다. 초막을 다 지은 다음에도 처녀는 이따금씩 나타나 호기심어린 눈길로 지켜보곤하였다. 갓 신설된 목장에 다닌다는 옥림이라고 부르는 이 처녀는 정말 호기심이 강한 처녀였다.

그는 유진의 연구자료들을 뒤져보기도 하고 이따금 엉뚱한 질문을 들이대어 그를 난처하게 만들곤하였다.

《왜 들쭈름을 사냥하기 좋은 새라고 여기다 썼나요?》

《아, 그것말이요? 들쭈름은 기척이 나기만 하면 썰과 달리 제격 나무우에 올라앉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요...》

《그래요?》

《아, 동무도 들쭈름에 대해 연구를 하고싶소?》

《아이, 저야 뭐...》 처녀는 당황하여 얼굴이 활짝 붉어졌다.

《왜 동무라고 안되겠소? 축산전문학교 통신을 다니는 동무가말이요...》

처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또 얼굴을 붉히며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전... 전... 안돼요. 10점최우등을 맞지 못했어요. 그것도 다른 과목이면 또 몰라도 생물과목이 9점이었거든요...》

《허참. 9점은 최우등이 아니요?》

《그래두...》

처녀는 나직이 한숨을 쉬며 또다시 연구자료들을 신중한 기색으로 들여다보곤하는것이였다.

유진은 미소를 머금고 좀 소박하면서도 언제나 솔직하게 자기를 드러내놓곤하는 처녀를 새삼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러던 어느날 유진은 처녀의 안내로 안개더기의 한끝에 있는 양봉장에 들리게 되었다. 안개더기는 아늑하기도 하고 꽃들도 많이 피는곳으로서 양봉장으로는 알맞춤한곳이였다.

한 로인이 쌓아놓은 벌통들을 손질하고있었다. 그 옆에서는 손자인듯한 사내아가 회초리를 뒤꽂무니로 질질 끌고다니며 할아버지의 일하는 모습을 신기한듯이 바라보고있었다.

유진과 옥림이는 따뜻한 해볕이 내려쬰이는 양지바른곳에 앉아 로인이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일생동안 양봉업으로 늙었다는 로인인데 아직 정정하였다.

밝게 비치는 봄빛이 부신듯 조프려진 로인의 자그마한 눈에서는 연방 따뜻한 미소가 피어올랐

다.

문득 소년이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로인에게로 달려왔다.

《할아버지, 사람이 먹는 사탕을 왜 꿀벌한테 먹이나?》

《영?》

《사람이 먹는 사탕을 왜 꿀벌한테 먹이나?》 소년은 고집스레 같은 말을 곱씹었다.

《그건말이다, 사탕을 먹여야 더 달구 더 많은 꿀을 만들어내기때문이란다.》

《피- 그건 거짓말... 그럼 사람도 꿀을 먹으면 단것을 만들어내게? 해해.》

《이녀석! 썩 물러가지 못해!》 로인이 소년의 궁둥이를 철썩 때렸다.

소년은 깔깔거리며 달아뺐다. 그것을 바라보며 로인은 즐거운듯 벅글썩 입을 벌리고 웃었다. 그럴 때면 로인의 자그마한 눈에서는 어디에 숨어있었던가싶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 연방 흘러나왔다.

《암, 사람도 단것을 먹으면 단것을 뺏어놓을줄 알아야 하느니라- 저 벌보다 더 단것을말이다.》

로인이 꺼칠한 손으로 가까이 온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하는 말이였다.

처녀는 미소를 머금고 명상에 잠긴 눈길로 그 모습을 이윽히 바라보다가 호-하고 한숨을 쉬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정말 뜻이 깊은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좋을가요? 세상에 태어나서 행복을 받아안기만 하고 아직 아무것도 한일이 없으니... 생각하면 겁이 나요. 한일없이 늙어버릴것만 같아서...》

유진은 빙긋이 웃으며 처녀를 돌아보았다.

《허, 동무의 말을 들으니 나도 조급해지는걸...》

《아이참!》 처녀는 얼굴을 붉히었다...

그의 연구사업은 철이 바뀔에 따라 더욱 본격화 되어갔다. 가을 어느날 멀리 범골에까지 연구구역을 넓혀나가던 그는 뜻하지 않게 비를 만나게 되었다. 비를 피할수 없었던 그의 몸에는 감기가 덮쳐들었다. 간신히 하숙집으로 돌아온 그는 자리에 쓰러지고말았다. 입술이 초들초들 마르고 온몸이 불덩이같이 달아올랐다.

그러나 그는 일을 손에서 놓을수 없었다. 하루 빨리 논문을 완성해야 한다는 자각이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옥림이가 찾아왔다. 눈이 우뚝히 들어가고 입술에 하얗게 조갈이 든 그를 본 처녀의 눈에는 대번에 물기같은것이 어렸다. 옥림은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이 졸랐다.

유진이 자리를 뜨지 않으리라는것을 안 처녀는 나직이 한숨을 쉬며 방문을 열고 밖을 나섰다.

캄캄한 어둠이 밝은 불빛을 덮쳐들듯이 열어놓은  
방문앞에까지 밀려왔다. 처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잠시후야야 무엇이라고 웨치는 그의 목  
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

별을 치는 로인네 집을 향해 부르는 소리였다.  
한참만에 아래집쪽에서 대답하는 목소리가 들려  
왔다.

《왜?-》

《꿀이 있어요?》

로인이 뭐라고 대답하는데 유진은 잘 가려들을  
수 없었다. 한동안 이야기를 주고받더니 이어 달  
려가는 처녀의 발자국소리가 들렸다.

유진에게는 무척 신기하게 느껴지는 신비로운  
세계였다. 퍼그나 멀리 떨어져있는 아래집사람을  
불러내어 지척에서 이야기를 주고받듯하다니?  
꼭 후야야 그는 그것이 밤이면 이 마을의 고요한  
정적의 조화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  
았을때 새삼스레 그는 처음으로 외진 산골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한듯하였다.

잠시후 가쁜숨을 토티쉬며 처녀가 달려왔다.  
빨강게 상기된 그의 얼굴은 땀에 떠있었다. 숨을  
태울 사이도 없이 처녀는 꼼짝 않고 누워있는  
그의 입에 조심스럽게 꿀물이 든 사발을 가져다  
댔다.

유진은 그 꿀물을 마신 다음날부터 놀라리만큼  
열도 내리고 몸도 거뻏해졌다. 기분이 상쾌해진  
그는 처녀에게 롱까지 걸었다.

그러자 처녀는 유진의 얼굴을 곧바로 건너다보  
며 밝게 웃었는데 그의 입가에 하얀 이새가 드러  
났다. 유진이 이 몇달동안 처음 보는 처녀의 모  
습이었다.

그로부터 며칠후 그는 림토마을을 떠났다. 기  
일이 오래 걸릴것으로 예상했던 론문이 비교적  
빨리, 순조롭게 완성되었던것이다. 그는 서둘러  
행장을 꾸렸다. 더 머물러있을 필요도 없었거니  
와 이제 곧 겨울이 들이닥칠것이었다.

행장을 꾸리는 그를 띠여본 처녀는 《아니, 오  
래 있겠다구 하구선 벌써 떠나게요?》 하고 놀란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론문을 다 끝냈으니 섭섭한대로 떠나야지 어  
찌겠소. 정말 그새 신세를 많이 졌소.》

《제발 그런 말씀은 말아요.》

처녀는 눈물이 글썽하여 행장을 꾸리는 그의  
일손을 아무 말 없이 거들어주었다.

짐을 다 꾸렸을 때 처녀는 배낭끈을 량손에 쥐  
고 머뭇거리다가 뜨직뜨직 물었다.

《저... 그럼 이제... 언제쯤이면 우리 림토에 들  
땡이 차넘치게 될가요?》

《.....》

유진은 아무 말 없이 과학을 너무나도 단순하

게 생각하는 처녀를 그저 미소어린 눈길로 바라  
보았다.

유진에게서 아무런 대답이 없자 처녀는 붉어진  
얼굴을 숙이며 나직이 한숨을 지었다. 한동안이  
지나서야 처녀는 손에 쥐고있던 배낭을 조심스  
럽게 유진에게 내밀었다.

《정말 이렇게 갑자기 떠나실줄은... 가셔도 여  
기 이 고장을 잊지...》

처녀는 말끝을 마무리지 못하였다.

배낭을 받아들며 처녀를 바라본 순간 유진은  
그의 눈길에서 그 어떤 간절한 기대와 희망의 빛  
이 숨길수 없이 내비치는것을 보았다.

그는 처녀의 진정이 고마왔다. 그러면서도 한  
편으로는 이 몇달동안 처녀가 자기에게 기울인  
그 모든 정성과 통승한 마음씨에는 은연중 다른  
감정도 스며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자 어쩐지 옥림의 세계며 자기가 딛고선  
땅이며 숲이며 내물이며 림토마을의 그 모든것들  
이 단순하게 생각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의 생각을 긍정해주기라도 하듯 때마침 출발  
을 알리는 배고동소리가 길게 메아리쳤다.

유진은 서둘러 배에 올랐다.

처녀는 러객선이 사라질 때까지 따라오며 오래  
도록 손을 흔들어 바래였다...

그것은 8년전에 있던 일이었다. 그것은 다만  
이미 멀리로 흘러가버린 생애의 한토막으로 유진  
의 머리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회억에 지나지  
않았다. 총계를 딛고 오르듯 그후 그에게는 얼마  
나 많은 이채로운것들로 충만된 생활들이 흘러갔  
던가! 들썩의 연구에 비할바없는 특수종의 동물  
에 대한 연구와 그 성공, 그리 미인은 아니나 살  
뜰하고 아릿다운 안해, 행복한 가정, 정상적인 출  
근과 퇴근으로 이 어진 만족스런 생활...

그렇게도 아득히 흘러가버렸던 8년전의 작은  
생활토막을 이제 와서 이처럼 가슴아프게 돌이켜  
보게 되리라고 상상이나 하였던가. 그는 피로왔  
다. 그 피로움은 옥림이가 자기 론문에서 훨씬  
벗어나 더 많은 문제를 실천으로 해결하고 시사  
해주었다는 과학자의 자존심때문만은 아니었다.  
무엇인가 종잡을수 없는 그런것이 그를 괴롭히었  
다.

아직도 이고장을 뜨지 않고 너무나도 평범한 생  
활속에 묻혀있는 과거의 인상적이었던 옥림이의  
처지가 준것인지, 아니면 처음 만나는 이 처녀가  
상기시켜준 그 《감기》때문인지...

이때 처녀가 옆에서 웨치는 소리에 그는 명상  
에서 깨어났다.

《애- 선화, 어디를 가니-?》

마을쪽에서 손을 뻗혀 저으며 금수령쪽으로 다  
급히 올라가던 처녀가 이쪽을 향해 돌아섰다. 목  
장장실앞에서 마주칠뻔했던 그 처녀였다.

《금수- 령엘 가-》

《금수령엘?》

《큰일났어. 령길이 막혔어- 옥림기사랑 거기 있어.》

그 말을 들은 처녀의 얼굴이 금시 안타까움으로 흐려졌다.

《령길이 막히문 어쩔가? 인공부화기를 실은 자동차가 령을 넘겠는데...》

《인공부화기라니?...》

《언니는 작년부터 시험적으로 들쭉알을 인공부화기로 깨워보겠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뱀이나 까마귀들이 달려들어 술한 알을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오늘 인공부화기를 실어온다나봐요.》

《금숙동무, 우리도 갑시다. 옥림동무도 만날 겐.》

《네!》

그들은 어느새 안개더기를 벗어나 한동안 령길을 치달아올랐다.

어느덧 그들이 령마루에 거의 올라섰을 때였다. 문득 령마루너머에서 떠들썩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쪽으로! 이쪽으로요!》 유난히 쉑쉑한 목소리이다. 그러자 거기에 화답하듯 자동차의 둔중한 경적소리가 《부르릉-》 하고 대기를 흔들었다.

령마루에 올라선 유진은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바라보았다. 눈가루가 뽀얗게 이는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 뛰어다니고 부르고 웨쳐대고있었다.

《자, 앞으로!》

다후다직숨을 펴친 녀인이 손을 번쩍 들며 소리쳤다. 아까 그 쉑쉑한 목소리의 임자였다. 유진은 그 녀인이 옥림임을 첫눈에 알아맞혔다. 그의 구령소리에 마치 숙달되거나 한듯 사람들은 자동차의 바퀴뒤와 적재함밑에 붙어서서 《여이사-》 하고 고향을 질렀다. 자동차가 부르릉거리며 한치한치 령을 토했아올랐다. 땅을 물고도는 차바퀴뒤에서는 눈가루가 튀어 눈보라를 일으켰다.

자동차는 마치 녀인이 쳐든 팔에 이끌려, 사람들이 웨쳐대는 고향소리에 떠받들려 령을 토했아오르는듯싶었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그 힘에 떠받들린듯 옆에 놓인 눈가래를 집어들었다.

자동차는 드디어 령에 올라섰다. 이제야 그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고 옷에 묻은 눈을 털며 떠들어댔다.

《에구야- 오늘 잔치가 꽤 비싸우다레-》

《하하하.》

《신랑신부가 정말 오늘은 복을 받는 셈이네.》

《우리 림토에 거주를 불이기가 그렇게 쉬운건 아니지. 그래서 눈이 온게 아닌가? 허허...》

《자, 어서 차에 오르시오-》

털모자를 깊숙이 눌러쓴 한 청년이 운전칸문을

활짝 열어제겼다.

유진은 그 많은 사람들속에서 신부차림을 한 처녀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적재함우에는 비닐박막을 씌운것이 바라보였다.

아마 그것이 인공부화기인 모양이었다.

그는 운전칸문을 향해 압전하게 머리를 수그리고 걸어가는 신부를 바라보았다.

차앞에까지 갔던 신부가 돌아서서 눈가래를 들고 차옆에서 웃고있는 옥림에게로 다가가며 《언니!》 하고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불렀다. 그의 눈에 이슬같은것이 피여 반짝이었다.

《아이참, 울긴... 은희, 어서 차에 올라요. 은희가 우리고장에 온걸 축하해서 이렇게 하늘이 하얀 꽃보라를 뿌리게 아니예요?... 동무들, 그렇지 않아요?》

《옳수다!》

옆에 서있던 몇사람이 맞장구를 쳤다. 유진은 옥림의 얼굴을 다시한번 주의깊이 바라보았다.

옥림은 밝게 웃고있었다. 앞이마에 차분히 드리운 머리칼에 붙은 하얀 눈이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반짝거렸다.

자동차운전대앞유리를 돌아가며 붙인 꽃송이들이 하얀 눈과 대조를 이루며 류달리 빨간 빛을 띠었다.

어느새 달려간 회계원처녀가 뭐라고 옥림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옥림이 정색한 빛을 띠우고 유진이 서있는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8년전에 만났을 때보다 단아해보이면서도 침착해진것 같은 옥림을 대하는 순간 유진은 아까 그의 집마당에서 느꼈던 어설픈 생각들이 생활을 단순하게 보아온 자기의 속단에 불과했다는것을 느꼈다. 그러자 혹시 그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면 어찌라하는 위구심이 갈마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공연한것이였다.

옥림의 얼굴에 놀라운 빛이 어리는듯하더니 이내 반가운 빛을 띠우는것이였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스스럼없는 행동이였다.

이때 《아니 이게 누구시오?》 하고 사람들속을 비집으며 한 사람이 유진이쪽을 향해 다가왔다. 그는 얼떠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 령에서 다시 이렇게 만날줄은...》

그제야 그는 배안에서 자기의 무릎을 흔들며 일기예보를 듣지 못했는가고 물으며 초조해하던 그 농장원임을 알아보았다.

《에, 이렇게 좋은분을 아까는 묻는 말에두 대답하지 않는다구 속으로 좀 고깝게 생각했습시다... 하하, 그런데 이거 참 고맙쎬다. 우리 잔치에 정식 초대합니다.》

유진은 저도 모르게 얼굴을 붉혔다...

잠시후 유진은 옥림이와 함께 결혼식차뒤를 따라 령을 내렸다. 자동차바퀴뒤에서는 여전히 그

은가루같은 눈이 사방으로 꽃보라처럼 흩날렸다.

×

《참, 어젠 오시자바람 도끼까지 들게 만드셨다면서요? 우리 산골살림이란 그저 이렇답니다.》

이튿날 옥림이를 만나려고 그의 집으로 갔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하며 반겨맞았다.

《어서 들어오세요.》

유진은 잠시 머뭇거렸다. 마당의 눈은 이미 깨끗이 쓸어져있었다.

울바자너머로 한 사내아이가 썰매를 썰매 달러 들어오며 소리쳤다.

《엄마! 아버지 왔나?》

문을 열고 달려들어오던 소년은 주춤 서서 시무룩해진 표정으로 힐끔힐끔 유진이를 바라보았다.

《애, 인사하렴, 평양에서, 오신 연구사선생님이시다.》

소년은 또다시 유진을 힐끔 바라볼뿐 서운한 빛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가 늘 집을 떠나있다나니 통 버릇이 없답니다... 자, 방으로 좀 들어가세요.》

유진은 이제 곧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것은 방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암시였다.

《그래도 몇년만에 오셨다가 그냥 가시겠어요?》

옥림이 웃으며 옷방문을 열어놓고 부엌으로 내려갔다.

그는 열려진 옷방을 기웃이 들여다보았다. 간소하게 꾸러진 방은 그가 생각했던것보다는 퍼그나 깨끗하였다. 왼쪽벽에 아름다운 북방땅의 설경을 그린 풍경화가 걸려있어 더욱 그렇게 느껴지는지도 몰랐다.

오른쪽벽에 나지막한 서가가 서있고 창문쪽에 책상이 놓여 있었다.

문득 손으로 만든 탁상전등갓이 그의 눈을 끌었다. 찬찬히 바라보니 전등갓은 여러가지 색깔의 우표들로 숨쉴있게 만든것인데 그 우표들은 모두 한쌍의 새들을 그린것들이었다.

(그거 참 묘한걸!)

그는 저도 모르게 이끌리듯방안에 들어섰다. 뒤집을 지고 그 우표들을 호기심어린 눈길로 유심히 들여다보던 그는 그 우표들에 일부인이 찍혀있는것을 발견하였다. 어떤것은 희미하여 날자를 정확히 가려볼수 없었으나 그중 한 우표가 두드러지게 눈에 띄어졌다. 일부인을 보니 그것은 8년전 여름에 온 편지봉투에서 뜯어낸것이였다. 전등갓옆에 쇠돌이 하나 댕그렇게 놓여있었다. 그 쇠돌에는 채취년월일이 붙어있었는데 우표에 찍힌 일부인과 같은 해였다. 그렇다면 그때 벌써 그에게는 애인이 있었던것이 아닌가?

유진은 책상에서 물러나며 새삼스러운 눈길로

방안을 둘러보았다. 밖에서 볼 때와는 달리 따뜻한 생활이 꼭 차서 흐르는것 같았다.

이때 문지방에 서서 유진을 호기심에 찬 눈길로 힐끔힐끔 바라보던 아들이가 책상우에서 봉투 하나를 불쑥 꺼내들었다.

《우리 엄마 늘 보는 편지다!》

얼결에 편지봉투를 받아든 유진은 말없이 편지를 읽었다.

《어느덧 봄도 지나고 잎이 무성한 여름이 돌아왔는데 이 쇠돌밖에 모르는 사람은 가지 못하고 또 막돌을 보내오. 그러나 쇠돌밖에 모르는 무뚝뚝한 사나이로 남아있는 자신을 결코 후회하지는 않겠소. 우리는 지금 큰 광맥을 찾았을 때보다 더 큰 기쁨과 만족에 잠겨있소. 탐사구역의 제일 높은 봉우리인 설봉을 드디어 점령하였기때문이요. 이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권리가 없소. 지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동무마저도 그 권리만은 가지고있지 못하오. 기다려주오. 광맥을 찾고 가겠소. 그러나 지금은 갈수 없소.

아버이수령님의 따뜻한 해발속에 오늘처럼 자라난 우리들임을 항상 잊지 말기를...》

남편을 그리며 늘 이 편지를 보곤하였을 옥림이!

유진은 가장 행복한 인간들을 보는듯싶었다.

어째서 그가 쇠돌밖에 모르는 똑박쇠란말인가.

편지의 끝을 마저 읽고난 유진은 배우에서 두청년이 주고받던 박기사가 바로 이 편지의 주인공이며 옥림동무의 남편임을 직감하였다. 아마 뜻밖에 내린 강설때문에 그는 오지 못하였을것이다. 그러나 옥림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있을것이다. 적어도 그에게는 그렇게 생각되였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자기의 생활이 있다. 비록 즐거울 때도 있고 피로울 때도 있지만 그들은 자기의 생활을 사랑하고있는것이다.

이때 금속이가 달려들어오며 소리쳤다.

《언니! 뭘해요. 이제 곧 사진을 찍는데, 눈꽃이 스러지기전에 찍어야 한다고 말해놓구선... 사람들이 눈이 까매 기다리는데...》

처녀가 곱게 눈을 흘겼다.

《오- 그래!》

정지문을 열고 나서던 옥림은 웃으며 문지방에 서있는 유진을 돌아보았다.

《함께 나가보시지 않겠어요? 어제 그 신랑신부가 기념사진을 찍는답니다.》

둘은 프락을 나서 마을로 뻗은 길에 들어섰다. 해빛이 눈부시게 반짝이였다.

저 멀리에서 벌써 떠들썩하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사람들이 신랑신부를 세워놓고 사진을 찍을 준비를 하느라고 법석 끓었다.

옥림이가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재빠른 걸음으로 다가갔다.

×

그들은 강언덕우 부두대기실옆에 서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사방이 환히 트인 정자였다. 8년전 그때처럼 옥림이는 그를 바라주러 나왔다.

굽니는 강물결을 이윽히 바라보던 유진은 잠시 다리섬을 할 생각이 들어 정자안에 놓여있는 의자에 힐끗 시선을 던졌다. 그 의자를 보니 연구사업을 결속짓고 떠나던 때가 불쑥 돌이켜졌다. 그때 그는 어서 빨리 러객선이 도착하기를 얼마나 초조 하게 기다렸던가.

그러는 그를 미소띠티 눈길로 바라보면 옥림이가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었다.

《아직 배가 도착하려면 시간이 있어요. 이 의자우에 좀 앉으세요.》

그러나 그는 의자우에 앉을념을 하지 않았었다.

옥림은 눈을 내리뜨고 생각에 잠긴 음성으로 나직이 말하였다.

《여기 겨울은 꽤참은 계절인데... 떠나는군요.》

《겨울이야 아무데나 어긔비긔하지... 춥고 맏고.》

《아이참, 지내보지도 않고...》

옥림이 조용히 웃으며 말하였다. 그의 모습을 바라보던 그는 어쩐지 미안한 생각이 들어 《그럼 내 다음번에 와서는 여기서 겨울을 보내지...》 하고 말했다.

《아이, 그래요!》

처녀는 진심으로 기뻐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 후에 한번도 와보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떠날 때나 이번에 들릴 때나 한번도 이 나무의자우에 앉지 않았던 그였다. 그것을 의식하자 그는 의자우에 앉았다. 그러나 이렇게 오래 앉아있고싶은 이순 간에 더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인차 떠나야 하는 손님이라는 생각이 그를 서글프게 하였다. 그러자 오늘아침 흰 눈꽃이 하얗게 핀 숲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신랑신부를 바라보며 온갖 시름을 잊은듯 환하게 웃던 옥림이의 모습이 되살아났다. 어쩐지 8년전 숲속에서 부르던 그의 노래소리가 금시 귀전에 들려오는듯싶었다.

묵묵히 강대안쪽에 시선을 던진채 생각에 잠겨있는 유진을 바라보며 옥림이 먼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때 와서 쓴 론문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는지 몰라요. 이번에두 오셨던김에 좀

불편하더라도 자주 찾아와 방조를 주세요.》

《상평지구에서 자주 오르내리겠소. 하지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와야 할것 같소. 아니 배우기 위해서라고 말하는게 더 정확할거요.》

《아이참.》

옥림은 얼굴을 붉히며 머리를 숙였다.

《그리구 론문이야 이미 동무가 쓰기 시작하지 않았소! 이 아름다운 고향땅우에다 손끝으로가 아니라 심장으로말이요!》

유진은 무슨 말이든 더 하고싶었다. 그러나 그는 말을 잊지 못하였다. 림토마을을 향해 떠나올 때 기쁨을 향유하며 또다시 새 론문을 쓰리라곤 생각했던 자신이 저주롭기만 하였다. 더우기 인간에 대한 경시로 하여 옥림의 지향을 알지 못하고 모든것, 그의 감정도 그의 생각도 단순한것으로 치부해버렸던 일이 떠오르자 그는 이마살을 찌프렸다. 들쭉의 무리가 흘러넘칠 그 미래를 위해 연구사업을 성심성의로 방조해나섰던 처녀의 마음을 단순한 사랑의 감정이라고 넘겨짚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나 역시 이런 촌에서 유년시절을 보내며 자랐건만 어찌하여 자기자신을 잊어버렸단말인가.

그것을 느낄수록 그는 괴로왔다. 그러나 그는 그 괴로움 못지않은 기쁨이 가슴속에서 새롭게 피어오르는것을 느꼈다. 상평지구에서의 보람찬 생활이 그를 기다리고있는것이다.

유진은 미소를 머금고 강대안쪽에 눈길을 던졌다.

아득히 펼쳐진 산줄기들은 희미하여 그 룹박을 알아보기 힘들었으나 강변낭떠러지들에 뿌리를 박고 서있는 소나무잎들은 무겁게 내려앉은 흰 눈송이들로 하여 그 갈피갈피가 뚜렷하게 드러나 보이고 청신하였다. 하얀 눈이 그 어떤 오묘한 조화를 부려서인지 얼마전까지만 해도 퇴색해보이던 단풍들마저 수채화로 채색하여놓은듯 빨간 바탕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툭툭 눈송이들이 떨어지는 소리, 나직이 주절대는 강물소리, 고요한 정적속에서도 권태를 모르는 자연의 음향이 줄곧 울렸다.

그래서인지 수정강상류쪽으로 뻗어간, 성에가 하얗게 불려 굵직한 바줄처럼 여러 갈래로 힘있게 쪽쪽 뻗어간 전선줄들은 마치 수정강상류에도 옥림이와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과 마을이 있고 생활이 넘쳐흐른다는 그 어떤 힘있는 목소리를 들려주는것만 같았다.



## 원소의 전설

박세옥

원소는 볼수록 기이하다. 보통 소라고 하면 대개 불빛이 검푸르나 원소는 회색빛을 띠고있다. 가는 잔물결 하나 일지 않는 원소에 비낀 거뭇거뭇한 버드나무들조차 그렇게 보인다.

푸른하늘에 뜬 흰 조각구름과 어울릴 때면 그 색조는 더 짙어보이는데 그때는 마치 회색빛의 진한 그림을 보는것 같다. 하지만 구름이 없을 때에는 물수면이 알릴듯말듯한 회색빛안개로 덮인것 같다.

어찌보면 원소는 마치 그 무슨 침묵을 안고 그림을 보는 사람들에게 그 침묵을 저리도록 느끼게 한다.

원소를 명주실한톨소라고도 부른다. 그것은 원소가 그렇게 깊다는것이다. 첫눈에도 그것이 알린다. 파란 물잔디가 덮인 바위가 물밑으로 사라졌는데 그 바위조차 겁에 질린듯한감을 준다. 때문에 보는 사람조차 두려운감을 느낀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언젠가 그 원소의 깊이를 재어보려고 명주실 한토리를 다 풀었는데 그것이 모자랐다는것이다.

어쩐지 그 말은 나로하여금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다. 대대로 이고장에 전해오는 원소에 대한 전설은 그것이 한갓 전설만이 아니였다. 그 의미 그대로 원한의 소라고 부르는 그 전설은 소박한것이 였으나 이고장 사람들의 눈물과 피에 대한 이야기였다.

나는 버드나무 실가지가 물우에 드리운 원소주위를 말없이 걸었다. 그러자 나에게 이 원소에 깃든 전설을 들려준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는듯싶었고 이 원소의 전설을 만든 그 비참한 운명들이 원소에 어려오는듯싶었다.

원래 원소자리는 지주 장재첨지의 집터자리라고 한다. 옛날 이곳에 지주 장재첨지의 아흔아홉간짜리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서있었다.

지주 장재첨지는 어떻게나 욕심이 많고 사나웠던지 그 집 대문앞에는 이고장 농민들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고 한다.

지주 장재첨지의 고간에는 쌀이 썩어나도 이고

장 농민들은 굶어죽었다. 지금도 전해오는 말이지만 지주 장재첨지는 장리쌀을 얻으러 온 한 농민에게 가지고 온 자루를 벌리라고 하고는 거기에 소똥을 퍼담아주었다는것이다. 그리고 장리쌀을 얻으러 오는 마을사람들을 보고는 소똥을 한 자루씩 퍼담아 주라고 대청우에서 고함을 질렀는데 그 고함소리가 어떻게나 요란했는지 이웃마을까지 들렸다고 한 다. 농민들의 눈물은 마를날이 없었다. 그들의 원한은 하늘에 사무쳤다. 이고장 사람들은 지주 장재첨지가 없는 세월을 바랐다. 그러던 어느해인지 알수는 없어도 오늘까지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지주 장재첨지의 고래등같은 아흔아홉간짜리집이 하루밤에 갑자기 물에 잠기고 그 집자리에 이 소가 생겼다는것이다.

그래서 이 소를 지주 장재첨지의 가혹한 착취와 억압에 눈을 못감고간 이고장 사람들의 원한의 눈물이 피여 이루어진 소라고 하여 원소라고 불렀다.

그때부터 이 마을을 원소동이라고 했고 원소마을이라고도 불렀다. 장연읍과 룡연읍사이에 놓여있는 이 마을을 지금은 룡정리라고하는데 지금도 사람들은 옛대로 원소마을이라고 한다.

지주 장재첨지가 없어지고 원소가 생긴 다음에도 이고장 농민들의 운명에는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눈물보다 더 진한 피가 이 원소에 고이기 시작했다.

원소가 생기자 안악, 태탄, 목암, 서울 지주들이 다투어 밀려와서는 이고장 농민들의 눈물인 원소의 물을 더 많이 가지겠다고 서로 먹살을 잡고 싸웠다. 지금도 원소에는 그때 지주들이 원소의 물을 더 많이 가지겠다고 서로 싸운 흔적인 크고작은 여러개의 물굽으로 나뉘인 흔적이 푸른 물이끼에 덮여 뚜렷이 남아있다.

그러니 이고장 농민들은 자기의 눈물조차 가질 수 없었다.

이고장 농민들은 원소를 곁에 두고도 바가지농사를 했다. 바가지로 곡식에 물을 퍼다주면서 자기의 피로 곡식을 키운것이다. 때문에 이고장 사

람들은 낱알을 빼앗긴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피땀을 빼앗기었던것이다.

이것이 지난날 자기 한몸을 늡힐 땅도 못가진 하늘도 낮을 돌린 이고장 농민들의 처지였다.

실로 이고장 농민들은 주름잡힌 땅처럼 시름에 겨운 마음이 퍼일 날이 없었고 눈물과 피의 력사가 끝없이 흘러갔다.

때문에 이고장 농민들의 원한이 그리도 깊어 원소가 저리도 깊은가싶고 원소의 불빛이 또한 저리도 류다른가싶어진다.

원소의 전설이 전해내려오는것이 백대째 내려온다고도 하고 천대째 내려온다고도 한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들의 운명을 바꾸어주지 못했다.

그러나 그 전설은 우리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우리 인민의 운명과 함께 훌륭히 바뀌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가장 큰 사회경제적변혁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이 없고 근로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제도가 선것입니다.》**

지금 원소의 물가에는 2층3층 농촌문화주택들이 일어선 룡정리일각이 아름다운 그림처럼 비껴있다. 그리고 행복한 웃음만이 어린 얼굴들이 그 원소의 맑은 물에 자기의 얼굴을 비쳐보며 웃는다.

원소에서 마주보이는 불타산기슭으로 흰구름인양 양떼들이 흐르고 능금들이 무르익고있다. 그리고 원소의 뒤로는 설레는 금나락에 실려 백학이 둥둥 떠있다.

이 모든것의 주인이 바로 이 원소의 전설을 만든 그들의 자손들이다. 원소의 전설처럼 변함없으리라던 그들의 운명을 이렇게 전변시킨것은 우리의 위대한 수령님이시며 우리의 당이다.

원소가에는 영광의 사적비가 서있다.

원소는 그 영광의 사적비를 언제나 자기의 그 한가슴에 깊이 간직하고있다.

때문에 그 사적비의 빛나는 글발들이 수정같이 맑은 원소에 한가득 새겨진듯 차넘치고있는것이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이다.

룡연군종합농장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원소를 찾아주시였다.

이고장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날 웃는 원소를 보았다고 한다.

그날 이곳 한 농민으로부터 이 원소에 깃든 원한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대를 이어 전해오는 이 고장의 전설이 그렇듯 가슴저미시는듯 오래도록 원소가를 걸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걸음은 무거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동안 걸음을 멈추시고 말쑥없이 원소를 바라보시다가 이고장 농민들의 원한이 깃든 이 원소물을 이고장을 락원으로 전변시키는데 리용할데 대한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시였다.

오늘 원소마을 사람들은 말그대로 락원에 살고 있다.

룡연군종합농장의 분장의 하나인 룡정리는 먹고도 남는 몇천톤의 쌀을 다른고장에 보내고있다.

오늘 룡정리는 가장 높은 공산주의형태인 전민 소유제에 기초하고있으며 룡정리사람들의 농업로동은 벌써 발전된 공업로동의 수준에 올라서고 있다.

이것은 땀과 농민들의 운명에서 가장 위대한 전변인것이다.

이것은 땀과 농민들의 운명이 영원히 해결되어 가고있는 모습인것이다.

오래도록 나는 원소의 물가에 서있었다.

가장 원한이 많던 땅, 그 땅이 오늘은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에 의하여 가장 행복한 땅으로 되였다.

원한의 소가 이제는 영원히 웃는 소로 되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 농민들의 얼굴이며 원소의 새 전설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농민들의 운명의 력사이고 이 땅의 력사인것이다.

나는 원소에 비낀 과거와 오늘의 모습앞에서 향도의 해빛을 받아 끝없이 변모될 조국의 미래를 끝없이 바라보고있는것이다.

원소마을에서

# 뼈꼭새가 풍년든다 노래부름은...

석광희

술바람 싱그러운 앞산에 앉아  
해종일 울어에는 뼈꼭새 뼈꼭새야  
어쩌면 그리도 진정에 넘치느냐  
풍년든다 풍년든다  
뼈꼭뼈꼭 지칠줄 모르느냐

네가 무슨 예언자로 태어났다고  
앞날에 있을 일을 미리 알라만  
갈수록 겨워서 성수가 나서  
그렇듯 큰 믿음과 기쁨을 담아  
풍년든다 목청껏 노래부름은?...

너도 어느새 본게로구나  
가슴으로 안아키운 애기모를  
한포기도 상할세라 정성껏 떠서  
때없이 쏟아지는 소나기를 맞으면서도  
들판이 들썩하게 모를 심던  
우리네 농장원들의 일모습을

정말 다 본게로구나  
사날에 걸려야 할 일  
하루에 하고도 성차지 않아  
서산에 저무는 해  
야속스레 흘려보던 청년분조원들의 마음

그 마음에 이는 불을  
손에 손에 화불로 켜든 맘  
다락발 돌기돌기  
이랑을 타고  
어둠을 떠밀며 강냉이영양단지 옮겨심은  
세찬 숨결 거센 맥박을

아, 한알의 난알이라도  
더 많이 내어  
수령님께 기쁨 드릴  
그 한소원을 저마다 안고

땅과 하나가 되어 굶는 사람들

흙을 주무르고  
땅을 온통 쓸어만지며  
이 한철 농칠세라 벌에서 살고있기에  
흙빛으로 물든 작업복자락이  
말로는 다할수 없는 그 많은것을 생각해 하나니

땅에 쏟는 그 정성이  
수령님과 당에 바치는 충성심을 새기고  
뜨거운 손자욱 안난데 없는  
저 넓은 농장의 이랑마다 고랑마다  
점점이 숨배인 구슬같은 땀

그 정성 그 충성이  
어찌 땅을 살찌우지 않으랴  
어찌 낱알을 영글게 하지 않으랴  
경사중에도 가장 큰  
나라의 경사로 되는  
만풍의 금나락 설레게 하지 않으랴

밭을 갈고  
씨뿌리고  
김을 매는  
가는 봄 오는 여름 변함이 없이  
풍년노래 부르는 뼈꼭새 뼈꼭새야  
너는 비록 예언자는 아니여도  
아 모든것의 참다운 증견자이노니

앞산에서 뼈꼭  
뒤산에서 뼈꼭  
더 높이 목청을 돋구어라  
그 믿음 헛됨이 없으리  
그 기쁨 어김이 없으리  
올해도 풍년이다  
갈데올데 없는 만풍년이다

## 고향 외 1편

동기춘

어쩌다 들린 길이어서  
손잡고 놓을줄 몰랐던가  
나를 키워준곳이길래  
그 정이 후더워 눈시울 젖었던가

잠시 묵어가리라 소리없이 들렸건만  
온 마을이 뜨거이도 안아준 품  
방이 좁도록 옛동무들 앉았다 간 이 밤에  
잠 못드는 마음을 들길에 옮기며  
생각하느니 내 고향

너는  
첫울음 터친 그 새벽에  
병글은 미소로 태줄을 꿰어준곳  
이 세상을 내다본 첫 눈동자에  
어머니 얼굴너머 비쳐든 흙벽이었다

너는  
일찌기도 나를 철들게 한  
잊을수 없는 발머리  
분여지에 박히는 패말을 붙잡아주며  
내 삶의 목적을 세운 그 발머리였고

우리창너머로 실레는 뽀뽀라를 내다보며  
우리 말을 배우던 첫 학교  
들끝에 날아가는 흰 구름을 쫓으며  
멀리 저 멀리  
어린 꿈에 날개를 키우던 산마루

추억의 서정시로 가슴에 따듯한  
첫사랑의 남모르는 그 자옥도  
물벼들 내가여, 너는 새겼으니  
고향아, 그대는 아니던가  
불붙던 내 사랑의 그 시내가

다감하고 열정이던 시절에  
내 로력으로 이삭이 영글던  
개간지의 첫이랑들이여  
노란 민들레꽃을 길섶에 수놓고  
뜨박뜨리의 바퀴자리를 진하게 새겨안던

읍으로 뻗은 동구밖 휘우듬한 길이어

젊어지는 조국에 젊음을 더해주며  
오늘은 살오른 풍만한 가슴을 젖히고  
바람결에 금빛 옷자락 날리는 산천아  
내 비록 너를 떠나 먼곳에 있어도  
너는 내 목숨 내 청춘 내 사랑  
내 시줄에 자주 울린 삶의 정든 노래

위대한 수령님 인민이라 불러주시는  
소박한 이웃들이 사는 마을이여  
내 옷밧의 허물자리도 기억하는  
그네들의 눈빛이 나를 지켜보는곳이여

지금 내 걷는 길가  
여기 산기슭 유리집거리엔  
싱싱한 오이냉쿨이 소리치고  
저 웅달샘물가 마을끝집에도  
텔레비존에 마주앉아 평양과 호호하는 소리...  
예전에 없던 생활의 복된 자옥들도  
내게는 이미전에 낯익은듯 정다운  
아, 내 고향

너는 언제나 가슴에 소중히 깃들어  
내 못잊는 신성한 그 모든것에  
옥됨이 없이 살기를 바라며  
어디 가나 성실한 마음 지니라  
어머니인양 말없이 량심에 타이르거니

영웅은 죽어도 돌아오는곳  
역적은 살아도 못오는곳

고향이여, 그래서 너는  
깨끗한 마음  
찾기 쉬운곳인가  
얼룩진 마음  
밟기 힘든곳인가  
누구든 살아가는 한생에  
조국에 대한 량심의 거울이던가.

## 길

내앞에 길이 있네  
눈감고도 걸으리라 고향길  
그러나 나는 걷지를 못하네  
길이여 길이여  
너 이다지도 작고 좁았던가

흰집, 높은 추녀, 은빛안테나  
낮익고 낮이 선 저 마을로  
뜨락또르 험겁게 엇갈리도록  
길이여 길이여  
너는 그 몇번 넓어졌으랴

봉긋한 너의 잔등  
날씬하게 휘어든 기슭마다  
벼바다의 나락이 덮을듯 파도치고  
강냉이숲이 밀림처럼 우거졌으니  
길은 오히려 좁아진듯하구나

눈감은들 못걸으랴 정든 길  
그러나 선뜻 걷지를 못하네  
수령님 은덕에 고향은 풍만해졌구나  
길이여 길이여  
넓혀도 좁아진 고향길이여

## 한마음

### 리금녀

눈송인가  
꽃잎인가  
밤이나 낮이나  
하얗게 쏟아지는  
은비료

하조장 밖에서는  
농장의 트랙토르  
갈길이 급하다고  
발동소리 높이는데

아이참 누가 모르나봐  
귀밑머리 쓸어올리며  
일손 다그치는  
비료산처녀

소원을 담아 한포대  
믿음을 담아 또 한포대  
콘베아에 얹으니  
미끄러져 내려 내려  
춤추는듯 흘러 흘러

어느새 풍년비료  
가득히 담아실고

십리구내 아득히 멀어지는  
트락토르의 불빛

보내는 가슴에도  
봄  
떠나는 가슴에도  
봄

두 젊은이 사는곳  
구내와 벌이어도  
만나 말한마디  
나눈적은 없어도

포기포기 푸른 포기  
함께 키우며  
자나깨나 쌀산만을  
생각하기에

언제나 한마음  
가닿는곳은  
아버이수령님 기뻐 서계실  
만풍년의 그 계절  
황금벌에 있어라

## 참된 삶과 존엄을 찾은 인민들의 영웅주의를 감명깊게 형상한 혁명적대작

은종섭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은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속에서 참된 삶과 인간적존엄을 받아안은 유격근거지인민들의 보람찬 생활과 불굴의 투쟁을 영웅서사시적 화폭속에 감명깊게 형상한 혁명적대작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소박하고 평범한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적으로 각성되기만 하면 참말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아무리 불리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능히 자체의 힘으로 혁명을 할수 있다는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박하고 평범한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적으로 각성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무적의 힘을 떨치고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면서 혁명과 건설을 줄기차게 밀고나간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승리와 영광의 자랑스런 길을 걸어온 우리 혁명이 웅변적으로 확증해주는 혁명의 귀중한 진리이다.

조선혁명을 자랑스런 승리의 한길로만 이끌어온 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는 소박하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존엄이고 보람찬 삶을 안겨주시고 참된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워주신 숭고한 사랑의 력사이며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혁명전사들의 순결한 충성심, 수령과 전사간의 뜨거운 의리로 인류사의 가장 감동적인 페이지를 기록한 영광찬란한 력사이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를 예술적화폭으로 재현한 총서 작품들에는 폐의없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속에 혁명가로 자라나는 보통사람들의 보람찬 성장과정과 그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 태양의 품속에서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의 자랑스런 모습이 생동하게 그려지게 된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조선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진실하게 형상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며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풍모를 높은 인간학적경지에서 감명깊게 그려내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그중에서도 특히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두만강연안에 조선혁명의 책원지인 유격근거지를 창설하시고 인민의 새세상을 마련해주신 불멸의 업적과 그 거대한 의의를 형상화하는 소재적특성으로부터 참된 삶과 존엄을 받아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영웅적으로 싸

운 인간들의 형상이 작품의 형상계렬에서 기본을 이루고있다.

김창억일가와 마종삼부자, 애인들인 최진동과 림성실, 정문혁과 현옥심 그리고 쌍암촌의 지유복과 류다섬의 한설봉로인이며 박수호와 박수원 형제 등 실로 장편소설들에는 불행과 설움을 타고난 운명처럼 여겨온 나이든 농민들과 혁명적열정에 넘치는 열혈청년들, 혁명적인 녀성들과 로인들, 종파분자들의 망동에 함께 춤추던 사람들과 적기관에 복무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참된 삶과 인간적존엄을 받아안고 보람찬 혁명의 길에 나선 각계각층 인간들의 긍지높은 형상이 펼쳐져있다.

소설은 계급적 토대와 환경으로부터 사회적치지와 경력, 사상의식과 준비정도, 성격과 나이에 이르기까지 모두다 제 나름인 이들의 운명선을 하나의 궤도로 지향시킨 거대한 견인력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것을 깊이있는 예술적형상으로 밝히면서 참된 삶을 받아안고 영광찬 혁명의 길에 나선 인간들이 발휘하는 거창한 힘과 영웅적위훈을 근거지방위의 영웅서사시적화폭속에 생동하게 펼쳐보이고있다.

유격근거지가 창설된 첫날부터 제놈들의 통치지역안에 수립된 이 무산민중의 세상을 요람기에 없애치우려고 봉쇄와 《토벌》을 끊임없이 감행하던 일본침략자들은 근거지에 새생활이 확고히 꾸러지고 그 영향력이 막을수 없는 거대한 힘으로 장성된 1933년말에 이르러서는 유격근거지를 결정적으로 없애버릴 야망밑에 군대와 경찰, 헌병들로 이루어진 수만명의 병력을 투입하여 근거지를 겹겹이 포위하고 대규모적인 《토벌》공세를 발광적으로 감행하여나섰다. 일제가 벌린 작전의 규모는 참으로 엄청난것이였다.

갓 창건된 항일유격대와 얼마간의 반군사조직성원들을 가지고 아무런 국가적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수적으로나 무장에서나 대비조차 되지 않는 이 방대한 무력과 맞서 놈들의 대규모적인 공세를 짓부시고 어떻게 근거지를 지켜낼수 있겠는가. 이것은 보통군사상식으로서도 도저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근거지인민들은 굴하지 않고 한결같이 떨쳐일어나 무비의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싸웠으며 여러달째 계속된 간고한 싸움에서 마침내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 유격근거지를 믿음직하게 지켜냈다.

파연 무슨 힘이 얼마전까지도 슬픔과 한탄으로 세월을 보내던 평범한 사람들을 한결같이 영웅적 향전으로 불러일으켰으며 류례없이 간고하고 엄혹한 싸움을 승리에로 결속한 기적을 창조하게 하였는가. 소설은 조선혁명발전에서 근본적의 과제의 하나로 제시하고 빛나게 해명하고있다.

소설은 항일무장투쟁에서 찬연히 빛나는 소왕청 근거지방어전투를 실재한 역사적사료에 기초하여 형상적으로 재현하면서 구체적인 인물들의 생활과 투쟁, 운명선에 대한 묘사와 영웅적인 근거지방어전에 대한 전경적묘사를 유기적으로 배합하여 제기한 형상과제를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밝히고 있다.

작품에는 가렬한 결전장을 종횡무진하며 정예를 사랑하는 일제침략군을 무리로 쓸어넘기는 유격대원들, 바위돌을 굴리며 원수를 죽치는 로인들과 비발치는 탄환속을 뚫고 불사조마냥 밥을 이어나르는 녀인들 그리고 원수들의 삼엄한 경계속에서 목숨걸고 근거지를 지원해나선 반유격구와 국내의 각계각층의 인민들, 말그대로 군민이 하나로 뭉치고 근거지인민들과 근거지밖의 군중들이 한결같이 떨쳐일어나 무비의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며 싸우는 대인민전쟁의 장엄한 화폭이 펼쳐져있다.

소설은 생동한 사실주의적필치로 묘사된 영웅서사시적화폭을 통하여 형언할수 없이 간고하고 준엄한 이 싸움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비결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평장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전략전술, 탁월한 령도와 함께 참된 삶과 인간적존엄을 받아안은 인민들이 발휘한 무비의 영웅주의와 불굴의 투지에 있다는것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인하고있다. 나아가서 소설은 인민들이 발휘한 이러한 불굴의 투쟁정신과 무비의 영웅주의는 가장 값높은 인간적존엄과 참된 삶을 안겨주신 아버지수령님의 대해같은 사랑과 은정에 보답하려는 우리 인민의 티없이 맑고 순결한 충성심에 기초하고있으며 그 직접적인 발현이라는것을 깊은 정서적감동을 가지고 해명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이 소설의 심오한 철학성과 소설이 거둔 커다란 사상예술적성과의 하나가 있는것이다.

소설은 참된 삶과 인간적존엄을 받아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떨쳐나선 다양한 인물들의 형상을 창조하면서 그들호상간의 관계를 깊이있게 맺어주고 성격발전을 탐구하기보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탐구에, 다시말하면 수령과 전사간의 사랑과 충성, 의리관계를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해명하는데

묘사를 집중하면서 충성과 의리가 낳은 불굴의 투지와 거대한 위력, 영웅적위훈을 생동하고 감명깊게 그려내고있다.

작품의 이야기줄거리의 중심에는 일제의 야수적 《토벌》에 참혹한 수난을 겪고 종파분자들의 좌경적망동의 회오리속에서 몸부림치던 김창억일가가 서있다.

무참하게 쓰러진 두 형의 복수를 위해 유격대입대를 단원하였다가 조혼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결당하고 혁명적열정이 여지없이 꺾이며 번민에 빠진 김창억, 혁명을 할 사람이 따로 있는 모양이니 우리는 농사나 짓자고 좌절감에 사로잡힌 그의 아버지 김진세로인, 고민하는 남편을 보다 못하여 자기만 없어지면 모든것이 풀리리라고 남몰래 집을 뛰쳐나가버린 안해 윤보금, 말그대로 김창억일가는 종파분자들의 좌경적망동으로 서리맞은 풀잎처럼 시들어가고있었다. 여기에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따사로운 사랑의 해빛이 비친것이다.

장군님께서서는 창억이의 어깨에 몸소 총을 메워주시고 자신의 몸가까이에서 싸우도록 최상의 영예까지 안겨주시였으며 한평생 고역과 천대속에 허리가 굽은 김진세로인을 토지분여를 위한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내세워주시고 보금이를 찾아 남편과 함께 보람찬 혁명의 길을 걷게 해주시였다.

보금이에 대한 아버지수령님의 사랑과 배려는 참으로 우리의 가슴을 감동케 한다.

장군님께서서는 집을 나간 보금이가 본의아니게 근거지에서는 도주자로 몰리우고 친정마을에서는 소박맞은 녀인이라는 억측과 비난에 싸여 모대기고 있을 때 친부모조차 알아주지 못했던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곳까지 헤아려보시고 남편을 혁명에 참가시키자고 향간의 험한 루를 무릅쓴 가룩한 소행이라고 은정어린 평가를 주시였으며 남편을 위해 희생하는 그 마음을 바로 이끌어만 주면 혁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으로 자랄것이라고

그를 잘 돌봐 주라고 가슴뜨거운 가르치심을 주신다. 진정 인민들에 대한 우리 수령님의 사랑과 은정은 깃뻛히고 명든 사람들의 가슴에 참된 인간적존엄과 생의 환희를 안겨주시는 무한히 숭고한것이고 사람들의 가슴밀창에 피여있는 설움과 원망, 희망과 념원 까지도 속속들이 헤아려주시는 한없이 다식하고 자애로운것이며 본인조차 알지 못했던 장점을 빠짐없이 찾아내시여 혁명에 이바지하는 힘으로 키워주시고 온 세상에 빛을 뿌리도록 내세워주시는 비길데없이 웅심깊고 뜨거운것이다.

이 말씀을 전해들은 윤보금녀성이 북받치는 격정에 오열을 터뜨리면서 평생을 오직 우리 장군님을 위해 살아가리라고 굳은 마음을 다지고 또 다지며 딸자식때문에 속을 태우던 윤치석이 장군님께서 바라시는것이라면 뼈를 아끼지 않겠으니 아 무 일이나 맡겨달라고 눈물을 삼키며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웅당한 인간적감정의 발로였다.

이것은 비단 김창익일가에 한한것이 아니다. 폐기발마저 《공동경작》에 넘기라는 좌경분자들의 쏘베트로선에 불만을 품고 근거지를 뛰쳐나간 후 치욕스러운 운명의 나락에 빠졌다가 장군님의 따뜻한 품에 안겨 1등전도지를 분여받은 마종삼로인이며 장군님의 손길아래 혁명가로 자라났고 그이의 세심한 보살핌속에 여성버성해졌던 애정관계까지 바로잡히여 참된 혁명적사랑을 몇몇이 누리게 된 최진동과 림성실 등 이들의 심장속에 한결 같이 굽이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것, 지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다는 순결한 의리감과 진실인것이다. 바로 이러한 뜨거운 마음들이 모이고 뭉치여 우리 혁명의 주체적인 력량을 이루고있으며 이러한 마음들이 행동으로 옮겨져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관철하는 투쟁에서 무비의 영웅주의와 기적을 낳게 되는것이다.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우리 혁명대오의 비할바없는 공고성과 무적의 위력, 어떠한 역경도 뚫고 나가고 어떠한 강적도 타승하는 그 필승불패의 비결이 있다. 소설은 이 심오한 진리를 구체적인 산 인간의 생활과 운명을 통하여 감동깊게 밝혀내고있는것이다.

아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에 보답할 불타는 열망을 안고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길에 몸바쳐나선 사람들이기에 주인공들의 혁명적투지와 영웅주의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모시고 수령님의 안녕을 지켜나가는데서 가장 뜨겁게 발현되고있으며 그것은 근거지보위의 간고한 나날들에 더욱더 뜨겁고 역세게 표현된다.

장군님께서 신출귀몰하시며 지휘처를 옮기실 때마다 남먼저 달려가 억척같이 은폐호를 파고 귀틀막을 꾸리며 사령부가까이로 적들이 접근할 때면 비호같이 뛰어가 쏘아버리고 장군님의 안전과 전투지휘를 보장하는 창역이, 장군님께도 쉼뿌리를 대접한다는 머느리의 이야기를 듣자 왜놈들이 육질거리는 마을로 서슴없이 들어가 목숨을 걸고 식량을 파내어 아버지수령님께 보내드리는 김진세로인, 근거지에 지원물자를 구해보내는 사업에 한몫을 바치고 목숨이 지는 마지막순간에 따로 꾸린 천과 솜으로 장군님께 군복을 지어드리라고 당부 하고 또 당부하는 최진동의 감동적인 형상은 참으로 만사람의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

소설에는 적들에게 붙잡힌 김진세로인이 수감자들속에 끼여든 밀정놈을 적발처단하는 장면이 극명하게 묘사되어있다.

소설은 혹독한 고문까지 받고 누워있던 로인이 사람들속에서 장군님의 행처를 알아낸자가 밀정임을 확인한 순간 번개같이 달려들어 가로타고앉아 필사적으로 발악하는놈의 숨통을 조이고 당황

한 원쑤놈들이 이리때처럼 덤벼드는속에서도 끝내 놈을 요정내고야마는 거인적모습을 통하여 장군님의 안녕에 겨레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억척같은 신념과 참된 인간적생을 주신 은인이신 장군님에 대한 순결한 의리가 사람들속에서 어떻게 무비의 용기와 기적적인 힘을 낳는가를 생동한 형상으로 보여 주고있다.

참된 생활과 인간적존엄을 받아안은 근거지인민들의 불굴의 투지와 영웅정신은 근거지방위를 위한 투쟁에서 유감없이 발현된다.

가렬한 결전장에서 번개같이 좌충우돌하며 왜놈들을 무리로 쏘어눅히고 《황군》의 무용을 자랑하는 소좌 사또놈과 단독으로 맞서 끝내 정벌의 철추를 안기는 창역이며 동호, 무서운 바위사태를 들썩우는 위력한 《돌대포》를 궁리해내어 왜놈들을 통쾌하게 멸살시키는 김진세와 마종삼로인, 적아간의 처절한 백병전이 벌어지는 속으로 다듬이방망이를 틀어쥐고 밥함지를 이고달리는 보금이와 성실, 이들의 불사신같은 모습은 인민들의 순결한 충성심이 낳은 불굴의 의지와 무적의 위력에 대한 힘있는 예술적확증으로 된다.

현당강사인 정문혁의 형상은 소설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있다. 정문혁으로 말하면 종파분자들이 내건 쏘베트로선을 지지해나서고 그 선전에 열광하던 사람이며 쏘베트로선의 좌경적오류를 깨우쳐주시는 장군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잘 납득이 안되어 장군님 숙소에까지 무엄하게 뛰어들어 불손하게도 쏘베트야 혁명실천에서 그 정당성이 검증된 정권형태가 아닌가고 열변을 토하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대해같은 도량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를 조금도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솔직성을 귀중하게 평가해주시면서 밤을 밝혀가며 진지하게 우리 혁명의 성격과 과업을 깨우쳐주시고 주체의 진리로 사대와 교조에 물든 그의 낯을 정화해주시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주체형의 인간으로 새롭게 태어난 정문혁은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근거지에서의 혁명적변혁을 위한 투쟁에 몸바쳐 싸우며 그후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다시 머리를 쳐든 종파분자 송해일이 그를 끌어당기려고 하자 나는 죽어도 **김일성** 동지의 로선을 옹호할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하면서 놈의 비렬한 배신 행위를 추상같이 단죄하여나선다. 정문혁은 근거지방어전의 가렬한 결전장에서 부상을 당하나 이 성스러운 싸움터에 자신의 피자옥이 스며있는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면서 불굴의 투지로 용맹하게 싸운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그 불패의 생활력에 대한 힘 있는 과시이며 그가 누구이든 대해같은 도량과 포용력을 지니신 수령님의 품에 한번 안겨 참된 삶의 길을 찾으면 그이께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멀고 험난한 혁명의



길에서 끝까지 충직하게 살며 싸워온 조선의 모든 혁명가들과 량심적인 인간들의 공통적인 생활과 운명에 대한 예술적 일반화로 된다. 여기에 정문혁의 형상이 가지는 참된 가치와 의의가 있는 것이다.

소설에 그려진 박수호와 박수원 형제의 형상은 위대한 수령님의 한량없이 뜨겁고 숭고한 믿음 속에 참된 삶을 받아안은 인간의 존엄과 힘을 뚜렷이 보여주는 빛나는 형상이다. 박수호는 혁명투쟁에 몸바쳐나섰으나 사촌형이 면장이라고 종파분자들에게 배척을 당한후 절망과 한탄 속에 세월을 보내던 사람이며 면장 박수원은 한때 독립운동을 방조한 일까지 있으나 일제놈들에게 아부굴종하는데서 살길을 찾으면서 혁명투쟁에 방해를 끼쳐 지방혁명조직에서 처단해줄것까지 제기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들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면장인 형때문에 동생을 의심할것이 아니라 신념이 강한 혁명가가 형을 휘어질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시며 박수호를 투쟁의 앞장에 세워주시고 박수원에게 남아있는 한조각의 량심을 헤아리시여 그를 애국의 길로 이끌어주시기 위한 은정깊은 조치까지 취하여주신다. 참으로 이것은 인간의 신념과 량심에 대한 무한히 숭고하고 확고한 믿음이었다. 이러한 믿음은 인간에게 백배의 용기와 힘을 안겨주는 법이다. 소설은 아버지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받아안은 박수호형제가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반유격구를 튼튼히 꾸리고 근거지를 원호하는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우며 보람찬 삶을 빛내여가

는 모습을 다양한 생활적화폭속에서 감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주체위업을 개척하시고 승리의 한길로 향도해 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는 인간불신의 온갖 경향들과의 투쟁속에서 인간에 대한 가장 철저하고 뜨거운 믿음이 빛나는 승리를 이룩해온 자랑스런 력사이기도 하다. 소박한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들고 치욕의 나락에서 헤매던 사람들도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보람찬 삶과 위훈을 빛내이도록 하는 이 위대한 믿음이 낳는 거대한 생활력의 일단을 소설은 박수호와 박수원의 개성적인 형상속에 생동하게 구현하였다.

참으로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품에 안겨 인간존엄과 참된 생을 받아안은 우리 인민들의 보람찬 삶과 투쟁에 대한 장엄한 송가이며 아버지수령님의 대해같은 사랑과 은정에 보답하려는 순결한 진심이 낳은 거대한 힘과 영웅적위훈을 서사시적화폭속에 감명깊게 형상한 혁명적대작이다.

세인을 경탄시키는 위대한 승리와 기적적인 성과만을 기록해온 조선혁명의 자랑스런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구상과 비범한 령도의 력사인 동시에 아버지수령님과 인민들, 혁명전사들 사이에 맺어지고 엮어진 사랑과 충성, 의리의 감동적인 력사라는것을 개성적인 예술적형상으로 빛나게 확증한것으로 하여 소설은 우리 근로자들과 독자들속에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열정을 더욱 북돋아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촉진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할것이다.

## 인간 내면세계의 깊이와 세부묘사

### 명일식

창작적열정의 산물이며 사색과 탐구의 열매인 문학작품이 사람들을 더 크게 감동시키고 그들에게 혁명적량식을 주는 참다운 생활의 교과서로 되자면 인간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

인간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그리는 문제는 숨쉬며 사고하는 산 인간을 기본대상으로 하여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는 문학자체의 기본요구이며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의 중요한 미학적 요구이다.

인간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그리지 않고서는 숨쉬며 사고하고 사색하는 산 인간의 뜨거운 숨결과 맥박이 느껴지는 진실한 생활을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형상할수 없다.

특히 자주성의 새시대인 오늘 주체시대 인간들의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옹고 형상하자면 인간의

내면세계를 더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

내면세계는 인간의식에 반영된 외부세계이다.

다시말하면 등장인물들의 내부적 초상이나 행동만이 아니라 그것들까지 포함한 전일적인 내부세계 즉 복잡하고 광범한 외부세계의 인간의식에의 반영이다.

이 반영은 단순한 복사가 아니라 외부세계의 재가공이다.

그만큼 인간의 내면세계는 복잡하고 다양하다.

숨쉬며 사고하며 사색하는 산 인간은 자주성을 가진 사회적존체로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룰리도덕적인 관계속에서 생활하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심리정서적 체험과정을 거치게 된다.

인간은 누구나 다 기이한 주위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난다. 따라서 그들의 계급적처지도 같지 않으며 사상의식수준도 수양정도도 다르다.

그런것만큼 생활속에서 사람마다 느끼고 체험하는 심리정서적체험과정도 다양하고 복잡하다.

인간의 내면세계는 무한히 다양하고 복잡할뿐 아니라 언제나 구체적이다.

그것은 인간의 내면세계가 그 어떤 추상적이며 일반적인 결과가 아니라 결과에로 이르는 섬세하고도 구체적인 심리적움직임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산 인간은 뜨거운 숨결로 숨쉴뿐아니라 부단히 활동하며 사색한다.

작가는 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구체적인 인간 내면세계의 미묘한 움직임을 깊이 파고들어가야만이 인물성격의 개성적특징도 잘 살릴수 있으며 종자의 요구에 맞게 생활을 진실하게 묘사할수 있다.

인간의 내면세계를 더 깊이 파고들면들수록 주체시대의 인간전형인 공산주의혁명가의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더 깊이있고 풍부하고 생동하게 그린 사상에술성이 높은 훌륭한 문학작품을 창작할수 있다.

인간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그리는데서 중요한것은 심리를 잘 그려내는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생활에서 인간심리가 잘 드러날수 있는 인상적인 세부를 찾아 그릴 때 그 생동성과 진실성은 더욱 강조될수 있다.

세부묘사는 생활을 생동하고 심도있게 그려내기 위한 기본단위로서 그 어떤 설명이나 해설로써도 대신할수 없는 커다란 힘을 가지고 인간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보여줄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실생활을 생동하게, 심도있게 그려낸 사실주의적문예작품만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현실을 잘 알아야 하며 인민대중의 생활속에 깊이 파고들어가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생활속에 깊이 들어가 특징적인 생활세부를 잡아쥐고 세부묘사를 잘해야만 산 인간의 숨결과 맥박이 느껴지고 사색하는 인간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그릴수 있으며 하나를 통하여 열, 백을 보여줌으로써 예술적형상의 참다운 가치를 빛내일수 있다.

작가는 무수한 생활세부가운데서 어떤 세부를 어떻게 선택하여 묘사하는가 하는데 의하여 인간의 내면세계를 더 깊이있게 그리고 풍부하게 보여줄수 있으며 인물들의 뒤생활과 또 앞으로 있을 일까지도 환히 내다보게 한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에서 다듬이질소리와 빨래줄에 대한 세부묘사

와 눈우에 찍혀진 림성실의 발자국에 대한 세부묘사가 바로 인간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보여준 좋은 실례로 된다.

특히 당시 우리 나라의 농촌과 마을들에서는 그 어디에서나 흔히 들을수 있는 평범한 다듬이질소리에 대한 세부묘사는 매우 인상적이며 특징적이다.

《김진세는 먼발치에서도 다듬이질소리를 듣고 머느리가 하는것인지 로친네가 하는것인지를 인차 가려들을수 있었다.

로친네의 다듬이질소리는 기본에 따라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면서 그 가락이 고르롭지 못했으나 머느리가 하는 다듬이질소리는 언제나 봐야 한결같이 고르로왔다.

그는 다듬이질소리를 들으며 그저 체성미대로라니까 하고 혀를 차는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김진세는 지금도 고르롭게 들려오는 다듬이질소리를 듣노라니 다듬이돌에 빨래를 접어놓고 그 앞에 꿇어앉아 부지런히 방치를 놀리고있는 머느리의 자태가 눈앞에 그런듯이 떠올라 자주 눈을 습벅이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였다.

그런데 일매지게 고르롭던 그 다듬이질소리가 오늘따라 이전과는 다른 음조를 띠며 들려왔다.

그 소리는 집안사람들을 위로하는듯 부드럽게 잣아내리다가도 애끓는 마음을 하소하는듯 갑자기 구슬픈 음조를 띠면서 가락도 작아지는것이였다.

쇠스랑을 짚고 서서 다듬이질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그의 눈은 어느덧 우수에 젖어 침울하게 흐려졌다.》

김진세로인은 고르롭지 못하고 가락이 형클어진 머느리의 다듬이질소리 하나를 듣고서도 그의 복잡한 내면세계의 깊이를 헤아려본다.

가락이 고르롭지 못한 다듬이질소리에 대한 세부묘사는 또한 소리를 듣는 김진세로인의 내면세계까지도 깊이있게 보여준다.

이 세부에서는 다듬이질소리 하나를 통하여 그 어떤 해설이나 설명으로써도 대신할수 없는 머느리와 김진세로인의 복잡한 내면세계를 더 깊이있고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원래 다듬이질은 예로부터 조선녀성들의 알뜰한 일솜씨와 깨끗한 마음까지 그대로 보여주면서 전해내려온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있는 고유한 생활풍속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마을들에는 그 어디에서나 다듬이질소리가 하나의 노래처럼 정다운 음조를 띠고 들리어왔다.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은 이러한 평범한 다듬이질소리를 깊이있게 파고들어 생활의 본질을 담아 인상깊게 묘사함으로써 단순히 우리 조선녀성

들의 알뜰한 일숨씨나 깨끗한 마음만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보여주면서 인물들의 개성적인 성격적특징까지 뚜렷하게 부각시켜 주고있다.

독자들은 이 다듬이질소리에 대한 세부묘사를 통하여 평상시에 투닥거리며 가락이 맞지 않게 들리어오는 로친네의 다듬이질소리가 금시 귀에 들리어오는듯이 느끼여지면서 탄력이 없고 누그러진 그의 성미와 일숨씨를 눈앞에 보는듯 가늠해보는가 하면 가락이 고르롭게 들리어오는 머느리의 다듬이질소리를 들으면서 알뜰하고 얹전하며 탄력있고 젊음이 약동하는 그의 일숨씨와 마음과 함께 고운 얼굴까지도 그려본다.

그런데 지금은 왜 머느리의 그 알뜰한 일숨씨와 약동하는 젊음과 탄력이 다 없어지고 가락맞지 않는 그의 다듬이질소리가 김진세로인의 흥벽을 것처럼 아프게 두드리며 들리어오고있는것인가.

머느리의 이 다듬이질소리의 가락이 고르롭지 못한것은 그의 마음속에 잘못된 그 어떤 큰 변화가 있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그러면 마음속에 생긴 커다란 변화란 어떤것이겠는가?

그것은 머느리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파고들지 않고서는 알수 없다.

왜냐 하면 평상시에 일매지게 고르롭던 머느리의 다듬이질소리가 이전과는 달리 집안사람들을 위로하는듯 부드럽게 잦아내리기도 하고 애끓는 마음을 하소하듯 구슬픈 음조를 띠면서 작아지는 그 가락속에는 어디에 말할수도 없고 헤쳐보일수도 없는 그의 운명적인것이 깊이 깔려져있기때문이다. 다시말하면 윤보금이 이 집에 그냥 남아있는가 아니며 말만 들어도 가슴터지는 생리별을 하여 영영 떠나가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가 그 순박하고 어진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고있는것이 다.

과연 무엇때문에 이처럼 알뜰하고 얹전하던 윤보금이 이런 뼈아픈 마음속 고통을 당하게 되는가?

그것은 단순히 윤보금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며 한가정만이 겪는 고통도 아니였다.

그것은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에서 보여주고 있는바와 같이 초기 근거지안에 조성된 커다란 난국의 하나인 좌경모험주의자들이 끼친 책동의 엄중한 후과이다.

좌경모험주의의 엄중한 책동으로 하여 두 형을 원쑤들의 손에 무참히 학살당한 윤보금의 남편 김창억은 유격대입대를 청원하였지만 그때마다 조혼하였다는 조건때문에 매번 부결된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김창억은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고심속에서 헤매이고있다. 이렇게 되자 그를 진실로 사랑하고있는 윤보금은 어쩔바를 몰라 모대기면서 더 깊은 고민속에 잠기게 된다.

윤보금은 별의별 시각을 다하며 고심하던 끝에 생각만 하여도 눈물부터 앞서는 가슴아픈 생리별을 각오한다.

윤보금의 이 모진 마음으로 하여 그의 다듬이질 소리가락이 파괴된것이다.

그러나 독자들은 윤보금의 이 모진 마음속에서 그의 더 웅심깊고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보게 된다.

생리별은 그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여 남편의 뜻을 성사시키려는 그의 아름다운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오고있다. 이것은 남편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없이는 가질수 없는 마음이다.

보석이 천길 땅속에 묻히여도 변하지 않고 자기의 빛을 가지고있듯이 윤보금의 아름다운 마음도 생리별을 당하는 가슴아픈 불행이지만 오히려 그를 통하여 그의 인간됨이 더 웅심깊게 독자들의 마음속에 파고드는것이다.

다듬이질소리에 대한 세부묘사는 또한 김진세로인의 내면세계도 깊이있게 보여준다.

김진세로인은 불행한 운명에 처하여있던 윤보금을 머느리로 맞아들인 첫날부터 그를 딸삼아 애지중지 떠받들며 사랑해왔었다.

이러한 김진세로인이기때문에 그 누구나 흔히 들을수 있고 무심히 스쳐지나버릴수 있는 다듬이질소리에서 고르롭지 못한 가락의 음조를 가늠해 들을수 있으며 오래도록 발걸음을 멈춘채 것처럼 깊은 생각속에 잠기여 고심하는 머느리의 마음속 깊이까지 속속들이 헤아려보게 된다.

김진세로인은 머느리의 다듬이질소리를 들으면서 아픈 가슴만 보는것이 아니라 아들 창억에 대한 불만도 가지게 된다.

하나밖에 남지 않은 기둥처럼 믿는 아들 창억에 대한 불만은 창억이 일개인이거나 한가정에만 한한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후과를 빚어낸 좌경모험주의자들에 대한 불만이며 항거인것이다.

윤보금과 김진세로인의 내면세계는 다음에 나오는 빨래줄에 대한 세부묘사에서 더 깊이 알게 된다.

김진세로인은 가슴아프게 들려오는 가락이 파괴된 머느리의 다듬이질소리에서 얼어붙은 자기의 가슴을 풀어보이기라도 하듯이 머느리를 밖으로 불러내어 그의 키에 맞게 빨래줄높이를 가늠해 본다.

이것은 바로 머느리에게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버지만은 너를 변함없이 믿고있으며 사랑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그러나 이 마음을 알리 없는 머느리는 파괴된 다듬이질소리에 담긴 그 가슴아픈 사연을 호소하기라도 하듯이 빨래줄높이는 어머니의 키에 맞게 해야 한다고 조용히 말한다.

그 말에 김진세로인은 엄하게 꾸짖기라도 하듯이 바라보다가 드물지 않는 자기의 진심인양 빨래줄을 그냥 머느리키에 맞게 늘어놓는다.

이 작은 세부에서도 우리는 말로써는 다 할수 없는 김진세로인과 머느리의 깊은 내면세계를 보고있다.

이들의 마음은 이처럼 아름답고 웅심깊지만 좌경모험주의자들의 책동으로 하여 말할수 없는 심적고통과 불행을 당하게 된다. 이것은 오직 근거지마을에 찾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봄눈녹듯 다 풀리게 된다. 창억은 것처럼 희망하던 유격대에 입대하고 모진 마음을 먹고 떠 나갔던 윤보금이기도 돌아와 새생활의 길에서 행복을 찾게 된다.

생활의 본질을 담고있는 인상적이며 특징적인 세부묘사는 작품에 형성된 인간들의 성격이 모두 개성적이고 인간의 내면세계가 복잡하고 다양한 것만큼 매 인간의 개성과 내면세계에 맞게 탐구되어야 한다.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에서 이미 우에서 이야기한 윤보금과 김진세로인의 복잡한 내면세계를 다듬이질소리와 빨래줄에 대한 세부를 통하여 보여주었다면 그 누구에게도 말할수 없는 깊은 사연을 간직한 림성실의와 최진동의 내면세계는 눈우에 찍혀진 림성실의 발자국에 대한 세부묘사로 보여주고있다.

림성실과 최진동은 이미 사랑을 약속한 사이이다. 그러나 최진동은 혁명의 길에 나선 때로부터 사랑문제를 뒤로 감추고 오직 혁명만을 생각하고있다.

그렇수록 림성실의 마음속에는 최진동이 더 절절하게 그리워진다.

그러면 림성실과 최진동의 이러한 내면세계를 어떻게 보여주고있는가.

부녀회장인 림성실이가 찬거리를 구해가지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리재명의 집에 왔다가 우연히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기 위해 온 최진동의 목소리를 듣는다. 순간 림성실은 그리운 마음을 진정할길 없어 먼 마차길까지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울바자밭에서 오래도록 서성거린다.

혁명의 길에서 헤어진후 어느 한순간도 잊어본적없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말한마디라도 나누고싶건만 가까이에 두고도 선뜻 만날수 없는 림성실이다.

림성실의 깊은 내면세계를 그대로 말하여주는

듯이 하얀 눈우에 그의 발자국만 또렷이 찍혀진다.

눈우에 찍혀진 림성실의 이 발자국은 백마디의 말보다도 그의 복잡한 내면세계의 깊이를 더 설득력있게 말하여주며 독자들을 감동시킨다.

또한 이틀날아침 싸리비자루를 걸싸게 놀리다가 문득 비자루를 멈추고 서서 눈우에 찍혀진 림성실의 발자국을 보고 한동안 깊은 상념에 잠기였다가 조심조심 그 발자국을 지워버리는 최진동의 내면세계는 또 얼마나 깊은가.

최진동이 역시 림성실을 변함없이 마음속깊이 사랑하고있지만 혁명을 위해 그 사랑을 애써 잊어 버리려고 마음먹고있다. 그는 언제나 사랑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의지가지 할데 없는 동생과도 찬 두부 한모를 놓고 쓰거운 술잔을 나누며 가슴아픈 작별을 하신 사랑관동지를 생각하며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곤 했었다.

그렇기때문에 최진동은 남몰래 오래동안 머물러 기다리다 간 림성실의 발자국을 하나하나 지워버리면서 마음을 더 굳게 다진다. 이 모든것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멀지 않은곳에서 다 보고 계시며 복잡한 그들의 심리세계 깊이까지 속속들이 헤아려보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남모르는 이들의 사연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그후에 전투명령으로 약혼사진을 찍게 하며 혁명의 길에서 참된 사랑으로 더 굳게 결합하도록 은정깊은 배려를 베풀어주신다.

눈우에 찍혀진 발자국에 대한 세부묘사는 이처럼 림성실과 최진동의 복잡한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보여주면서 그들의 성격적특징까지 뚜렷이 부각시켜준다. 또한 이 세부묘사를 통하여 전사들의 마음속깊이까지 다 헤아려보시며 친아버이의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품모를 진실하게 보여주고있으며 작품의 종자를 아름다운 형상으로 꽃피워준다.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에는 이외에도 생활의 본질을 담은 인상적이며 특징적인 주옥같은 세부묘사들이 수없이 많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생활의 본질을 담은 특징적이며 인상깊은 세부묘사는 인간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보여주며 또한 작가가 인간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파고들 때에만 생활의 본질을 정당하게 밝혀낼수 있다.

우리 작가들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적극 이바지하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하여 인간내면세계의 탐구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자.

## 대양만리에

김정남

정박장에 닻을 놓고있는 무역선 《향산》호를 향하여 뽕양게 물보라를 일으키며 안내선이 달리고있었다.

드넓은 정박장에는 수십척의 무역선들이 닻을 놓고있었다. 마스트와 조타실이 높다랗게 솟아있는 대형집배 《향산》호는 선박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커다란 아파트가 바다위에 덩실 솟아있는것 같았다. 안내선이 기적을 울리며 《향산》호 현측 밑으로 다가붙었다. 우리들이 배전사다리를 타고 갑판으로 올라서자 기다리고있던 당직항해사가 응접실로 안내하였다.

응접실에서는 선장 김유걸동무가 바다에 새로 진수시킨 대형집배의 항해사, 기관사로 임명되어 정든 《향산》호를 떠나게 된 동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다.

그들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우리 <향산>호는 말하자면 <대학>이라고도 말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꼭지를 뻗 류달리 키가크고 눈이 어글어글한 한 항해사동무는 영광스러운 당의 크나큰 사랑속에 《향산》호가 항해를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선장을 비롯하여 항해사, 기관사를 수십명 길러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해운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유능한 항해사, 기관사들을 많이 키워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향산》호가 얼마나 훌륭히 관철하고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였다.

우리들은 선장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것을 요구했다.

《향산》호가 람홍색 공화국기발을 휘날리며 조국의 항구를 떠나던 첫 항차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치는 대양에로의 기나긴 항해의 나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수놓아졌을것인가.

이번 항차만 하여도 세멘트를 싣고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여러나라 항구에 갔다가 조국으로 돌아오는 항로상에서 불의에 태풍과 맞닥들었지만 용감하게 태풍을 뚫고 조국으로 돌아온 《향산》호였다.

그러나 선장은 우리들의 질문에 미소로 대답하며 항차보고자료를 내놓았다.

두툼한 항차보고자료에는 《향산》호가 무역화물 수송계획을 매년 초과완수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나날에 해마다 수백

톤의 기름을 절약하여 국가에 많은 리익을 주었다는것도 알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 대외무역을 빨리 발전시켜 우리 나라에서 많이 생산되며 세계적으로 수요가 높은 물건들을 대외시장에 적극 내보내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제때에 들여와야 합니다.》**

해마다 화물수송계획을 넘쳐해냈을뿐만아니라 나라에 막대한 리익을 준 이 하나의 사실만을 놓고도 《향산》호 선원들이 대양만리로 항해하는 나날 조국의 영예를 떨치며 충성의 위훈을 세웠으리라는 생각이 우리들의 가슴에 스며들었다.

《우리한테야 어디 자랑할만한 이야기가 있어야지요...》

선장은 빙그레 웃음을 띠었다.

보통키에 균형이 잡힌 체구, 다년간 해풍에 다스려진 구리빛 얼굴은 친근했다.

《...그럼 어렸을 때 이야기나 할가요. 참말로 그 시절은 수난의 세월이였습니다. ...》

선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가 나서 자란 고향은 남포였다.

일제놈들에게 짓밟혀 빛한점없었던 세월 소년의 운명은 기구했다. 바다물이 배밀창으로 분수처럼 솟아오르는 목선을 타는 아버지가 무엇때문에 《배놈》으로 불리우는가를 아직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시절, 소년은 풍랑사나운 바다로 나간 아버지를 기다려 황혼이 깃드는 포구에 서있군했다. 그때로부터 소년의 운명은 바다와 잇닿아졌는지도 모른다.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차어야 할 그의 소년시절은 아버지처럼 《배놈》이라는 천대와 모멸 속에 흘러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찾아주신 조국해방의 봄빛이 흘러들어서야 소년은 인간으로서 다시 소생할수 있었다.

해빛찬란한 조국은 그의 희망대로 대양을 정복하는 선장으로 키워주었다...

어느덧 선장의 두눈은 물기에 젖어들었다. 고기밥이 되어야 할 운명을 지닌 소년을 오늘은 대형무역선의 선장으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크나큰 사랑과 은덕을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할수 있으랴.

## 1. 대동강상에 울리는 기적소리

하늘에서는 대줄기같은 비발이 사정없이 쏟아졌다. 대동강끝은 노한 사자마냥 기슭을 물어뜯으며 무섭게 소용돌이쳤다.

《통통!-》 물을 차던지며 한척의 단정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고있었다.

선미에 《송림》호라는 흰 글자가 물밖으로 드러날 때마다 단정은 거센 물결우에서 요동쳤다. 타를 잡고 앞을 바라보고있는 김유결선장의 머릿수도 거칠은 물갈기가 쏟아져내렸다.

항구에 정박한 유조선 《송림》호에서 단정을 내릴 때에 밀려들기 시작하던 먹장구름은 한시간도 못되어 앞을 가려볼수 없게 비를 퍼붓고있었다.

강물은 격랑을 일으키며 불어나기 시작했다.

아직도 가야 할 강선까지는 멀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강선까지 배길을 개척해야 한다.)

김유결은 단정의 타를 더욱더 굳게 틀어잡고 밀려오는 물결을 맞받아나갔다. 그가 강선까지 물끓을 찾기 위해 이렇게 단정에 오르기까지는 마음속에 지닌 신념을 굳히는 투쟁이기도 하였다.

얼마전 《송림》호는 항유조부두에 닻을 내렸었다.

《송림》호의 임무는 배에 실은 기름을 항에 부리면 끝난다.

하지만 김유결선장은 적지 않은 품을 들여 이 기름을 다시 기차로, 자동차로 머나먼 강선까지 날라가야 하는 그 일이 가슴에 맺혀돌아갔다. 당원의 량심이 고동치기 시작했다.

김유결은 대동강배길을 개척하여 강선까지 직접 기름을 갖다주자는 발기를 내놓았다. 삽시에 파문이 일어났다.

그의 제기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선도 아직 올라가본 일이 없는 대동강수로 6천톤급 유조선을 몰고 올라가겠다는것은 모험이다.》

그러나 선장은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물끓을 찾아낸다면 《송림》호가 대동강으로 올라갈수 있다는것을 타산하였던것이다.

하여 그는 단정을 타고 물끓을 찾아내기 위한 항해에 올랐던것이다.

앞을 가려볼수 없게 쏟아지는 폭우, 갑판을 들부실듯 내려덮이는 산더미같은 파도, 금시라도 물속에 휘말려들어갈듯 기우뚱거리다가도 다시 배머리를 쳐드는 단정의 키를 선장은 굳게 틀어잡고 있었다.

첫 걸음부터 시련이 앞을 막았지만 선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드디어 김유결선장은 물끓을 따라가며 수심을 표기한 해도를 완성하였다.

처음부터 모험이라고 반대하며 일부 일꾼들은 그가 완성한 해도를 보고 설사 물끓을 따라 항해할수 있다고 해도 부두시설이 없는곳에 배를 붙일수 없다고 했다.

김유결선장의 머리속에는 하나의 생각이 번개처럼 떠올랐다.

(강기슭에 서있는 백양나무를 계선주로 리용한다면 배를 붙일수 있을것이 아닌가.)

김유결선장은 드디어 자기의 결심을 내렸다.

《뽕웅!-》 마침내 《송림》호가 울리는 기적소리가 대동강상으로 울려갔다.

부두에서 떨어져나온 《송림》호는 강한복판에 들어섰다. 그런데 약속된 시간이 지났으나 수로안내선은 나타나지 않았다. 김유결선장은 조타실

갑판에 서서 항구쪽을 이윽도록 바라보았으나 기다리는 수로안내선은 종시 나타나지 않았다. 조타실로 들어온 그는 무선전화로 사령실을 찾았다. 긴급출항명령을 받고 바다에 나간 수로안내선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대답이 울려나왔다.

선장은 수로안내선없이 올라가기로 결심하고 《송림》호의 출발을 명령했다.

《송림》호는 강선을 향해 물결을 가르며 거침없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대동강 굽이굽이 벼랑우에서 단풍이 불길처럼 타오르고 저멀리 황금의 전야에서 흥치며 설레는 구수한 낱알냄새가 소슬한 마가을바람에 실려오고 있었다. 조국을 떠나 대양만리에 가있는 정박의 밤, 갑판에 나서면 그리도 눈앞에 삼삼히 떠오르던 정다운 모습이였다.

그러나 이 순간에 김유결선장은 조타실창문에 비껴오는 아름다운 풍치에 눈을 돌릴만한 여유가 없었다.

이윽고 강선제강소의 굴뚝에서 솟구쳐오르는 흰 연기가 바라보이기 시작했다.

푸른 물결을 헤가르며 거침없이 올라가던 《송림》호는 몸부림을 치듯 선체가 요동을 부리다가 멈춰섰다.

이 순간 선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기관실에서 긴급보고가 올라왔다.

《배가 감탕에 걸렸음...》

기관장의 보고를 받은 선원들 눈앞이 캄캄했다.

겨우 자신을 수습한 선장은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그제야 수로안내선을 기다리느라고 지체한 시간을 타산하지 않고 강수위가 높아지기 전에 출발을 명령했기때문에 배가 감탕관에

올라 앉게 되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이 시각 총국의 사령실로 긴급전보를 날려보내는 선장의 가슴은 바질바질 타기만 했다. 배를 감탕판우에서 빼내지 못한다면 침몰될수 있는 위험에 처해있었다.

《어떤 답전이 올것인가?》

드디어 기다리던 답전이 날아왔다.

《기름을 펴고 배를 구원할것.》

기름을 펴프로 쾀다면 배는 물우에 뜰수 있었다. 구조선을 보낼수 없는 형편에서 배를 손쉽게 구원할수 있는 방법이었다.

김유결선장은 통신소를 걸쳐 날아온 전보문을 쥐고 깊은 생각에 잠기었다.

(기름을 펴고 배만이라도 구원해야 하는가?)

시간은 한초한초 안타깝게 흘러가고있었다. 썰물이 시작되어 수위가 낮아지기 시작하면 배는 선체가 꺾어질지도 모른다.

선장은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기름은 버릴수 없다.)

더우기 그에게는 기름도 아까왔지만 강이 오염되어 물고기가 죽어버리는것이 더 가슴을 울렸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대동강에 고기떼가 육질거리게 하시려고 강으로 흘러드는 폐수마저 먼곳으로 돌리게 하시지 않았던가.

이 순간 그는 자신의 운명을 놓고 생각하지 않은것은 아니었다. 기름을 버리지 않으려다 배를 구원하지 못한다면 나라에 더 큰 손실을 준다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추호도 주저하지 않았다.

어둠이 밀려왔다.

선장은 배전머머로 줄사다리를 드리워놓고 물 밑으로 내려갔다. 배전에서 사품치듯 출렁이는 물은 가슴노리를 쳤다. 그는 물결을 헤가르며 나가다가 곤두박치듯 자맥질을 하여 배가 올라왔을 감탕판을 손으로 더듬어나갔다. 손끝에서는 피가 흘렀다. 손이 모지라진다해도 감탕판을 파헤칠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다행히도 추진기는 손상이 없었다. 물속에서 추진기를 손으로 어루머듬어보는 선장의 가슴은 뜨거웠다.

추진기만 손상을 입지 않으면 물때를 기다렸다가 배를 감탕판에서 빼내어 항해를 계속할수 있는것이다.

선장은 갑판으로 올라왔다. 그는 갑판을 거닐며 배의 흡수선을 (물에 잠기는 선) 지켜보았다.

선체가 꺾어질수 있는 위험이 아직도 사라진것은 아니였으나 물때가 된다면 배는 반드시 떠오를수 있을것이라고 확신했다.

시간은 흘러 한밤중이 되었을 때 물은 현측을

적시며 조금씩 불어나기 시작했다. 흡수선 밑에서 찰랑이는 물결을 바라보는 선장의 눈곱에는 뜨거운것이 흘러내리었다. 사나운 태풍도 두려움을 모르는 담력을 지닌 그였지만 이 순간에는 가슴이 젖어오르며 소리없는 눈물이 두볼을 타고 흘러내리는것이였다.

배는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뽕우!-》 대동강상에는 길고도 긴 기적소리가 울려 퍼졌다.

## 2. 사랑에 받들려 13,000 리

지금으로부터 몇해전, 그해도 다 저물어가는 12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겨울철 물고기잡이 전투를 대대적으로 벌려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푸성하게 해주시려고 수많은 고기배들을 새 어장으로 부르시였다. 《송림》호는 수십척의 어선단을 이끌고 어버이수령님께서 불러주신 새 어장을 향하여 떠났다.

지휘선 《송림》호의 조타실에서 련합어선단의 긴 대오의 흐름을 바라보는 김유결선장의 가슴은 바다처럼 설레었다.

장엄한 대도시의 흐름인양 20리 바다길에 늘어난 련합어선단,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련합어선단의 출항준비로부터 대오의 편성뿐아니라 대양만리 바다길의 한치한치를 헤아리시며 안전항로까지 구체적으로 잡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을 안고 련합어선단의 지휘선 《송림》호의 선장으로 대양을 헤쳐나가니 그의 가슴 어찌 설레지 않으랴.

바다날씨는 변덕스러웠다. 그러나 《송림》호는 짙은 안개와 풍랑속을 뚫고 어선단을 이끌고 항해를 계속했다.

그러던 어느날 새벽 조국에서 전보가 날아왔다. 태풍에보였다.

(어떻게 할것인가?)

조타실에서 전보문을 읽고나서 해도를 지켜보는 선장의 생각은 깊어졌다.

아직도 어선단을 이끌고 가야 할 13,000리, 《송림》호 혼자만이라면 그 어떤 파도도 헤쳐 넘을수 있을것이지만 수십척의 어선들이 태풍을 뚫고 따라올수 있을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벌써부터 두척의 어선은 발동이 죽어 삭에 련결되어 끌려오고 있는 형편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부르신 새 어장으로 가는 이 항해를 조금도 멈출수 없다.)

김유결선장은 결사전을 벌려 어선단을 이끌고 기어이 새 어장에 도착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의 보고를 올리리라 굳은 맹세를 다지였다.

그는 태풍구역을 뚫고나갈 결심을 조국에 알렸

다.

《계속 앞으로!》

지휘선 선장의 명령이 모든 배들에 전해졌다.

마스트를 날아넘고있는 세찬 파도, 사나운 맹수처럼 울부짖는 광풍, 연합어선단은 항해를 계속했다.

김유결선장은 바람방향과 속도, 파도의 주기와 그 이동경로를 민감하게 포착하여 지휘선을 몰아 가고있었다.

선장의 항해지시를 신속정확하게 수행하고있는 항해사들과 갑판원들, 기관을 잠시도 멈추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돌아가는 기관사들과 조기원들 《송림》호와 연합어선단은 태풍구역을 점점 벗어나기 시작했다...

《송림》호가 연합어선단을 이끌고 태평양으로 나왔을 때였다. 방금전까지 잔잔하던 대양우에 갑자기 광풍이 휘몰아치더니 산악같은 파도가 밀려 들며 폭우가 쏟아졌다. 태평양상의 일부 지역에서 갑자기 형성된 저기압이 휩쓸기 시작한것이다. 대양을 수없이 넘나들며 담을 키워온 김유결선장도 이러한 태풍과 맞다들기는 처음이었다.

초속 45메터가 훨씬 넘는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

게다가 령하 47도의 폭한, 23메터의 산악같은 파도에 배의 횡경사가 48도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파도가 사나와지고 폭우는 눈보라로 변하여 대양을 휩쓸었다. 바다는 마치 수천수만의 맹수들이 쇠사슬에서 벗어나 거품을 뿜어던지며 울부짖고 날뛰는것 같았다.

조타실에서든 기관실에서든 무엇이건 잡지 않고서는 서있을수조차 없게 되었다. 선장은 벌써 교박 3일째 조타실을 떠나지 않고 항해를 지휘하고 있었다.

위험은 시시각각으로 닥쳐왔다. 멀미를 모르던 건장한 선원들도 머리를 싸쥐고 돌아갔다. 엄혹한 추위도 기관의 난방관이 여러곳이나 얼어서 터져나가고 선실로부터 조타실로 오가는 보행교에는 얼음이 뒤덮였다.

이런 때 울부짖는 광풍과 귀청을 때리는 파도를 누르며 정치부장 김정중동무의 흥분된 목소리가 조타실을 울렸다.

《동무들! 어버이수령님께서 전보를 보내주시었습니다.》

정치부장은 격동에 젖은 목소리로 전보문을 전달하였다.

모진 새벽바람소리를 들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연합어선단 선원들이 걱정되시여 항해정형을 알아보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송림》호의 선원들과 어선단의 선원들이 모두 건강한가, 교장난 배들은 없는가

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태풍속을 항해하고있는 이들이 넘려되시여 대형운반선 《대보산》, 《대성산》, 《청봉》호들을 마중배로 빨리 떠나보내도록 하여주시는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

어버이수령님의 전보문을 전달받은 선원들의 눈에서는 감격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에 의하여 연합어선단 선원들은 사나운 태풍을 이겨냈다.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을 싣고 만리어장에 《대보산》, 《청봉》, 《대성산》호가 도착하였다.

태평양 한복판에서는 항해력사에 길이 빛날 두 선단의 감격적인 상봉이 벌어졌다...

드디어 만선기를 휘날리며 《송림》호와 연합어선단은 머나먼 어장에서 조국으로 향하였다.

저멀리 어둠속에서 번쩍거리는 한점의 불빛이 나타났다.

《등대다!》

《조국이다!》

어서오라 반기는 사랑의 불빛, 그것은 동해의 북단의 등대였다.

선원들은 갑판으로 뛰쳐나왔다. 조타실 갑판에서서 등대불빛을 바라보는 김유결선장은 숭엄한 감정에 휩싸인채 소리없는 눈물을 흘리고있었다.

항해의 나날 어느 하루도 잊은일 없는 어머니 조국! 어버이수령님의 품, 영광스러운 당의 품에 안긴 기쁨과 환희로 하여, 것처럼 사랑하시는 아들들이 무사히 돌아왔다는 감격의 보고를 올리게 된 영예와 자랑으로 하여 북받치는 눈물이었다.

《송림》호가 연합어선단을 이끌고 헤쳐나온 풍파사나운 13,000리의 자랑찬 항해길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이 안겨준 사랑에 떠받들리어 헤쳐온 충성의 배길이었다. 김유결선장은 평양의 하늘을 우리러 웃기를 여미였다.

《어버이수령님! 우리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열어주신 주체의 항로따라 대양만리 그 어데라도 배를 몰아가겠습니다.》

### 3. 침로는 직선으로!

《우리 <향산>호가 이번에 조국으로 돌아오는 항로상에서 태풍을 뚫고나온것을 취재하려면 저의 이야기보다 그때 조국통신소와 결속되였던 전보문을 보면 더 잘 알수 있을것입니다.》

1동항해사 정창선동무는 해도실에서 전보문을 가져왔다.

《...10시 30분, 북위 21도, 동경 118도, 태풍<허리킨>, 이동속도 9노트, 태풍중심선으로부터 20마일 반원에 위치함 현재 파도 12바르. 바람 45



메터초 배의 횡경사 35도-38도 <향산>호 선장 김유결.》

이것은 태풍을 뚫고나가던 때 <향산>호가 조국에 보낸 전보였다.

선장 김유결동무는 벌써 4시간째 조타실을 떠나지 않고 항해를 지휘하고있었다.

《향산》호가 실은것은 온 나라 어린이들에게 안겨줄 남방과일들이었다. 하기에 선장은 조국으로 향한 항로를 직선침로로만 이끌어가고있었다.

수평선에서 물려온 사나운 바람은 바다를 휘갈려 눈가루같은 물갈기를 휘뿌려놓으며 미친듯이 울부짖고있었다.

10여메터가 넘는 선수마스트를 훨훨 날아넘는 집채같은 파도가 조타실꼭대기에 왈각 쏟아질 때마다 선박은 몸부림을 쳤다. 무전장 박윤서가 가져온 기상예보를 훑어본 선장은 당직항해사가 해도에 표시하여놓은 배자리를 확인하고나서 송수화기를 들고 기관장에게 속도를 높이라고 지시했다. 조타실기관속도계의 바늘이 110으로 상승했다. 《전속》 항해였다.

《조타수 키 좌로 30도!》

김유결선장은 담벽같은 파도가 선수마스트를 쳐갈기며 날아와 조타실을 때리는것을 눈여겨보며 구경을 내렸다. 파도마루를 엇가로 타고 넘은 배가 파도꼭짜기로 곤두박질하듯 들어갈 때면 추진기가 물밖으로 드러나며 공회전을 하기도 했다.

《선장동무 배는 진침로에 놓여있습니다.》

해도탁에서 물러선 2등항해사 리영표동무가 보고했다. 산악같은 파도를 파고 넘으며 배는 선장의 항법지휘대로 진침로에서 리탈하지 않고 항해하고있는것이였다.

김유결선장은 태풍을 뚫고나가는 이 항해를 꺾 곳이 이겨내고있는 조타수, 항해사, 감시병 그리고 기관실에 있는 기관사들과 조기원들에 대한 미더운 생각으로 가슴이 뜨거워졌다.

무엇이 선원들에게 저렇듯 크나큰 힘을 안겨주고있는것인가?

몇시간전 태풍예보를 받았을 때 외국선박들은 피항전보를 날리며 사라졌다.

그때 태풍예보문을 받아쥐고 조타실에 서있는 선장은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안전하게 피항할것인가. 아니면 태풍을 뚫고 나갈것인가. 피항한다면 안전항해를 보장할수 있으나 조국의 항구로 입항이 늦어지게 될것이다.

그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다. 마침내 선장은

결심을 내렸다.

(조국으로 향한 이 침로를 태풍때문에 변침해야 하는가. 아니다. 조국으로 향한 배길에는 언제나 직선침로뿐이다!)

이때 항해사들과 기관사들 선원들이 선장결의로 달려왔다.

대양만리에 조국의 영예를 떨치며 척도의 찌는 듯한 열풍도 파도사나운 해협들을 넘고넘으며 한 마음 한뜻으로 단합된 동지들이기에 그들은 선장의 마음을 알고 달려온것이다.

《선장동지! 지금 우리가 실고가는 짐이 어떤 짐입니까! 우리는 안전한 항해만을 바라지 않습니다. 조국으로 향한 이 항로를 변침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선원들의 불타는 눈동자에 어린 뜨거운 마음은 헤아려보는 선장의 가슴은 뭉클해졌다.

《동무들의 말이 옳소. 조국으로 향한 침로를 바꿀수 없소.》

선장은 선원들의 손을 굳게 잡아주었다...

산악같은 파도가 마스트를 넘어 조타실지붕위에 쏟아져내리고 배의 횡경사가 35도에 이르는 시련의 항해는 웅근 하루가 지났어도 배는 아직도 안전한 수역에서 멀리 떨어져있었다.

그러나 한명의 선원도 멀미에 쓰러지지 않았다.

아버이수령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시는 어린이들에게 한시바삐 가닿아야 할 남방과일들을 싣고 조국의 품으로 돌아가는 배길이었기에 선원들은 불사신이 되어 항해근무를 서고있는것이였다.

이윽고 아득한 수평선에 아침해가 불쑥 솟아올랐다. 파도도 멀기도 잦아든 수평선은 마치 유리를 퍼놓은듯 잔잔해졌다.

언제나 그림고 정다운 조국의 항구가 멀리 바라보였다. 아침해빛을 받으며 갑판에 나와서있는 《향산》호 선원들의 눈에는 물기가 어려있었다.

그들 모두의 가슴속에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열어주신 항로를 따라 충성의 한길, 대양만리를 주름잡아 나가는 행복과 영광이 한가득 차고 넘치였다.

김유결선장이 조국의 기슭을 떠나 대양만리를 항해한 15여년, 충성의 항로위에 새겨진 위훈의 이야기는 수없이 많다. 조국의 기슭을 떠나 언제나 파도를 헤쳐넘는 항로위에 소문없이 모든것을 묵묵히 바쳐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에 조국은 더욱 아름다와지는것이다.

## 현실속의 작가들을 찾아서

### 불꽃

요사이 사람들속에서는 자주 이런 말들이 오고 가곤한다.

서정시 《우리 어버이》, 《삼지연 맑은 물에》는 깨끗하고 열렬한 혁명적서정으로 하여 독자들의 심장을 불타게 하는 불꽃과도 같다고...

그렇다.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사명과 역할을 다하자면 서정시가 힘과 용기를 주는 노래로, 예리한 시대의 불꽃으로 되어야 한다.

점화전의 불꽃과도 같이 생활력이 있는 서정시!

독자들이 기대하여 또 사랑하는 그 불꽃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이며 어데서 끝나는 것인가?

우리들은 독자들의 물음에 대답하기 위하여 현실속의 작가들을 찾아 떠났다.

### 《우리 동무》

렬차는 그 누구를 부르는듯 기적을 길게 울리며 항구도시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봄비던 길손들은 기차가 달리자부터 서로 자리를 권하며 더욱 친근해졌다.

그들은 처음 보는 사이였건만 어느 사이에 한집안 한식술처럼 다정해졌다.

차창으로는 아름다운 풍경들이 마주 달려왔다.

산과 들, 푸른 하늘을 비껴담고 벌을 적시며 흘러흐르는 관개수가 차창밖으로 끝없이 흘러간다. 방금 날아갈듯 추너를 한껏 추켜든 산기슭의 문화주택마을이 나타나는가 하면 층층 다락밭이 불쑥 나타나기도 했다.

끝없이 푸르른 논벌에는 만리대양을 미끄러져가는 어선인양 트랙포르가 달리고 검푸른 강냉이밭을 적시는 강우기에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걸렸다.

어디를 보나 어디를 가나 약동하는 생활이 넘쳐흐른다. 당장 렬차에서 뛰내려려 염소떼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있는 저 동쪽길로 밭목이 시도록 걷고 또 걷고싶은 충동을 느꼈다...

저 트랙포르 달리는 논벌에 그리고 생활이 약동하는 저 소박한 농촌마을에 어찌 시와 노래가 없으랴...

우리들은 자연 깊어지는 생각으로 차창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는데 어데선가 렬차방송원이 시를 랑송하는 열정에 넘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

그 뉘의 손길도 바람이 없이  
그 뉘의 눈길조차 바람이 없이  
광란하는 대자연의 횡포를 물리치고  
너는  
아슬한 하늘가에 조용히 솟아있구나

화창한 날엔  
눈에 잘 띄우지도 않는 너  
그처럼 준엄한 때엔  
오로지 제한몸을 굴함없이 내대며  
소문없이 큰일을 하고도  
언제나 말없는 네 모습

아  
이 가슴에 새기노라!

서정시 《아슬한 하늘가에 말없이...》이었다.  
우리들이 지금 찾아가는 장호건동무의 서정시를 달리는 렬차에서 듣게 되니 기쁨은 자못 컸다.

우리는 우리와 못지않게 걱정애 넘쳐 진정을 못해하는 한사람을 보았다.

얼굴이 해벌에 타서 검실한 50대에 거의 가까와 왔을 장년이였다.

알고보니 그는 대안시 어느 한 협동농장의 농장원이였다.

《몹시 시를 좋아하는것 같군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물었다.

《우리 동무가 쓴 시인데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 어떤 긍지를 가지고 자랑처럼 말했다.

(우리 동무라니?...)

어떻게 되어 동무가 되는가? 동창생이라고 하기에 농장원의 나이가 너무 많았다.

의혹에 찬 눈길로 한창 그를 바라보는데 그는 어쭙게 웃으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이였다.

농장마을에 한 시인이 찾아왔다.

그는 물관리공아바이네 옷방에 숙소를 정했다.

그는 아침 일찍 물관리공아바이와 논벌에 나갔다가 온통 흙주머니가 되어 저녁늦게야 마을에

나타나군했다.

벼모들이 아지치는 소리를 시에 담겠다고 하는데 꼭 저렇게 농장원들처럼 일해야 하는가? 글이란 보기만해도 저절로 종이에 옮겨지는것이 아닐가? 농장원들은 의혹에 찬 눈길로 후출근해진 시인을 바라보군했다.

어느 무더기비 내리는 휴식날이었다.

논물관리공들은 어느새 벌로 달려갔다.

시인도 달음쳐갔다.

대줄기같은 비는 벌판에 마당질을 하고 우뢰소리하늘땅을 들었다놓아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인은 보도랑의 물목을 막기도 하고 터놓기도 했다.

옷은 후출근하게 젖었으나 얼굴에는 희열이 넘쳤다. 한여름 벌에서 살며 일하는 농장원 그대로의 모습이였다.

속을 터놓고 끝없이 이야기를 나누고싶도록 친근하게 안겨왔다.

《작가동무! 그렇게 농장원처럼 일해야 글이 되는가요?》

농장원들은 시인에게 물었다.

《농촌 생활에 꼭 젖지 않고서야 어떻게 농장원들이 기대하는 그런 글을 쓸수 있겠습니까.》

시인은 빙그레 웃으며 흙물에 얼룩진 취재수첩장을 번저가며 한자한자 글을 쓰는것이였다.

그 시가 바로 서정시 《아슬한 하늘가에 말없이...》였다.

한편의 시를 쓰기 위해 시인은 온 농장벌을 밟으며 흙냄새가 온몸에 스며들게 해야 했다. 드디어 그는 농장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안고 일해가는 논물관리공들의 생활의 깊은 세계 그대로를 원고지우에 옮겨놓을수 있었다.

그제야 비로소 그는 농장원들에게 생활의 길동무를 준 친근한 《우리 동무》가 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노동자, 농민들의 투쟁의 불길속에 용감하게 뛰어들어가야 하며 투쟁하는 노동자, 농민들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현실생활을 볼수 있게 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여야만 우리 인민의 생활을 체험한 작가, 예술인이라고 말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고 인민대중에게 복무하는 작품을 창작할수 있습니다.》**

우리 동무!

부르기는 쉬우나 그리 쉽게 차레지지 않는 친근한 호칭이였다.

이것이야말로 작가에게 있어서 더없는 행복이며 크나큰 영예가 아니겠는가!

렬차에서 만난 농장원의 이야기는 길지 않았으

나 많은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있었다.

시인은 모든 사람의 친근한 동무가 되고 생활의 길안내자가 되여야 한다.

평범한 사람들속에 친근하게 불려지는 우리동무!

그 부름속에 그는 생활체험과 창작을 시작했다.

하기에 그의 시들은 아름다운 생활의 꽃으로 피여 그 향기 그토록 목메이게 풍겨나는것이다.

미더운 시대의 가수들을 그려보며 깊은 사색에 취해있는동안 렬차는 어느새 목적지에 닿았다.

취재에서의 큰 성과를 바라는듯 아니면 독자들이 다하지 못한 《우리 동무》 그 이야기의 여운인듯 기적소리는 오래오래 울리고있었다.

## 끓는 로처럼...

렬차에서 즐거웠던 렬행의 긴 여운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나지막한 산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창작실을 찾아갔다.

때마침 현실체험을 끝내고 돌아온 시인들이 작품합평회를 하는중이였다.

휴식시간에 우리는 장호건동무와 마주앉았다.

《재간이 없는 저한테 그 무슨 경험이 있겠습니까.》

힘들게 나온 장호건동무의 첫말이였다.

재간이 없다?!...

그의 말을 믿고있는 시인은 없을것이다. 한것은 그 말이 겸손성의 표현이기도 하였기때문이다.

좋은 글은 재간만으로는 될수 없다.

시문학의 고유한 특성, 그것은 생활에서 환기받은 시인의 주관화된 사상감정을 직접 토로하는데 있다.

감정은 재간만으로는 발현되지 않는다.

깊이있는 현실체험과 뜨거운 심장이 있어야 한다.

그의 심장은 용광로와 같이 뜨거웠다.

그 까닭은 누구나 다들바 없겠지만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충성의 감정으로 해서 더욱 뜨거운것이다.

장호건동무는 금성트락포르공장 노동자였다.

그에게서 로동의 나날은 배움의 나날이었으며 성장의 나날이였다.

그 나날은 아버지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돌려주시는 다함없는 사랑으로 가득찬 하루하루였다.

함박눈 내리는 이른새벽, 비내리는 늦은 저녁 아버지수령님께서 걸으신 공장의 넓은 구내길을

걸으며 다함없는 은정으로 가득찬 이 자랑찬 시대를 《어린로동자》는 노래하고싶었다.

《어린로동자》는 한자한자 글을 썼다. 그러나 아직 그것은 충동, 흥분, 느낌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남모르게 조용히 움터자라던 그 어린 짝은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손길아래서 뿌리를 내리고 한송이의 꽃으로 피었다. 장호건동무는 시인이 되었다.

이 세상 가장 은혜롭고 위대한 어버이사랑을 하늘땅에 넘치게 노래부르리라는 이 하나의 열망으로 시인의 가슴은 언제나 끓는 감정의 로였다.

위대한 태양의 해빛아래서만, 위대한 사랑의 손길아래서만 이 땅의 모든 삶은 참다운 삶으로 시작되고 만발하는것이어라.

온 하늘땅, 온 인민의 격동의 환희를 안은 시인의 가슴은 해쫓는 바다가 되어 세차게 끓어번지기 시작했다.

이 땅의 무한한 행복과 찬란한 미래의 노래를 주시는 인민의 수령! 인민의 어버이!

드디어 끓어번지던 시인의 감정의 로문은 열리었다.

빛나는 격정의 불꽃들이 분출하기 시작했다.

우러르면  
그 자애로움  
다 헤아릴길 없고  
그 은혜로움  
다 안을길 없어

아이들은 맑은 목소리로  
어른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다함없는 흠모에 젖어  
목매여 불러라  
우리 수령님  
인민의 어버이  
.....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0돐을 맞는 가장 경사로운 이해의 첫아침에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은 충성의 송가 《우리 어버이》가 나왔다.

위대한 수령님을 국가주석으로 또다시 높이 추대하는 영광의 그날에는 우리 인민의 크나큰 금지와 행복을 온 세상에 소리높이 노래한 충성의 송가 《어버이품》이 나왔다.

이렇듯 그에게 있어서 모든 생활의 체험은 충성의 감정으로 시작되었고 또 그것으로 일관되었다.

어느날 시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항구도시의 유원지를 걸었다.

시인은 흥분하였다.

감탕밭으로 땀박질하며 조개랑 갈게랑 잡던 어린시절의 추억을 불러와서였던가.

아니였다. 벼랑우에 날을듯 나래편 정각과 방금 물우에 솟아난듯 아름다운 와우도거리는 그대로 시의 세계였다.

바다기슭을 따라 시원하게 뻗은 유보도를 걸으면서 시인은 잊지 못할 력사의 그날을 먼저 생각했다.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속에 살건만 우리 인민들에게 더 큰 기쁨, 더 큰 행복을 안겨주시려고 여기 유원지터전을 찾으시여 길아닌 덩불길, 감탕길을 헤치시며 걷고 걸으신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의 그 자옥우에 서해의 명승으로 솟아난 인민의 락원을 보았다.

시인의 가슴엔 춤추는 바다와 같은 환희의 파도가 일었다.

《번영하라 나의 해변 도시여!》 련시가 나왔다.

해와 별 빛나는 이 땅의 보이는 모든것, 감수되는 모든것은 그대로 시가 되었다.

이런 시들을 어떻게 재간만으로야 쓸수 있겠는가.

그것은 그 시인에게만 있는 고유한 감정, 남다른 흠모와 충성의 감정, 그 감정으로 체험하고 감수하기에 그의 서정은 식을줄 모르는 끓는 감정의 로속에서 아름다운 서정의 불꽃들을 내뿜는 것이었다.

## 삼지연의 맑은 물에

수심깊은 호수는 파문도 크다.

정영호동무의 취재수첩에는 이렇게 씌여져있었다.

또 다른 한장을 펼치면 식물표본이기가라도 한듯 삼지연의 진달래꽃잎이 정성껏 채집되어있다.

그리고 다음장에는 《삼지연의 맑은 물에》, 《삼지연은 조국의 큰 거울》이란 글밭들이 또박또박 새겨져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깊이있는 그의 현실체험을 읽을수 있었다.

취재수첩장에 채집된 삼지연의 진달래 연분홍꽃잎은 추억만의 잎새가 되어 그윽히 향기를 풍기며 조국으로 진군한 기쁨 안고 장군님 우러러 높뛰던 투사들의 뜨거운 숨결소리를 실어오고, 삼지연의 맑은 물에 넋을 잃고 서보면 장군님께 맑은 물을 정히 떠올리시며 그리도 기쁘시여 환히 웃으시던 어머니의 밝으신 영상이 안겨오는 듯...

삼지연! 시인의 취재수첩에는 삼지연호수 그대로

로가 옮겨졌다.

삼지연의 맑은 물은 그대로 갈피갈피에 젖어들어 설레기 시작했다. 그 맑은 물줄기는 뜨거운 가슴속에, 혈액속에 흘러흘러 티없이 깨끗한 마음의 호수가 되어 끝없이 끝없이 출렁이었다.

태양을 따라 향도성을 따라 피는 수천수억만의 꽃들에 생명수를 주고 아름다운 빛을 주는 삼지연, 삼지연.

장군님께 충성을 다하신 어머니의 고귀하신 업적을 전하는 삼지연.

어머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량심의 거울 삼지연!

아, 무한대의 푸르른 하늘처럼 끝없는 어머니의 높으신 뜻을 담아 그리도 푸르고 그리도 맑은 삼지연!

언제 어디서나 조국의 그 큰 거울앞에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보며 살아가는 시인의 가슴에는 남다른 깨끗하고도 뜨거운 감정이 출렁이고있다.

그 감정은 아름다운 서정시를 배태하기 시작했다.

두갈래 봇나무 설레이는  
삼지연 맑은 물에  
조용히 생각을 싣노라면  
아 붉은별 항일모를 쓰신  
김정숙어머님의 그 영상

장군님을 모시고  
조국진군의 길을 오시였으니  
기쁨인들 얼마나 크시였으랴  
춤추는 물결우에 어려오는  
어머님의 그 모습  
.....

서정시 《삼지연의 맑은 물에》의 한 구절이었다.

이뿐이 아니었다.

호수가 출렁이는 시인의 가슴에는 《봉선화꽃 물들이던 손에》 맑은 물을 담아보던 너투사들의 얼굴이 어려왔다.

한생토록 퍼내고 퍼내도 끝이 없을 노래의 호수 삼지연.

그래서 시인은 삼지연의 맑은 물을 가슴에 안고 산다.

갈기높은 서해의 기슭에서도 백광이 뿜는 용해장 구내길에서도 그의 가슴에는 언제나 삼지연의 맑은 물이 출렁이고있다.

정영호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삼지연은 혁명의 큰 거울이 되어 마음을 티없이 깨끗하게 해주며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주고있다고...

시인은 그렇게 살고있다.

삼지연은 그에게 생활과 창작의 새로운 혁신을 가져다주었다.

새롭게 창작되는 시들에 이 귀중한것들이 그렇듯 심원한 정서와 맑은 운률을 이루고있는것을 사람들은 모를수도 있으리라.

열렬하고도 맑은 서정의 호수를 가지고있는 그는 언제나 아름다운 서정시의 꽃을 피울것이다.

×

장호건, 정영호 이름들이 제마끔 다르듯이 성격도 현실체험도 감정과 취미도 서로 달랐다.

하지만 독자들을 다같이 기쁘게 한 서정시들을 내놓았다.

아마도 그것은 인민의 가슴에 불꽃을 지퍼주었기때문이라.

도화선에 달린 불꽃, 그 불꽃은 순간이어도 그 생활력은 무한하다.

하기에 장호건, 정영호동무들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서로 각이하게 불꽃을 피워놓았으나 그 불꽃은 하나같이 만사람들의 심장에 충성의 불길을 지퍼주는 그런 생활력있는 불꽃으로 되고있다.

그러기에 수십수백의 시인들이 달을 이어 해를 이어 아니 한생을 바쳐 그렇듯 자기의 개성적인 불꽃을 피워나가기 위해 모색하고있는것이 아닌가!

시는 도화선에 달아주는 순간의 불꽃과 같다.

**본사기자 강명복**

## 혁명전사들에 대한 한없이 숭고한 사랑

저는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를 크나큰 감동속에 읽었습니다.

소설은 혁명전사들에 대한 사랑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시고 혁명의 길에서 용감히 싸우다 먼저 떠나간 혁명전사들을 극진히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형상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인간에 대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값높은 사랑이 무엇이며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사랑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있고 부자간의 사랑, 모자간의 사랑도 있으며 형제간의 사랑, 친구들사이의 사랑, 동지들사이의 사랑도 있습니다. 이 여러가지 사랑기운에서 가장 값있고 귀중한 사랑이 혁명동지들사이의 사랑입니다.》

정녕 이 땅에 사랑이란 말이 생겨 수천만년 인간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수없이 많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전사들에게 돌려주시는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소설에서 보여주는바와 같이 룡과송전투에서 오중훈이 희생되었다는 비보를 받고 달려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손수 오중훈의 눈시울을 쓸어 눈을 감기시키고 친히 허리를 굽히시여 오중훈이 안치된 담가채를 잡으십니다. 고인을 묘자리결에 내려놓으시고도 그대로 굳어지신듯 오래도록 서 계십니다.

혁명전사들에 대한 사랑이 그 얼마나 세심하시고 지극하셨으면 준엄한 혈전의 나날 이미 1년전에 3도백하기습전투에서 탄환에 터진 오중훈련대장의 군복소매의 자그마한 흠집마저 잊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찾으시여 실로 께맨 그 자리가 다시 터진것을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자신의 따뜻한 사랑의 체온이 스며있는 외투를 덮어주시였겠습니까. 그리고는 몸에 찬 흠을 덮을수 없으신듯 그의 얼굴을 하염없이 들여다보고 서계셨겠습니까. 실로 위대한 수령님의 그 모습은 우리의 가슴을 한없이 뜨겁게 합니다.

혁명의 길에서는 기필코 희생이 있는것이며 또한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으로서 죽음을 각오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것입니다.

하기에 혁명가들은 수령과 당을 따라 혁명위업에 빛나는 한생을 바쳐 몇몇이 싸우다 죽는것을 혁명전사의 본분으로 가장 영예로운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보통 사령관이나 지휘관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혁명전사들에 대하여 뜨거운 혁명적의리를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서 희생된 매 전사 한사람 한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모두에게 가장 값높은 숭고한 사랑을 안겨주심으로써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싸우는 전사의 생명은 영생불멸하다는 심원한 진리를 밝혀주고있습니다.

오중훈련대장이 안치된 봉분우의 찬 흠우에 손을 얹으시고 목메인 음성으로 하시는 수령님의 말씀은 얼마나 세차게 사람들의 가슴을 울립니까.

《동무를 이렇게 물을줄은... 조국땅도 아니고... 두만강기슭도 아닌... 머나먼 이 북만의 얼음땅 밑에 널 한장 깔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물을줄을... 누가... 누가 알았겠소...》

《무심하오 중훈이, 너무 무심하단말이요. 우리가 함께 총을 잡고 걸어온 길은 십만리도 넘고 이 십만리도 더 될텐데 그 험한 길을 이날이때까지 함께 걸어오다가 어찌 이렇게 불쑥... 우리를 남겨두고 동무 혼자 가는 법이 있단말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던 수령님께서서는 너무나도 절통하시여 끝내 말씀을 더 잊지 못하시고 무덤만 어루만지십니다.

이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는 형상입니까!

아버이수령님의 이런 한량없이 은정깊으신 숭고한 사랑을 받아안고 사는 우리들이기에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원히 만들어나가는 길에서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칠 드림없는 신념을 안고 싸워나가는것입니다.

저는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를 읽으면서 아버지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이 가장 참되고 위대한 사랑이며 바로 아버지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으로 굳게 단결된 우리 인민, 우리의 혁명대오는 필승불패라는것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저는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속에 사는 오늘의 이 행복 이 영광을 가슴깊이간직하고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해와 달이 다 하도록 높이 우러러모시고 주체위업의 한길을 따라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것을 굳게 결의다집니다.

철도방송위원회 방송원 김용연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70 톨에 즈음하여 진행한 전국방송극작품현상모집 심사결과 발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하여 근로자들의 창작열의와 예술적재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며 문학예술이 인민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0톨에 즈음하여 전국방송극작품현상모집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번에 진행된 1981~1982년도 방송극작품현상모집사업에는 전국 각지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자들이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수많은 작품들을 가지고 참가하였다.

방송극작품현상모집에서 당선된 작품들과 당선자들은 다음과 같다.

## △ 방송극, 방송소설

### 1등 방송극 《행복》 리옥

조선인민군우편함 제18000호(선) 군인

### 2등 방송소설 《병사는 고향으로 간다》 신리섭

봉화화학공장 로동자

### 2등 방송소설 《인물화》 리석환

청진시 청암광산 로동자

### 3등 방송극 《구암령의 새 전설》 리수명

청진의학대학병원 로동자

### 3등 방송극 《밤나무술 설레인다》 박헌

만경대혁명학원 교원

### 3등 방송극 《딸의 심정》 안근호

평양시 대학건물보수사업소로동자

### 3등 방송시극 《내가 가는 길》 송재하

평양 알미늄제품공장 로동자

### 가작 방송극 《분이의 금강산》 김성하

사회안전부 협주단 배우

### 가작 방송극 《젊은 나날》 김상렬

평안북도 운전군 룡봉협동농장 농장원

### 가작 방송극 《장갑기관차는 전선으로》 방경로

조선인민군우편함 제16000호(삼) 군인

### 가작 방송시극 《로동청춘》 홍준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자

## △ 동화극

### 2등 동화극 《영원한 꽃다발》 김재원

평안북도 정주군 서주협동농장 농장원

### 3등 동화극 《다시 찾은 칼》 김영준

교원신문사 기자

### 3등 동화극 《썩썩이의 뉘우침》 강일주

함경북도 길주군 영남고등중학교 교원

### 3등 동화극 《바다로 나온 황금과도》 홍순모

개성시 학생소년궁전 교원

## △ 연속방송극 《천복이와 만길이》, 《남쪽에서 온 편지》

### 1등 연속방송극 《천복이와 만길이》

(린회석광산편) 김성우

강원도 창도군 도서관 관장

### 2등 연속방송극 《천복이와 만길이》

(조차장역편) 원명혜

승리자동차종합공장 로동자

### 2등 연속아동방송극 《남쪽에서 온 편지》

(반동적보건시책폭로편) 정인수

평양시 동대원학생옷공장 지도원

### 3등 연속아동방송극 《남쪽에서 온 편지》

(전도환괴뢰반대투쟁편) 리옥연

로동신문사 로동자

### 가작 연속아동방송극 《남쪽에서 온 편지》

(괴뢰군탈출편) 윤화

평안남도 평원군 국영과수농장

로동자

## △ 토막극, 재담

### 1등 재담 《발걸음소리》 최동학

과학원정밀기계공장 설계원

### 2등 재담 《봄》 강병림

조선인민군우편함 제58053호(선) 군인

### 2등 토막극 《약속》 최치홍

평안남도 녕원군 읍협동농장 농장원

### 2등 토막극 《마누라의 심정》 리웅천

평양시 모란봉 화물자동차사업소 운전사

- 2등 토막극 《새 일본새》 박원근  
황해북도 서흥군 량정사업소  
사무원
- 3등 토막극 《오솔길에서》 유원섭  
조선인민경비대 우편함 제10003  
호 (선) 군인
- 3등 토막극 《우리 집 머느리감》 김정순  
청진시예술단 작가
- 3등 토막극 《그가 명심한것》 전주걸  
통일신보사 부장
- 가작 토막극 《그들의 마음》 전영순  
평양전구공장 노동자
- 가작 제답 《혼자 할 일이 아니다》 김려삼  
평안북도 박천군 송석협동농장  
농장원

## 전국방송극작품현상모집요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85돐을 뜻깊게 맞이하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당제6차대회 보고에서와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장엄한 투쟁에 떨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하기 위하여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공화국창건기념일인 1983년 9월 9일을 앞두고 방송극작품현상모집사업을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 1. 현상모집작품의 종류

방송극, 방송소설, 방송시극, 아동방송극, 연속방송극 《천복이와 만길이》, 연속아동방송극 《남쪽에서 온 편지》, 토막극, 제답

### 2. 현상모집작품의 주제

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 력사와 불멸의 업적,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주제로 한 작품.

② 우리 당의 위대성과 불패의 위력, 령도의 현명성과 빛나는 혁명업적을 주제로 한 작품.

③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혁명전통과 그 전통을 이어받아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영웅적 위훈을 발휘한 인민군대와 인민들의 투쟁을 내용으로 한 작품.

④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제6차대회보고에서와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사회주의경제 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진군에 한사람같이 일떠선 우리 인민들의 투쟁을 반영한 작품.

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간직하고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용감하게 이겨내면서 3대혁명로선을 빛나게 관철해가고있는 근로자들의 영웅적투쟁을 내용으로 한 작품.

⑥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새로운 방안을 높이 받들고 신심과 희망에 넘쳐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해 힘차게 싸워나가고있는 남조선인민들과 해외조선공민들의 투쟁을 주제로 한 작품.

### 3. 응모자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해외공민을 포함하여 누구나 참가할수 있다.

### 4. 응모작품을 보내는곳과 보내는 방법

△보내는곳 및 보내는 방법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문예국

우편 또는 직접 가지고 올수 있다.

겉봉에는 《현상응모작품》이라고 써야 하며 반드시 응모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현직장직위와 집주소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 5. 응모작품을 받는 기간과 심사결과 발표

△응모작품을 받는 기간

1982년 11월 30일부터 1983년 7월 31일까지

△심사결과발표

1983년 9월 9일을 전후하여 방송과 출판물을 통하여 발표한다.

### 6. 응모작품에 대한 처리

우수한 작품을 낸 당선자들에게는 해당하는 상을 준다.

응모작품중 사상예술성이 높고 시기별로 중요한 작품들은 심사결과 발표전에 방송한다.

※ 투고한 작품은 반환하지 않는다.